

**2011년 UBF 목자·선교사 세미나**

**정신 · 사역 · 비전**

**2011 UBF Shepherd · Missionary Seminar**

**Spirit · Ministry · Vision**

2011년 UBF 목자·선교사 세미나

# 정신·사역·비전

		5월 30일(월)	5월 31일(화)	6월 1일(수)
PM 2:00			Q. T.	
		AM 7:30	아 침 식 사	
		9:00	UBF의 정신·사역·비전 발표(II)	선언문 발표 폐회예배 (김다윗)
		12:00	점 심 식 사	
		1:00	교제의 시간	
		개회사(이사무엘)	2:30-3:45	
	2:30	분반 성경공부	분임토의(I) 1.현지인 제자양성 2.현지인 리더십개발과 이양 3.선교사 계속교육	
	4:30		4:15-6:00	
	5:00	주제 메세지 '온세상에 전파되리니' 마 24:1-51 (배사라)	분임토의(II) 1.차세대 동력화 2.자녀교육 3.동역과 소통	
	6:00	저 녁 식 사		
	7:00		UBF의 정신·사역·비전 발표(I)	아시아·CIS 대표소감 음악제 동영상 기도회

# Spirit·Ministry·Vision

	May 30th(Mon)	May 31th(Tue)	June 1st(Wed)
PM 2:00	AM 7:30  9:00  12:00  1:00	Q. T.	
		BREAKFAST	
		Spirit-Ministry-Vision of UBF Presentation II	Declaration Closing Address David Kim
		LUNCH	
		FELLOWSHIP	
	Opening Address Samuel Lee	2:30-3:45 <b>Track Session I</b> 1.Raising Native Leaders 2.The Development and Passing on of Leadership to National Leaders 3.Necessity and Management of CME (Continuing Missionary Education)	
	GROUP BIBLE STUDY		
	4:30 5:00 <b>Main Message</b> <b>"A Testimony to All nations"</b> (Mt. 24:1-51) Sarah Barry	4:15-6:00 <b>Track Session II</b> 1.Empowering the UBF's Next Generation 2.2nd Generation Ministry 3.Co-working and Communication	
	DINNER		
	Spirit-Ministry-Vision of UBF Presentation I	Representative Testimonies (Asia,CIS) MUSIC VIDEO PRAYER	

## 차례

<b>개회사</b> (이사무엘)	1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b>WMR 메시지</b> (전요한)	7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b>주제 메시지</b> (배사라)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리라	19
<b>제 1장 서론</b>	38
1. 정신 · 사역 · 비전 (정현일)	38
2. 성경 중심의 정신 (안엘리야)	42
<b>제 2장 대학생 제자양성</b>	55
1. 대학생 제자양성의 정신 (김엘리사)	55
2. 제자 양성 및 가정교회 (윤모세)	65
3. 일대일 성경공부 (김느헤미야)	75
4. 일용할 양식 (노모세)	88
5. UBF의 소감이 지닌 신앙적 의미 (박요한)	97
<b>제 3장 세계선교와 자비량</b>	105
1. 자비량 선교의 정신 (김창원)	105
2. UBF의 전문인 자비량 선교역사 (서제임스)	115
<b>제 4장 공동체 정신</b>	128
1. 주는 정신 (고디모테)	128
2. 구유 정신 (노요셉)	134

3. 공동체 정신	135
4. 사회봉사 (김바울)	138
<b>제 5장 개척정신과 자립정신</b>	144
1. 개척정신 (강득현)	144
2. 자립정신 (최갈렙)	146
<b>제 6장 북한선교와 통일준비 (김갈렙)</b>	153
1. 북한선교	153
2. 통일준비	154
<b>결론</b>	159
<b>분임토의</b>	163
1. 현지인 지도자 양성 (마크 부세코비치)	163
2. 현지인 리더십 개발 및 이양 (윤모세)	180
3. 선교사 계속 교육 (양마가)	199
4. 차세대 동력화 (장베드로)	211
5. 자녀교육 (이야곱)	220
6. 동역과 소통 (란 위드 · 홍바울)	233
<b>폐회 메시지 (김다윗)</b>	252
고통 하는 시대와 성경	

## Contents

<b>Opening Address</b> (Samuel H. Lee)	4
WHAT DO THESE STONES MEAN?	
<b>WMR Message</b> (John Jun)	13
YOU ARE A ROYAL PRIESTHOOD	
<b>Main Message</b> (Sarah Barry)	29
A TESTIMONY TO ALL NATIONS	
<b>I. Introduction</b>	40
1. Spirit, Ministry, Vision (Heon-il Jeong)	40
2. A Biblically Based Spirit (Elijah Ahn)	48
<b>II. Campus Ministry for Discipleship</b>	60
1. The Spirit of Campus Ministry (Elisha Kim)	60
2. Discipleship and the House Church (Moses Yoon)	70
3. One-to-one Bible Study (Nehemiah Kim)	81
4. Daily Bread (Moses Noh)	92
5. The Purpose and Principles of ‘Sogam’ Writing (John Park)	101
<b>III. World Mission and Self Supporting Missionaries</b>	110
1. The Spirit of Self-Supporting Missionaries (Changwon Kim)	110
2. A Brief Overview Of UBF Self-Supporting Mission (James Suh)	121
<b>IV. The Power and Influence of Believing Community</b>	131
1. Life-Giving Spirit (Timothy Koh)	131
2. A Spirit of Sacrifice and Humility for Christ's Kingdom (Joseph Noh)	136

3. A Spirit of Community	137
4. Social Responsibility in Action (Paul Kim)	141
<b>V. Pioneering and Independent Spirit</b>	148
1. Pioneering Spirit (Deuk-hyeon Kang)	148
2. Independent Mindset (Caleb Choi)	150
<b>VI. To the Ends Of the Earth: North Korea and Beyond</b>	156
1. Prayer for North Korea (Caleb Kim)	156
2. Prepare for the re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157
<b>Conclusion</b>	161
<b>Track Session</b>	171
1. Raising Native Leaders (Mark Vucekovich)	171
2. The Development and Passing on of National Leaders (Moses Yoon)	189
3. Necessity and management of CME(Continuing Missionary Education)	
(Mark Yang)	205
4. Empowering the UBF's Next Generation (Peter Chang)	215
5. 2ND Generation Education Ministry (Jacob Lee)	226
6. Co-Working And Communication (Ron Ward • Paul Hong)	243
<b>Closing Message (David Kim)</b>	261

TERRIBLE TIMES AND THE BIBLE



## 개회사

###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여호수아 4:21-22).

우리 공동체 설립 50주년을 맞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50주년 기념 선교 보고대회를 축복하시고 ‘왕 같은 제사장’의 소명과 비전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전 세계 각 곳에서 캠퍼스 선교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 확장역사에 충성하시던 선교사님들과 현지 목자님들을 주님의 이름과 뜨거운 가슴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본국에서 이 역사를 기도로 지원해주신 목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노종 마더 배리, 그레이스 리 선교사님을 비롯하여 이곳에 모이신 여러분들은 UBF 선교에 있어서 전선의 용사들이며, 위대한 하나님 나라 건설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며 존경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후 40년의 광야훈련을 지나 요단강 앞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오합지졸과 같은 그들이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요단강 도하명령을 받았을 때, 넘실거리는 요단 물이나 자기 자신이나 백성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과 자기 백성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젓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심었습니다. 또한 여호와와 궤를 멘 제사장들이 요단 물을 밟을 때 물이 끊어져 한 곳에 쌓여 설 것이니 믿음으로 강을 건너라고 명령했습니다.

요단강 물은 우기를 맞아 언덕을 넘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약궤를 멘 제사장들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강물에 들어섰습니다. 그러자 흐르던 물이 그쳐서 일어나 쌓였습니다. 궤를 멘 제사장들은 요단 강 중앙의 마른 땅에 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요단을 건넜습니다.

온 백성이 요단을 한참 건너고 있을 때 하나님은 매 지파에 한 사람씩 택하여 제사장들이 선 곳에서 돌 열둘을 가져다가 유숙하는 곳에 세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연약한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넜다는 사실은 자손만대에 두고두고 기념할 만한 역사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명령대로 요단강에서 가져온 열두 돌을 길가에 기념비로 세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불가능한 일을 믿음으로 가능케 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 위대한 역사를 이스라엘의 후손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열두 돌을 취하여 기념비를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후손들이 “아빠, 아빠, 저 돌들이 무슨 뜻이야?” 묻거든 “아, 그거, 내가 잘 알지. 그건 말이야, 우리 조상들이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넌 그 유명한 역사를 기념하는 돌이란 말이야. 너 여호수아 장군 알지?” 하면서 그 의미를 알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역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조상들과 우리를 통해 이루신 한국과 세계 캠퍼스 선교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한 믿음을 축복하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말씀에 복종했을 때, 한국 캠퍼스 개척이 이루어졌습니다. 더 나아가 세계 캠퍼스에서 일어난 복음의 기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우리 선교사들을 별로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세계선교가 과연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복종이나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할 수 없는 일을 살아 계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감당했느냐 안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보다는 우리 후손들이 볼 때 믿음으로 감당한 이 역사가 자손만대에 소망의 씨를 심어주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우리들에게 세계 캠퍼스를 맡기시고 목자의 나라로 사용하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계속하여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여 후손들에게 위대한 역사를 선물로 남겨 주어야 합니다.

역사의식이 없는 개인이나 공동체, 국가는 결코 발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50주년을 맞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개척 조상들에게 주셨던 신앙적 유산들과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정리하여 공유하고, 새로운 50년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과 비전을 붙들고자 이 세미나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를 준비하느라 많은 수고를 감당하신 모든 동역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미나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기억하고, 붙들고,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할 신앙적 유산들과, 우리가 계속하여 감당해야 할 사역

들과, 하나님의 비전을 밝히 보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모두가 ‘성경신앙’ ‘성경산들’의 아름다운 영적 유산과 주님과 복음을 위과,라면 어떤 희생도 감당할 수 있었던 고귀한 영성을 회복하여, 2041년까지 미개척 140개국에 개척선교사를 파송하고, 233개국에 10만 명의 전문인 자비량 선교사를 파송하여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데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쓰임 받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동시에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한국과 전 세계의 모든 UBF 식구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이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 **Opening Address**

### **WHAT DO THESE STONES MEAN?**

“He said to the Israelites, In the future when your descendants ask their fathers, ‘What do these stones mean?’ tell them, ‘Israel crossed the Jordan on dry ground’”(Jos 4:21-22).

At this 50th anniversary of our spiritual community I attribute all glory to God. I thank and praise God for blessing the 50th anniversary world mission report and renewing his call and vision for us to be ‘a royal priesthood’! I warmly welcome with all my heart, and in the name of our Lord, our missionaries and native leaders who have faithfully strived to expand the kingdom of God through world campus evangelism. I also want to express my deepest gratitude to all Korean shepherds who have prayed for God's work. Our precious servants Mother Barry, Grace A. Lee, and all of you who are here today are front-line, spiritual warriors and great builders of the kingdom of God. I love and respect you.

After the Israelites came out of Egypt and received 40 years of wilderness training, they arrived at the Jordan river. However, it was impossible for the undisciplined Israelites to cross it. When God commanded Joshua to cross it, Joshua did not look at the surging water, his people or himself. He looked at God. He believed that God was living and working among his people. He planted the faith in the hearts of the people that God would surely give them the promised land, flowing with milk and honey. He gave the priests who were carrying the ark of God on their shoulders the command to cross the river with faith that when their feet touched the water, the stream would stop flowing.

At the time the Jordan was overflowing because it was the rainy season, but the priests

who were carrying the ark stepped into the river by faith in God's word. The water stopped flowing and piled up into a wall of water so that the priests stood on dry ground in the middle of the Jordan, and the Israelites crossed to the other side by faith.

While all the people were crossing the river, God commanded Joshua to choose twelve men, one from each tribe, and told them to take twelve stones from the middle of the Jordan where the priests stood and to put down these stones at the place where they stayed that night. He commanded them to do this because the crossing of the Jordan by the weak Israelites was a historical event, to be remembered by many generations to come. As God commanded, Joshua took twelve stones from the river and put them down at Gial as a memorial landmark.

The greatest accomplishments in the world are the impossible ones that are made possible by faith. God told Joshua to set up twelve stones as a memorial so that his descendants would also remember their great history. When the Israelite children ask, "Daddy, Daddy, what are the stones?" their parents can answer, "These are the stones that commemorate the great history of your ancestors, who crossed the Jordan river by faith. Do you know who General Joshua is?" God told them to teach their descendants in this way. Our God is the God of history.

The campus evangelism in Korea and the world by our UBF ancestors and us is the work of God, who blessed the kind of faith that obeys the word of God. When our ancestors obeyed the Word, Korean campuses were pioneered. Furthermore, we have seen the miracles of the gospel on many campuses worldwide. The world does not recognize our missionaries and their sacrifices or achievements. What is important, however, is whether the world mission task we fight for is in line with God's will for this generation or not, and whether we challenge the impossible and live by faith in the living God or not. Above all, from the point of view of our descendants, what we have done by faith is historically meaningful to them because it gives them great hope. As we obeyed God's

world mission command by faith, he, in turn, entrusted world campuses to us and still wants to use us as a shepherd nation. We must continue to obey God's command by faith and leave a great spiritual legacy to our next generations.

No individual, spiritual community, or country can prosper without a sense of history. As we prepared for the 50th anniversary, we wanted to hold a seminar to review and share the spiritual legacy and ministry God has given to our ancestors, and hold on to God's hope and vision for the next 50 years to come. I deeply appreciate all our co-workers who worked hard to make this seminar possible. Through this seminar, I pray that God clearly show us his vision, the ministry we must continue, and the spiritual legacy that we should remember, expand, and uphold. Through this I pray that we restore UBF's beautiful heritage of faith and obedience to the Bible, as well as our precious willingness to sacrifice anything for the Lord and for his gospel. I pray that we will be used as a kingdom of priests and a holy nation to send out missionaries to 140 unpioneered countries, and a hundred thousand self-supporting tent-maker missionaries to 233 countries by 2041, and that God's kingdom come. I also pray that God will give the same grace to all UBF family members around world who are not with us today.

“He said to the Israelites, In the future when your descendants ask their fathers, ‘What do these stones mean?’ tell them, ‘Israel crossed the Jordan on dry ground.’”

##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말씀; 뱀전 2:9-11

요절; 뱀전 2:9a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나님께서서는 지금부터 약 120년 전에 미국의 선교사를 통해 이 땅에 복음을 전파 하셨습니다. 일제의 식민지 압박가운데서 주님은 평양 대부흥운동을 통해 복음을 전국 적으로 전파하셨습니다. 1961년 UBF를 설립하시고 지난 50년 동안 93개국에 약 2,000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여 캠퍼스 개척역사를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네로황제(AD 54-68)의 박해를 받아 소아시아에 흩어져있는 그 당시 그리스도인 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그 당시 국가로부터 체포 명령을 받고 도망 다니는 소수의 이교도들이요 나그네처럼 흩어져 숨어사는 고난 받은 백성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들의 영적인 신분은 무엇이며 그들의 사명은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1장, 주님은 우리를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9a, c, d).**

사도 베드로는 그 당시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신자들의 영적인 신분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9a를 보십시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사도 베드로는 그 당시 초 라한 신자들의 영적인 신분과 특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비록 이방 타국에서 밑바닥 인생을 살면서 흩어져 있는 천대받는 나그네들이었지만 그들의 영적인 신분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세상에 대해서는 택함 받은 족속이요, 거룩한 국민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대한 성도들의 영적인 신분은 무엇입니까?

**첫째, 택하신 족속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9a-b).** 하나님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습니다(사 43:20). 사도 베드로가 활동했던 시대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시민권을 획득하여 로마 시민이 되는 길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많은 돈을 내어 시민권을 사거나 로마 제국을 위해 큰 공을 세운 사람이 아니면 로마 시민권을 얻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와 같았습니다(행 22:28).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인한 구속과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에 의해서 되었습니다(엡 2:18-19).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현재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언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의 은혜로 현재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세상에서 살아야겠습니다.

오늘날에는 북한 탈북민이 천신만고 끝에 미국에 와서 미국 시민권을 얻어 미국 시민이 되는 것이 일생일대의 최대소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미국 시민권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늘나라 시민이 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런 특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늘나라의 시민입니다. 매일 이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나라의 시민으로서 합당하게 살아야겠습니다.

**둘째, 거룩한 나라(9c, 출 19:6b).** 9c를 보십시오. “오직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세상 나라에서는 나라에 따라서 민족적인 기질이 있고 독특한 문화와 국가적인 이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도 독특한 기질과 특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성은 거룩함과 성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의 피로 죄를 깨끗이 씻음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세상 백성들과 구별된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출 19:5-6a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모든 신자들이 이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거룩한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입니다.

간혹 신자들 중에는 세상에서 죄에 유혹이 되어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지 못하고 오히려 부끄러운 백성이요, 세속적인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요즈음 한국에서도 많은 성도들이 세상의 영향을 받아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오히려 불신자들로부터 부끄러운 백성이요 더러운 백성으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에 대해서 개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를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세부 실천 개혁이 없고 실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과 성별되어 거룩한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 제 2장, 주님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임명하셨습니다(9b).

주님은 우리들의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신분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9a-b를 보십시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이는 우리들의 신분이 살렘 왕 멜기세덱처럼(창 14:18) 왕이요 제사장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은 왕이신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만국을 통치하며 동시에 그리스도처럼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분을 가졌습니다(계 5:10).

주님은 우리들의 영적인 신분이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9a-b를 보십시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You are a chosen people, a royal priesthood).” 여기에서도 동사인 ‘are’는 현재형입니다. 이는 시제가 현재요, 현재 계속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현재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임명하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낡아빠진 죄인이요 세상에서 천대받은 성도들이지만 주님은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임명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이 왕 같은 제사장임을 영접하고 믿습니까? 1세기 신자들처럼 세상에서 버림받고 흠어진 나그네와 같이 비천한 신분일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인정하셨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머리로만 영접했습니다. 비행기를 탄 것처럼 기분이 뽕뽕 뜨고 매우 좋았습니다. 그러나 실제 생활 가운데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항상 의식을 갖고 살지 못했음을 마음 아프게 회개해 왔습니다. 주님은 우리 UBF 형제자매님들과 목자님들과 선교사님들을 ‘왕 같은 제사장들’로 임명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분을 띄우기 위해서 하시는 빈말이 아닙니다. 이는 왕의 왕이시고 주의 주가 되신 주권자 하나님의 임명장입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매일 아침마다 부르심을 새롭게 영접하고 제사장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해야겠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의 임무는 무엇입니까? 구약시대의 제사장 임무는 제사 업무를 하여 백성들의 죄 사함을 덧입게 하는 사죄의 사역(레 1:1-17)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고(레 10:11)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삼상 7:5-9, 출 32:11-18)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있어서 왕이시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신약시대의 제사장의 업무가 무엇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주님의 구원의 은혜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 하는 것 입니다(9b).** 주님은 우리를 그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9b를 보십시오. “이는 너희를 어두운데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거라사 귀신들린 자를 고치시자 건강을 회복한 귀신들린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그 때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친족에게 고하라.” 그러자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큰 구원의 일을 행하신 아름다운 덕을 데가볼리와 자기가족에게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이히 여겼습니다.(막 5:19-20)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셨습니다. 제사장의 사명은 바로 생명의 복음말씀을 충성스럽게 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학 캠퍼스에서 복음을 받고 주님의 아름다운 구원의 덕을 덧입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상황이 어렵더라도 열심히 젊은 지성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파해야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포스트모더니즘과 물질주의를 우상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마치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처럼 복음을 전할 때 비웃고 기롱하며 농담으로 여기고 있습니다(창 19:14). 그러나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생명의 복음을 전파해야겠습니다.

**둘째, 제사장의 임무는 중보 기도하는 것입니다(삼상 7:5-9, 출 28:29).** 삼상 7:9은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블레셋 군이 막강한 전력으로 미스바 성회 중에 공격해 왔습니다. 사사요 제사장인 사무엘은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그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간절히 중보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중보기도에 응답하사 블레셋을 물리치시고 사무엘의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이 다시 이스라엘을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삼상 7:10-11).

오늘날 21세기는 말세의 징조가 분명하게 나타나있는 시대입니다. 그리하여 각종 물질의 우상과 또 쾌락주의의 우상, 첨단 기술주의(Hightechnology)의 우상을 섬기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한 처처에 지진이 있고 재난이 심합니다. 특히 요즈음 일본에서 일어난 큰 지진과 해일은 지진에 대한 완전한 대비를 갖추었다

고 하는 일본을 완전히 쓸어버렸습니다. 그리하여 현대 과학으로 완전하게 대비를 했다고 하는 일본은 방사능과 지진의 공포 가운데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과 온 세계에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마 11:24).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과학과 물질의 우상 가운데 살 때 우리도 일본처럼 지진과 방사능의 오염 가운데서 헤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세대가운데서 우리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제사장 사무엘처럼 자기가 맡고 있는 캠퍼스 지성인들과 세계 캠퍼스 지성인들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기도를 해야겠습니다. 지난 중동 지부장 수양회 때 한 선교사와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처럼 맡고 있는 나라는 중동에서 가장 인샬렘 많은 모슬렘 샬렘인데 자기 한 가정의 이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생각할 때 자기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가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7장입니다. 처공부하고 소감 처쓰는 가운데 자기가 그 나라의 지성인들과 백성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과 세계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이는 매일 아침마다 그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중보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간절한 중보기도를 통해서 그 나라가 정치적으로 큰 지진이 일어나고 복음을 전할 소망을 볼 수 있습니다. 고전 15:58에서 주님은 다음과 같이입니다. 나라는 중동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니되라. 이는 너희 수고와 혼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앎이니라.” 중동의 한 선교사 가정의 계속적으로 를 나누었습니다중동의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의 기도의 수고가 주안에서 헛되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50년간 한국을 왕 같은 제사장 나라로 쓰셨습니다. UBF의 설립자이신 Dr. Samuel 선교사님은 UBF가 탄생하자마자 동남아와 독일과 미국에 선교사를 파송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국과 전 세계를 위해 간절히 중보기도를 하도록 방향을 주셨습니다. UBF 형제자매님들은 믿음으로 성서한국과 세계선교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전 세계로 선교사를 파송하였습니다. 1970년부터 2011년까지 3,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이 파송한 선교사들을 통해서 북미, 구라파, CIS, 남미와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아프리카와 중동을 개척하고 캠퍼스 제사장성 역사를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국의 형제자매님들을 왕 같은 제사장들로 쓰셨습니다. 현재도 쓰고 계십니다.

우리 한국은 왕 같은 제사장 나라로서 이번 5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간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는 일을 미국에 맡기고 우리는 졸업을 해야 마땅합니까? 이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9을 보십시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임명장을 새롭게 영접하고 앞으로 50년 동안 계속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사명을 계속해서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냄새나는 죄인들을 말씀과 성령으로 구원하사 왕 같은 제사장으로 임명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50년 동안 한국 UBF를 세계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로 쓰임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 **WMR Message**

### **YOU ARE A ROYAL PRIESTHOOD**

1Peter 2:9-10

Key verse 2:9a

“But you are a chosen people, a royal priesthood, a holy nation, a people belonging to God.”

About 120 years ago, God brought the gospel of Jesus through so many missionaries that left their homelands and lived as kernel of wheat that fell in this land. When this country was under Japanese occupation, God used Pyeongyang spiritual revival to preach the gospel to every corner of the nation. We give thanks to God that he established UBF in 1961. For the past 50 years, God raised more about 2,000 UBF missionaries that are scattered to 93 countries to declare Jesus' wonderful light.

As we reflect on the work of God through us, we are reminded of the early Christians that were dispersed in Asia Minor because of the severe persecutions. The Roman Emperor, Nero (AD54-68) treated these Christians as enemies of Rome. They were despised, rejected and hunted down under the public order of arrest. To these people Peter planted the words of hope. God still speaks to us through Apostle Peter's message in that the gospel is being preached through many Christians scattered to every corner of the world for his purpose. May God bless today's message so that we may renew our marvelous identity for Christ and his kingdom.

#### **I. God has made us his chosen people and a holy nation (9a,c,d).**

What does the Apostle Peter say about these Christians scattered like homeless wanderers? Look at verse 9a. "But you are a chosen people, a people belonging to God, a holy nation, royal priesthood." From a human point of view, they were despised low class people in remote foreign countries. But that's not what these people really are. From God's point of view, they are precious to God- a chosen people, a holy nation, a people belonging to God. Here, let us consider the spiritual identity of believers before God.

**First, "You are a chosen people" (9a, b).** Throughout the Old Testament God referred to the Israelites as his chosen people (Isa 43:20). In the time of the Apostle Peter, it was great

privilege for any person under Roman rule to secure Roman citizenship. Many paid a huge sum of money, or rendered distinguished military services for the Empire. A Roman citizenship allowed people with privileges, honor and security (Ac 22:28). Our heavenly citizenship is not free. God chose his people through Jesus Christ. Jesus paid a huge price for us. He renounced his heavenly glory. He died on the cross for our sins. God declares that we are a people of God chosen by him.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remember how wonderful it is to be chosen by the blood of Jesus and live as people of God? We did not choose God but God has chosen us even before the creation of the world (Eph 1:4). What is the reason for this? It is for us to go and bear fruit in this world (Jn 15:16-17). As God's chosen people we love God and love one another. As God's chosen people our real home is not here but in heaven. Because of this heavenly citizenship, we live in this world but not of this world. Although circumstances in this world might tempt us, cause us pains, we are not swayed by the things of this world. Rather, this heavenly citizenship enables us to live in this world as those confident, worthy, and secure people of God. God's chosen people.

**Second, "You are a holy nation" (9c, Ex 19:6b).** Look at verse 9c. "But you are... a holy nation". In this world each nation has its own unique history, culture, and sense of pride. God's people become a holy nation. The primary mark of God's people is holiness and purity. The blood of Jesus purifies God's people by the blood of Jesus. They are holy and pure to God different from ungodly people in the world. In Exodus 19:5,6a God said "Now if you obey me fully and keep my covenant, then out of all nations you will be my treasured possession. Although the whole earth is mine, you will be for me a kingdom of priests and a holy nation."b e holy nation is the gathering of people who have repented toward God and put their faith in Jesus (Acts 20:21). The spirit of a holy nation is thankful, broken and contrite heart (Ps 50:23, 51;17). The people were scattered to many parts of the world because they are set apart for God's call. In this sinful and adulterous generation, people pursue holy life with their sincere life of prayer and devotion to God. They live beyond reproach before God and men. Yet, they are humble before God. They do regard themselves as righteous but sinners that are absolutely in need of God's mercy and grace.

God's holy people are not necessarily perfect. Rather, they live as God humble people knowing how unworthy they are. During the past fifty years God has done very precious work

among us. We have comforted many types of sorrowful people with our sincere one to one Bible studies. Many missionaries, through their simple and devout life, have planted a new vision of Christian life to many people who lived in Christian culture but did not know Jesus. Even so, our UBF 50 years are not free from mistakes. We have dishonored God with our divisions. We have wounded our brothers with lack of love for one another. Our holiness is not based on our accomplishments. Rather, our holiness is based on our humble repentance before God. As we celebrate UBF 50th Anniversary, let's thank God for his gracious work through us. We do not become holy to God by bragging about how wonderful things we have done just as a Pharisees did in the temple (Lk 18:11-12). Rather, we must come before God, like tax collectors, crying out, "Lord, have mercy on me, a sinner" (Lk 18:13). We have not been praying enough for those who need our prayer support. We have not loved our neighbors as Jesus loved us. We have not been sacrificial enough to reflect Christ's sacrifice for us. As we come before the holy presence of God, we recognize all our sins and shortcomings. As God's holy people, let us come before God with repentance heart seeking God's mercy and grace. In this way, God regards us as his holy people.

## **II. God has appointed us a royal priesthood (9b).**

Look at verse 9a, b. "But you are a royal priesthood." This verse tells us that our identity is king and priest like Melchizedek the king of Salem (Ge 14:18). Through spiritual union with Christ, believers reign over the whole world and, at the same time, serve God as priests like Christ (Rev 5:10). Look at verse 9a,b again. "But you are a royal priesthood." In this verse the verb 'are' is of present tense. This means we are a chosenre a choright now. God appoints us a royal priesthood now. d nowthough we are smelly sinners and possibly despised people in the world, from God's point of view, we are a royal priesthood. Do you accept and believe that you are royal priests? In this world some may occupy high or low positions. But our worldly positions do not really define us. Rather, our spiritual identity matters! God appointed us as royal priests.

It is easy to understand this world superficially. At first I accepted this word only theoretically. I was up in the moon like taking a comfortable flight. Yet I found that I did not live as a royal priest in my actual life and deeply repented. The Lord appointed our UBF brothers and sisters, shepherds and missionaries as royal priests. This was not merely to make

us feel good. This verse is the certificate of appointment given to us by the King of kings and of the sovereign God. We must renew our spiritual identity every morning and be faithful to the task of a priest.

What then is the task of a priest? In the time of the Old Testament, they offered sacrifices for the sin of the people (Lev 1:1-17). They also taught the word (Lev 10:11) and gave an intercessory prayer for the people (1Sam 7:5-9, Ex 32:11-18). Yet in the time of the New Testament, we can learn about the task of a priest through Jesus who is the King and Priest.

**First, royal priests declare the praises of the Lord (9b).** What did the Lord say his purpose of appointing us as his chosen people, a royal priesthood is? Look at verse 9b. "that you may declare the praises of him who called you out of darkness into his wonderful light." Once in the region of the Gerasenes, when Jesus healed a man who was possessed by an evil spirit, he wanted to follow Jesus. At that time Jesus said to him, "Jesus did not let him, but said, "Go home. Tell your family and tell them how much the Lord has done for you, and how he has had mercy on you." So the man went away and began to tell in the Decapolis how much Jesus had done for him. And all the people were amazed. (Mk 5:19, 20) As High priest, Jesus taught the word. The task of a priest is to faithfully spread the life giving gospel. When we were in the campus, we received the grace of salvation through the gospel.

Things of this world are so superficial that one or two compliments are enough. No one is worthy of praise all the time. However, our Lord Jesus is worthy of praise always. Our Lord is still doing his work of salvation through us. Sinners still repent as they hear our Lord Jesus does not come to call "the righteous" but sinners to repentance" (Lk. 5:17). Our God works powerfully through our humble and faithful preaching the word in seasons and out of season. This is the reason why we must declare the praiseworthy grace of Jesus.

The situation is very tough to declare the praises of God. Many Korean people work hard-from early morning till very late in the evening. Even middle school students rarely go to bed before midnight for regular schools and several private tutoring services a day. Our lay shepherds in Korea have rarely come home before 8:00 PM. Even though today's situation is tough, Jesus is the way. "With men it is impossible, but not with God. All things are possible with God" (Mk 10:27). He is the truth. He is life. Thus, where there is a will, there is a



way. The real power of the gospel ministry occurs when our leaders, along with our full time staff leaders, are mobilized to declare the praises of God. Situations of many tent-maker missionaries are no better than many of our leaders here in Korea. Many of them have to work, study and teach the word of God. How can we actively declare the praises of God to young people in this generation? In some sense, the people of this generation is like the people of Sodom and Gomorrah (Ge 19:14)-hopeless and doomed for destruction. On the other hand, this generation is also like a huge field ready for harvest (Lk 10:2,3). Therefore, as royal priests we must pray. We must not fail to pray for those who need God's salvation. Our Lord Jesus alone is the perfect Mediator between God and sinners (1Ti 2:5). At the same time, as royal priests we are small and practical mediators between God and sinners. Therefore, we must stand before the living and the dead in the name of Jesus. As royal priests we must preach the good news of Jesus Christ in season and out of season (2 Tim 4:2).

**Second, royal priests offer intercessory prayers (1 Sam 7:5-9, Ex 28:29).** 1Sam 7:9 says, "Then Samuel took a suckling lamb and offered it up as a whole burnt offering to the LORD. He cried out to the LORD on Israel's behalf, and the LORD answered him." The Philistines drew near to engage Israel in battle while the Israelites were at Mizpah. Samuel, the judge and priest, sacrificing the burnt offering to the Lord made an earnest intercessory prayer for the Israelites. God answered his prayer and routed the Philistines. Throughout Samuel's lifetime, the hand of the LORD was against the Philistines (1Sam 7:10, 11).

In this 21st century, we can clearly see the sign of the end of the age. This generation worships all kinds of idols in the form of materialism and all types of pleasures just like the time of Sodom and Gomorrah. There occur earthquakes and disasters. In particular, recently the earthquakes and Tsunami struck Japan which was believed to have been fully ready for all kinds of natural disasters. Therefore, despite the claim that they are fully reinforced by modern technology, Japanese people wander with the fear of nuclear meltdowns and continuous earthquakes. This is not just the problem of Japan. This is merely a beginning of birth pains. This is God's warning for all people in the world (Mt 11:24). In this situation what is our task as royal priests? Like Samuel, we must make an earnest intercessory prayer for the campus students in the world.

At the last Middle East directors' conference, I had a conversation with a young missionary. He said that he felt helpless as he and his wife could not do anything for the Muslim country he lived, which is of the biggest population in the Middle East. It is not possible to engage in Bible studies there. But through studying and writing a testimony on 1Samuel chapter 7, he learned that he could make an earnest intercessory prayer for the people every morning. God is at work through political changes in these nations as well as natural disasters. The gospel must first be preached to all nations, and then the end will come (Mt 24:14). The Lord says in 1 Corinthians 15:58 "Therefore, my dear brothers, stand firm. Let nothing move you. Always give yourselves fully to the work of the Lord, because you know that your labor in the Lord is not in vain." When one missionary in the Middle East continued to make earnest intercessory prayers for the Middle East people, God accepted his prayers and his labor in the Lord was not in vain.

God has used many Korean people as a royal priesthood for the last 50 years. The founder of UBF, Dr. Samuel C. Lee, encouraged all UBF leaders including college students to pray for South East Asia, Germany and to U.S.A. from the early years of UBF ministry. God blessed his obedience faith. God blessed our earnest intercessory prayers for all nations. By faith, Korea UBF chapters offered their best leaders for world mission purpose. From 1980 to 2004, UBF sent out 2,800 missionaries. God used these missionaries to pioneer and raise disciples in North America, Europe, CIS, South America, Australia, Africa, and Middle East. God used Korean brothers and sisters as royal priests. God still does. As we Korean brothers and sisters worked hard to be used by God as a royal priesthood for 50years, should we now stop doing this and retire? What does Jesus say? The Lord says in 1Peter 2:9. "But you are a chosen people, a royal priesthood, a holy nation, a people belonging to God, that you may declare the praises of him who called you out of darkness into his wonderful light." I pray that we may renew this sense of God's calling as a royal priesthood. May God strengthen us to faithfully fulfill our responsibility. I thank and praise the Lord who saved sinners who are weak to be strong, poor to be rich, dirty to be holy and most of all hopeless to be hopeful with the word and the Holy Spirit and appointed them a royal priesthood. May God fill us with heavenly joy as God's chosen people, a holy nation and royal priests. I praise the Lord that he has used Korea UBF as a kingdom of priests for the whole world.

## 주제 메시지

###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리라

말씀; 마태복음 24:1-35

요절; 마태복음 24:14, (30-31)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 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 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50 주년을 기념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를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이곳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모였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피와 하나님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새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의 왕으로 영접하고 경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캠퍼스에 복음을 전하라는 이 부르심을 더욱더 확실하게 하셨습니다. 그동안 전 세계 선교지에서 희생적으로 하나님을 섬겨 오신 여러분들과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할 수 있게 된 것은 제게 큰 특권입니다. 지난 50년 동안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미래를 바라보며, 우리가 해야 될 일보다는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일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지진과 기근, 일본을 강타한 쓰나미, 그리고 아프리카와 중동에서의 전쟁과 혁명을 통해서 당신이 자연과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다시금 깨우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깨우쳐주십니다.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재림은 확실합니다. 30-31절을 다 같이 읽읍시다. “그 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 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망에서 모으리라.”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무엇을 하고 계시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같이 14절을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꼭 지키십니다. 세계선교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입니다.

## 1. 예수님의 슬픔 - 예루살렘 멸망

마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겔손의 왕으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성전에 들어 가셨습니다. 그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장사하는 장사꾼들을 다 몰아 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우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임할 고난을 생각하며 우셨습니다. 다 함께 24:1-3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 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전을 떠나 감람산으로 올라 가셨습니다. 그들은 헤롯왕이 건설한 아름다운 성전을 바라보고 앉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전의 아름다움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물질주의적 부와 권력에 기초한 가치관을 드러냈습니다. 예수님은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23:37) 가슴 아파하며 속으로 울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는 말씀을 하실 때 그의 마음은 슬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예루살렘의 파괴는 예수님이 예언하신대로 이루어졌습니다. AD 70 년에 디도 장군이 이끄는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는 유대인들과 그들의 종교를 말살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성전에 불을 질러 성전은 완전히 소실되어 버렸습니다. 그는 닥치는 대로 유대인들을 다 잡아 죽였습니다. 도시의 거리들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마사다(Masada) 요새로 피신을 하여 최후 항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발각이 되었고, 그들은 학살되기 전에 집단으로 자살을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죽임을 당하거나 팔레스타인에서 축출 당했습니다. 도망한 자들은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은 2차 대전 이후 1948년에 이스라엘 국가가 설립되기까지 거의 2000년 동안 예루살렘을 재건하러 돌아오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도 다시는 성전을 재건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있던 산위에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지혜입니다. 성전은 더 이상 없습니다. 희생제물도 없습니다. 성전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파괴와 유대인들을 말살하려던 시도는 현대판 유대인 대학살과 유사한 사건입니다.

제자들에게 성전의 파괴는 세상의 종말과 동등했습니다. 사실 성전의 파괴는 세상의 끝과 예수님의 재림을 암시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사건들을 마음에 두고 계셨습니다.

## 2. 세상의 끝과 예수님의 재림.

제자들은 예수님께 세상의 끝에 관하여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주께서 언제 다시 오십니까? 그리고 리고 재림고 징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징조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경고로 시작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오직 징조만 찾는 사람들은 자주 미혹에 넘어갑니다.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거짓 메시아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진리에 관심이 없는 이 세상에는 거짓이 난무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이것을 활용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조심하며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겹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35).

세상의 종말이 올 때까지 큰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자연적 재해와 인위적 재해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관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산통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산통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엄마는 아기를 낳으면서 극심한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망으로 이어지는 고통이 아닙니다. 이 고통은 새로운 생명을 세상에 탄생시키는 고통입니다. 이 산통은 영광스러운 새 시대, 즉 부활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와 그 왕국의 도래를 알리는 고통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다 같이 30-31절을 읽겠습니다. “그 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 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해가 어두워질 것입니다.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권능들을 흔드시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그의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통곡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택하신 자들은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그의 영광스러운 왕국을 이루는 일에 동참하기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올 것입니다.

제자들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믿었습니다. 우리도 또한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증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행 1:11).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왕국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는 그의 택하신 자들과 함께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현 세대의 종말을 나타냅니다. 그의 재림은 새 하

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예루살렘은 무참하게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아름답게 단장한 것 같이 새롭고 영광스러운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전을 보았습니다(계 21:2) 부활 하신 그리스도의 왕국은 사랑과 기쁨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다음 질문은 ‘언제’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은 “아무도 그 때를 모른다. 그러므로 준비하라.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만약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알면, ‘나는 나중에 준비 할꺼야’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노아의 시대와 같습니다. 오직 노아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평소와 같이 먹고, 마시고, 파티하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었습니다. 육신의 일에만 열중하고 영적인 생활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노아도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달랐습니다. 그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만들었고 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을 때, 그는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는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다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준비해야 합니다. 노아처럼 우리도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의 말씀을 듣고, 준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밤에 도둑처럼 오실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시간에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 3.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시는 일과 장래 하실 일들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첫째, 하나님은 그 택하신 자들이 견고하게 서도록 돕고 계십니다. 12-13절을 보십시오. “불법이 성하므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둘째, 하나님은 지금도 그 택하신 자들을 통하여 그 사랑과 자비와 죄 사함을 세상에 전파하고 계십니다. 셋째, 그는 사방에서 그의 택하신 자들을 모으실 것입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

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30b-31)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예수님을 구주와 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창세로부터 그들을 위하여 예비 된 나라를 상속할 이들입니다(25:31-40).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25장에 나오는 ‘양’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굶주린 이들을 먹이고, 감옥에 갇힌 이들을 돌아보며, 병든 사람들을 돌봐주며, 옷 없는 이들에게 옷을 입히고, 사랑스럽지 않은 이들을 사랑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거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창세로부터 그들을 위하여 예비 된 나라를 상속받게 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 세상에는 사악이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핍박과 미움을 받고 심지어 죽음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실족할 것입니다. 믿음을 버리고 서로를 배반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최악의 때가 또한 최선의 때입니다. 절호의 찬스입니다. 미움을 사랑으로 도전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입니다.

Tass Saada는 PLO의 저격수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을 살해하고, 요르단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습니다. 그는 가자지구 난민 캠프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은 1948년에 세워졌습니다. 그때 많은 팔레스타인들은 집 없는 이민자들이 되었는데, Tass Saada의 가족도 그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는 과격한 이슬람과 난폭한 팔레스타인 민족주의의 세계에서 자랐습니다. 청소년이 되자 그의 마음은 증오로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특히 그는 유대인들을 증오했습니다. 그는 고향을 빼앗기고 갈 곳이 없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려고 했습니다. 누군가가 말하기를 영주권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국 사람과 결혼을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교 과격주의자로서 마음 깊은 곳에서는 미국인들을 미워했습니다. 어느 날 한 친구가 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자 그는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는 그에게 성경책을 내밀었습니다. Tass는 소리쳤습니다.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마. 그것은 하나님의 책이야!” 그때 그의 친구는 말했습니다. “너는 이것이 하나님의 책인



것을 믿니? 그러면 하나님의 책이 예수님에 관하여 무엇이라고 말하는 지를 들어봐!” 그는 요한 1:14를 읽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Tass는 성경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는 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는 이 말씀이 성경에서 나온 말씀인 줄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인격적으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지하드(Jihad)가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길이다”(Jihad is not the way; Jesus is the Way). 그는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내 삶 가운데 오시옵소서!” 그리고 그는 자신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이 난폭하고 과격한 회교도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살인자가 평화와 긍휼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번은 그가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인가?” “그래, 예수가 유대인이네.” Tass는 예수님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부인도 사랑해야 한다고 결심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강력하고 담대한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Hope for Ishmael’이라는 단체를 설립하고 아랍인과 유대인들 간의 화해에 헌신하였습니다. 그와 부인은 자신이 태어난 가자에 있는 난민 캠프로 이동하여 가난과 사랑에 굶주린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Tass Saada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 중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택하신 자들을 통하여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십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미움에 도전해야 하는 때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당신의 백성들의 마음을 정화하고 순수하게 하십니다. 깨진 꿈과 질병과 실패로 보이는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세계 선교 사명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택하신 자들을 통하여 모든 민족에게 그의 복음을 전파하고 계십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와 미리 아심을 따라 로마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전에는 하나 된 적이 없었던 세상을 로마의 법과 군인들, 도로들과 공통어가 하나로 통일시켰습니다. 바울과 사도들이 비자 없이도 어디든지 여행할 수 있었습니다. 복음은 전 로마 세계로 퍼져 나갔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로마의 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터넷, 위성 TV, 라디오, ‘페이스 북’, ‘트위터’, 그리고 ‘유튜브’의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현대의 통신망을 통하여 우리의 세상은 하나로 소통되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Google의 한 이사인 Wael Ghonim과 26세의 여성 Asmaa Mahfouz가 혁명을 불러 일으킨 페이스 북을 만들었습니다. Mubarak 정부는 무너졌습니다. 뉴스는 전 세계를 돌고 있습니다. 혁명은 또 다른 혁명을 일으킵니다. 회교도 과격주의자들은 우리 시대의 기회들을 이용하여 세상을 흔들고 권력의 진공상태를 뚫고 들어와 세상을 통치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리비아, 시리아, 예멘, 러시아와 세계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혁명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이야 말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될 수 있는 전례 없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HCJB 라디오 스테이션의 Wayne Pederson은 계속하여 ‘Prince of Peace’ 메시지를 리비아와 북아프리카에 전송하고 있고 사람들은 그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14). 예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의 오심은 우리의 영광스런 소망입니다.

#### 4.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어떻게 반응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사랑은 식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식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충만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나를 통하여 땅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증언 되도록 당신과 내 속에, 그리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식어가는 이 세상에 당신의 사랑을 나누고자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의 은혜만으로 우리는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죄 사함의 은혜를 받았을 때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 들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외모만제내고 그의 내적인 생활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의 중의 중입니다. 인

자가 재림하셨 하, 두 남자가 밭에서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같은 일을 하고 있을 것이나 그들의 마음은 다릅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있고 예수님이 그 심령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이 모르 니다.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다른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두 여인이 함께 매를 갈고 있습니다. 그들 사람스런 옷을 입고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그 마음이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다른 사람의 마음은 욕심과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40-41). 예수님X중는혈로 깨끗함을 받고 성령님의 다스리의 중받는 마음이야말로 왕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된 마음입니다. 우리 서로 용서합시다. 우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견고히 세워줍시다.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동안에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살전 5:8, 11).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왕 예수님을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살던 대로 계속 살면 됩니다. 45-51절에서 예수님은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주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에 관하여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들이 되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양들을 먹이고, 우리의 이기심을 극복하고, 모든 하나님의 가족들을 돌보도록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삶과 여러분의 삶이 만국에 증거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주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여하도록 초청하십니다. 마태

복음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가 하시는 일에 참여하도록 보내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예수님은 또 다른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끝까지 견딜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모든 족속에게 증거로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 **Main Message**

### **A TESTIMONY TO ALL NATIONS**

Matthew 24:1-35

Key Verse: 24:14, (30-31)

“And this gospel of the kingdom will be preached in the whole world as a testimony to all nations and then the end will come.”

“At that time, the sign of the Son of Man will appear in the sky, and all the nations of the earth will mourn. They will see the Son of Man coming on the clouds of the sky, with power and great glory. He will send his angels with a loud trumpet call, and they will gather his elect from the four winds, from one end of the heavens to the other.”

As we celebrate our 50<sup>th</sup> anniversary, we give thanks to God. We are here to praise God for his gracious work in and among us. We are here to worship him. We are here to pray for one another and encourage one another. Through the blood of Jesus and by God's grace alone we have forgiveness of sin. Through his resurrection, we have life and hope in the kingdom of God. We are ready to welcome and worship our King when he comes. God has made our calling, to take the gospel to the campuses of the world, a sure calling. It is a privilege for me to be here among you who have served God sacrificially in the mission fields of the world. We thank him for his presence with us during the past 50 years. As we look toward the future, we want to think, not about what we must do, but about what God is doing.

Through earthquakes, famines, a tsunami that devastated Japan, through wars and revolutions in Africa and the Middle East, God has reminded us that he is in control of

nature and history. He reminds us that Jesus is coming again. We don't know when. But his coming is sure. Let's read verses 30-31. "At that time, the sign of the Son of Man will appear in the sky, and all the nations of the earth will mourn. They will see the Son of Man coming on the clouds of the sky, with power and great glory. He will send his angels with a loud trumpet call, and they will gather his elect from the four winds, from one end of the heavens to the other."

What is God doing in these end times, and what can be our response? Let's read Mt 24:14. "And this gospel of the kingdom will be preached in the whole world as a testimony to all nations and then the end will come." This is God's promise. God keeps his promises. There is no failure in world mission. The gospel of the kingdom will be preached in the whole world.

### **1. Jesus' sorrow –Jerusalem destroyed**

In Matthew 21, Jesus entered Jerusalem as a humble king, riding a donkey. He went first to the temple. He cleansed it. He drove out all those who were doing worldly business there. He rebuked the Pharisees for their hypocrisy. He wept over Jerusalem because it rejected God's love and blessing. He wept because of the suffering that would come to Jerusalem. Let's read Mt 24:1-3. Jesus and his disciples walked away from the temple and climbed up the Mount of Olives. They sat down, overlooking the beautiful temple which King Herod had built. Jesus' disciples were moved as they looked at the beautiful buildings. The disciples revealed a value system focused on wealth and power, on material things. Jesus was still weeping in his heart because of God's people who rejected God's love(23:37). His heart was full of sorrow when he responded, "I tell you the truth. This temple will be demolished. Not one stone will be left standing on another. Every stone will be thrown down."

The destruction of Jerusalem happened just as Jesus prophesied: In 70 AD a Roman

army under General Titus entered Jerusalem. He was bent on destroying the Jews and their religion. Someone set fire to the temple and it burned to the ground. He killed all the Jews he could find. The streets of the city ran with blood. A few people sought refuge in the Masada fortress, but they were discovered and before they could be massacred, they committed mass suicide. The Jewish people were killed or driven out of Palestine. Those who escaped scattered throughout the world. Jews would not return to reclaim Jerusalem for nearly 2000 years—until after WWII in 1948, when the State of Israel was established. When they began to return, they could not rebuild the temple, because a Mosque was sitting on the temple mount. This was God’s sovereign wisdom. There is still no temple; no animal sacrifices. There is no need for the temple, for Jesus is the temple; he is the perfect sacrifice. The destruction of Jerusalem and the attempted annihilation of the Jews is an event comparable to the holocaust of modern times.

To the disciples, the destruction of the temple was tantamount to the end of the world. Indeed, the destruction of the temple foreshadowed the end of the age and Jesus’ second coming. Jesus had these two events in his heart.

## **2. The end of the age and Jesus’ second coming**

The disciples asked Jesus two questions about the end of the age: When will you come again? And, what will be the sign of your coming?

Jesus begins his answer to the question about signs with a warning: “Do not be deceived.” People who only look for signs are frequently deceived. Watch out that no one deceives you—false Messiah’s will come. In a world that does not care about truth, lies prevail. False Messiahs take advantage of this. God’s people must watch out and not be deceived. God’s word is truth. We must be equipped with the sword of the Spirit, the word of God. Jesus said, “Heaven and earth will pass away, but my words will never pass away”(35).

In the time leading up to the end there will be great suffering. There will be natural disasters and man-made disasters. Jesus says, “Don’t be alarmed, the end has not come. It is the beginning of birth pains.” We should not give in to fear. God is in control. He tells us that this is the beginning of birth pains. What does he mean by ‘birth pains’? A woman giving birth to a baby suffers excruciating pain. But it is not pain and suffering that leads to death; it is pain that results in a new life coming into the world. The birth pains herald a new and glorious age, the coming of the Risen Christ, King Jesus, and his kingdom.

What then is the sign of his coming? Read verses 30-31. “At that time, the sign of the Son of Man will appear in the sky, and all the nations of the earth will mourn. They will see the Son of Man coming on the clouds of the sky, with power and great glory. He will send his angels with a loud trumpet call, and they will gather his elect from the four winds, from one end of the heavens to the other.” The sun will be darkened. The moon will not give its light. God will shake the heavens and the stars will fall from the sky. Jesus’ coming is a cosmic event. His elect are those who have accepted the gospel of his kingdom. The mourners are those who have not. The elect will come with the Risen Christ to join him in establishing his glorious kingdom on earth as it is in heaven.

The disciples did not fully understand, but they believed. We also do not understand everything, but we believe that Jesus is coming again. It was promised to the first witnesses that Jesus who was taken into heaven would come back in the same way they saw him leave (Ac 1:11). The Risen Christ will come, bringing God’s kingdom to earth. He will come with his elect. His coming marks the end of this present age. His coming ushers in a new heaven and a new earth. Jerusalem had been cruelly destroyed. But the Apostle John had a vision of a new and glorious Jerusalem coming down from God out of heaven as a bride beautifully dressed for her husband (Rev 21:1-2). The kingdom of the Risen Christ will be full of love and joy.



The next question is, ‘When?’ –What is the time of his coming? Jesus’ answer is, “No one knows when; Be ready; keep watch.” “No one knows about that day or hour, not even the angels in heaven, or the Son, but only the Father”(36). If we knew the time of Jesus’ coming, we could think, “I’ll get ready later.” People were like this in the days of Noah(24:37-39). Only Noah was ready. The rest of the people went about business as usual eating, drinking, partying, getting married and lived on their flesh lives and not on their spiritual lives. Noah also lived an ordinary life, but he was different. He was ready. He made time to walk with God day after day. He believed that God meant what he said. So, when God told him to build a boat, he built it. He believed and obeyed God’s word. He was saved, but everyone else was not. In the same way, we should be ready. Like Noah, we should walk with God in prayer, listen to his word and be ready. Jesus will come like a thief in the night. He will come at a time when we do not expect him. Therefore, we should keep watch.

### **3. What is God doing in these times and what will he do?**

What is God doing? First, He is working to help his elect stand firm. Look at verses 12-13. “Because of the increase of wickedness, the love of most will grow cold, but he who stands firm to the end will be saved.” Second, He is working now through his elect to bring his love and mercy and forgiveness to the world. Third, He will gather his elect from everywhere. “When the Son of Man comes with power and glory he will send his angels with a loud trumpet call and they will gather his elect from the four winds, from one end of the heavens to the other.” Who, then are the elect?

God’s elect are those who have accepted Jesus as Savior and Lord. They are those who inherit the kingdom prepared for them from the Creation(25:31-40). The elect love God because God first loved them. They are the ‘sheep’ in Chapter 25 who care for the vulnerable people of society—they feed the hungry, visit the prisoners, minister to the sick,

clothe the naked, love the unlovable. They don't even realize that they are serving God and spreading the gospel of his kingdom. They inherit the kingdom prepared for them from the creation. But, on the other hand, wickedness will increase. God's people will be persecuted, hated, put to death. Some will fail. They will turn from the faith and betray each other. Most men's love will grow cold. But these, the worst of times, are also the best of times. It is the time of opportunity. It is the time for love to challenge hate, the time to make God's saving grace known.

Tass Saada was a PLO sniper. He murdered Jews in Israel; he killed Christians in Jordan. He was born in a refugee camp in Gaza. When the Jewish state was formed in 1948, many Palestinians became homeless immigrants, Tass Saada's family included. He was raised in a world of radical Islam and violent Palestinian nationalism. By his teenage years he was a cauldron of hatred. Especially, he hated Jews. He had no homeland, so he wanted to immigrate to America. Someone told him that the best way to get a green card was to marry an American. So he did. But in his heart, he was a jihadist and he hated America. One day a friend tried to evangelize him and he got mad. Then his friend offered him a Bible. He shouted, "Don't get near me—that's God's book." So his friend said, 'You believe this is God's book? Then listen to what God's Book says about Jesus.' And he read John 1:14—"the Word became flesh and made his dwelling among us. It hit Tass that the Bible teaches plainly that Jesus is God and he trembled. He heard a voice,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He didn't know that these words were from the Bible. Jesus was speaking to him personally. Jihad is not the way; Jesus is the Way. He prayed, "Jesus, come into my life." He repented of his sins. And this violent radical Muslim was transformed by the power of the Word of God and the Holy Spirit. The killer became a man of peace and compassion. Once he called his friend. "Was Jesus a Jew?" "Yes, Jesus was a Jew." So Tass Saada could love Jews. He could love his wife. He became a powerful and bold preacher of the gospel of the kingdom. He founded an organization called "Hope for Ishmael" dedicated to reconciling Arabs and Jews. He and his wife moved to a refugee camp in Gaza, where he was born, to share Jesus' love with

poverty-stricken children there. Tass Saada is one of God's elect. God is working through his elect to bring his gospel to the world. This is the time to challenge hatred with God's love. In these times God refines and purifies the hearts of his people through suffering. Through broken dreams, sickness, seeming failure God purifies our hearts. God's mission to the world will not fail.

God is spreading his gospel to all nations through his elect. Look at verse 14. "And this gospel of the kingdom will be preached in the whole world as a testimony to all nations, and then the end will come." God's Son, the Christ, was born into a Roman world, according to God's set time and foreknowledge. Roman laws, Roman soldiers, Roman roads and a common language unified the world in a way that it had never been unified before. Paul and the apostles could travel anywhere without visas. The gospel was spread to the whole Roman world.

We have 'Roman roads' in our time, too. We live in the world of the internet, satellite T.V. and radio; in the world of facebook and Twitter and Youtube. Through these modern roads of communication, our world has become one community. In Egypt, Wael Ghonim, a Google executive and Asmaa Mahfouz, a 26 year-old woman, made facebook entries that sparked a revolution. Mubarak's government fell. News travels. Revolution sparks revolution. The Muslim Radicals want to use the opportunities of our times to destabilize the world so that they can step into a power vacuum and rule. We don't know which way the revolutions happening in Libya, Syria, Yemen, Russia and other parts of the world are going. But this is a time of unprecedented opportunity for the gospel of the kingdom to be preached in the whole world. Wayne Pederson of Radio station HCJB continues to beam the message of the Prince of Peace into Libya and North Africa, and people are listening. Jesus promised that "the gospel of the kingdom will be preached in the whole world as a testimony to all nations and then the end will come"(14). Jesus keeps his promise. His coming is our glorious hope.

#### **4. How can we respond to what God is doing?**

We can love God and love one another. Even though people's love grows cold, God's love does not grow cold. God is merciful and compassionate. God is love. He is working in and through you and me to bring the gospel of the kingdom to the ends of the earth. He is working in us to share his love in a world and love has grown cold. By his grace alone, we can stand firm to the end. Let us put our trust in Jesus and give him our hearts.

We can love God and love one another. When we accepted God's grace of forgiveness, we welcomed Jesus into our hearts. It is no longer I who live. It is Christ who lives in me. We cannot tell about a person's inner life from his outward appearance. But God looks at the heart. When the Son of Man comes, two men will be working together in a field. They are doing the same thing. But their hearts are different. One knows God; Jesus is in his heart. God's Spirit rules him. God does not know the other one. One will be taken; the other will be left. Two women will be working together, grinding grain with a hand mill. They are dressed alike and they are doing the same thing. But one has a heart that is ruled by Jesus and the other's heart is full of greed and lust. One will be taken; the other left(40-41). The heart cleansed by Jesus' blood and ruled by the Holy Spirit is a heart that is ready to meet King Jesus. Let us forgive one another. Let us love one another and build up one another.

Paul says, "As we wait for Jesus to come again, '(Let us) put on faith and love as a breastplate and the hope of salvation as a helmet..let us encourage one another and build up each other, just as in fact you are doing...'"(I Th 5:8, 11). Jesus' blood has cleansed us. We are ready to welcome King Jesus. "He died for us so that we may live together with him."

We can be faithful and wise servants. We should keep on living the life God called us

to live. In verses 45-51, Jesus talks about the faithful and wise servant whom the master has put in charge of the servants in his household to feed them. He says, "It will be good for that servant whose master finds him doing so when he returns." As we wait for the coming of our King Jesus, the indwelling Jesus helps us to be faithful and wise servants. He helps each of us to feed God's sheep, overcome our selfishness, to be mindful of all of God's family. He enables my life and your life to be a testimony to the nations.

We can participate in his work of making disciples of all nations. He promises that this gospel of the kingdom will be preached in the whole world as a testimony to all nations. This is what God is doing. He invites us to participate. In the last verses of Matthew's gospel, he sends his disciples forth to share in what he is doing.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He gives us another promise: And surely I am with you always to the very end of the age. We are in Christ and he is in us. We can stand firm. May God use our lives as a testimony to the nations.

"And this gospel of the kingdom will be preached in the whole world as a testimony to all nations and then the end will come."

# 제 1장 서론

## 1. 정신 · 사역 · 비전

‘정신’(精神, spirit)이란 근본적인 의의나 목적, 이념이나 사상을 뜻하는 말입니다. ‘정신’은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구체적인 물건이 아니라 사람들 속에서 이루어지는 작용이며 힘입니다.

‘사역’(ministry)이란 정신이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형태로 나타난 것입니다. 즉 사역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정신의 구체적 표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비전’(vision)이란 오늘의 현실에 근거하여 내다보이는 장래의 방향이나 상황을 말합니다.

따라서 정신과 사역, 그리고 비전은 서로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정신을 무시한 사역이 있을 수 없고, 사역이 없는 정신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사역 속에 정신이 있고 정신위에 사역이 존재합니다. 정신이 사역을 형성하기도하고 때로는 사역이 정신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 정신과 사역을 돌아보고 반성함으로써 좀 더 바르고 나은 적실한 방향을 찾는 것이 비전입니다.

우리가 지난 50년 동안 UBF의 사역 속에 흐르는 정신이 무엇인지 밝히는 일은 매우 가치가 있습니다. UBF의 정신과 사역을 살핍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의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UBF 조상들과 선배들의 공헌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누구이며,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에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에 무엇을 보완하고 발전 시켜야 하는지도 드러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은 다음 50년에 대한 준비 및 비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신과 사역을 살피고자 할 때 UBF 설립자이신 이사무엘 선교사 한 분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UBF의 정신과 사역은 이사무엘 선교사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신과 사역이 한 사람과 깊이 관련이 있다는 것은 교회사를 통해서 증명됩니다. 독일의 경건주의에는 스페너((Spener, P. J.), 미국의 제 1차 대 각성운동에는 조나단 에드워즈(Jonathan Edwards), 그리고 1907년 한국의 평양 대 부흥운동에는

길선주 목사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UBF의 정신과 사역은 이사무엘 선교사로부터 시작되어 초기 조상들을 거쳐 현재에 이릅니다. 그 정신과 사역이 현재 우리 공동체의 핵심입니다.

UBF의 정신을 한 마디로 말한다면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사역은 성경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정신에 기초해서 행해진 것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첫째, ‘성경 중심의 정신’, 둘째, ‘대학생제자양성’: 대학생 제자양성의 정신, 제자 양성 및 가정교회, 일대일 성경공부, 일용할 양식, 소감이 지닌 신앙적 의미, 셋째, ‘세계선교와 자비량’: 자비량 선교의 정신, 전문인 자비량 선교역사, 넷째, 공동체 정신: 주는 정신, 구유 정신, 공동체 정신, 사회봉사, 다섯째, ‘개척정신과 자립정신’,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한선교와 통일준비’로 정리했습니다.

이 발표를 통하여 신앙의 선배들이 물려준 아름답고 빛나는 영적 유산을 살펴보고, ‘오늘 우리는 누구이며,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비전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 **I. Introduction**

## **1. Spirit · Ministry · Vision**

The word "spirit" refers to a fundamental concept, philosophy or idea. A "spirit" is not a concrete object but a reaction; a strength that occurs within and among people.

Ministry is spirit in visible form. Thus, it could be said that ministry is the visible manifestation of an invisible spirit.

A "vision" is a future circumstances foreseen, but based on reality. Thus, spirit, ministry and vision cannot be viewed separately from each other. There cannot be a ministry without a spirit, and a ministry's spirit cannot exist without a ministry. Spirit is found in ministry, and ministry exists based on a spirit. A ministry can be shaped by its spirit, and at times, ministry may create its own spirit. Here, vision is the search for a better future, based on the self-examination and reflection of a ministry and its spirit.

It is of considerable worth reflecting on what the spirit of UBF ministry has been for the past 50 years. By doing so, we can know better the meaning and value of our work. We can learn of the contributions of our UBF ancestors and predecessors. We can rediscover our own identities through the question, "Who we are and what we are doing." We can also learn which parts of that identity we can supplement and further develop. Moreover, this is our vision and preparation for the next 50 years of UBF.

We cannot reflect on our spirit and ministries without reflecting on Dr. Samuel Lee, the founder of UBF. This is because the spirit and ministry of UBF is closely connected to Lee. The close connection of a spirit and ministry with one person is evidenced in church history: Philipp Jakob Spener, the founder of pietism; Jonathan Edwards, leader of the First Great Awakening; Pastor Kil, Sun-Ju who led the great revival in Pyeongyang in 1907. The UBF spirit and ministry began with Samuel Lee and continues today. This spirit and ministry is the heart of UBF.



The spirit of UBF is, in short, "Living according to God's word". Our ministries have grown based on this spirit. We have organized this according into six parts: Firstly, A Biblically Based Spirit, Secondly, Campus Ministry for Discipleship, The Spirit of Campus Ministry, Discipleship and the House church, One-to-one Bible Study, Daily Bread, The Purpose and Principles of Sogam. Thirdly, World Mission through Tent-makers: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of Tent-makers, Statues and Prospects of Professional Mission. Fourthly, The Power and Influence of a Believing Community': A Spirit of Sacrifice, Humility for Christ's Kingdom, Community United for Service in Love, Social Responsibility in Action. Fifthly, Pioneering and Independence, and finally, To the Ends of the earth; North Korea Mission and Beyond.

Through this presentation, we wish to reflect on the beautiful and incredible legacy we have been handed down. May we be filled with a vision of who we are and, henceforth, what we are called to do.

## 2. 성경 중심의 정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요한 8:31-32).

1961년 UBF 태동기의 명칭은 ‘대학생 성경 연구회’였습니다. 그 후 성경은 ‘연구’보다도 늘 읽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대학생 성경읽기회’로 바뀌었습니다. 1976년 우리 가운데 나눔의 아픔의 일어났는데, 이사무엘 선교사는 이를 계기로 성경 말씀에 더욱 순종하기 위해서 미국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그때 우리 모임의 정체성을 다시 생각하는 가운데 ‘대학생 성경읽기 선교회’라는 지금의 명칭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모임의 명칭이 몇 차례 바뀌기는 했지만, 그 명칭에서 ‘성경’이라는 말이 빠진 적은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모임은 성경을 우리의 중심 사상으로 삼는 모임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요한 8:31-32).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요한 7:17).

우리는 성경을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기 위해 훈련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활동의 목적과 중심에는 성경이 있고, 성경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방향을 잡고자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역 중 가장 중요한 사역인 대학생 제자 양성도 마태복음 28:19-20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또 세계선교를 우리의 목표로 삼은 것도 마가복음 16:15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을 비롯해서 복음서 공부 끝날 때나 사도행전 공부를 시작할 때나 ‘양을 치며 온 세계에 말씀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즉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이다니엘 목자는 40주년을 맞아 발표한 ‘UBF 개척조상들의 믿음과 사상’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무슨 어려운 일을 만나든지, 또는 어떤 벽

찬 일을 감당해야 하든지, 우리는 늘 그 일을 말씀에 비추어보고, 말씀으로 방향을 잡고, 말씀에서 지혜와 힘을 얻곤 했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말씀에 기초해서 생각하고, 말씀에 기초해서 말하고, 말씀에 기초해서 행하고자 애썼습니다.”

### 1) 성경 중심의 정신이 짙은 배경

대한민국에서는 1960년 ‘4.19 학생혁명’이 있었고, 그 이듬해에는 ‘5.16 군사혁명’이 있었습니다. 대학생들은 군사정권의 등장과 함께 민주화에 대한 희망을 잃었습니다. 당시 한국교회는 민족의 분열과 무수한 실패의 출현으로 힘겨웠습니다. 한국교회는 대학생들에게 내일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때에 이사무엘 선교사는 복음으로 대학생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했고, 성경 말씀으로 영적인 지도자를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 길이 어둡고 절망적인 시대의 유일한 대안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사무엘 선교사 자신이 성경을 사랑했고,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투쟁했던 그의 삶은 젊은 대학생들에게 강렬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양들의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하고자 말씀에 매달렸습니다.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읽었는지 그의 성경책은 대부분 숨처럼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는 1964년부터 4년 동안 성경을 의미 단위로 문단을 나누는 공부를 했고, 그 후 3년은 이를 기초로 ‘일용할 양식’ 책을 집필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기도시간에 조금씩 공부하여, 3년에 걸쳐 성경 66권을 전부 공부할 수 있도록 집필했습니다. 그의 동역자 이그레이스 선교사는 그 때를 이렇게 회고합니다. “마치 산통을 겪는 산모와 같이 매일 매순간마다 온 마음과 힘을 드려서 원고를 쓰셨습니다. 아침식사 후부터 오후 1시 점심시간 전까지 성경연구에 집중하셨습니다. 아무도 방문 출입을 금했지만, 커피를 드시고 싶을 때는 찬송을 부르셨는데 그때 시간을 맞추어 커피를 드렸습니다.” 그는 말씀의 샘을 파서 양들을 살리는 기쁨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후배 목자들도 성경의 전문가가 되도록 도왔습니다.

우리의 성경공부를 돕는 데 있어서 배사라(Sarah Barrey) 선교사는 참으로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녀는 1955년 한국에 선교사로 와서 이사무엘 선교사를 만남으로써 대학생 제자 양성 역사에 동참했습니다. 그녀는 우리 모임에 ‘귀납적 성경공부 방법’을 소개했고, 그것이 지금까지 내려온 우리의 성경공부 방법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도움으로 ‘관찰’, ‘해석’, ‘적용’의 순서에 따라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었습니다.

## 2) UBF의 성경 중심의 사상이 기여한 점

### (1) 성경 본문을 중심으로 한 설교

1960년대 한국 사회의 구호는 “우리도 한 번 잘 살아 보세!”였습니다. 당시 한국 교회도 이러한 성장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그 영향으로 구약성경은 대부분 한국 특유의 기복신앙의 관점에서 해석되었습니다. 또 많은 설교들이 제목만 성경에서 나오고 내용은 본문과 상관이 없었습니다. 많은 설교들은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기보다 도덕과 윤리만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모습에 문제의식을 가졌던 이사무엘 선교사는 철저하게 성경 본문을 연구했고, 그것을 기초로 한 본문 중심의 설교를 했습니다. 성경 본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했습니다. 또 기복주의적인 시대 분위기에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사명인의 삶을 살도록 도전했습니다.

... 인간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맡아 관리하는 일은 축복입니다(창 1:28). 그것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신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서 관리해야 할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사명, 사명=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 다윗의 위대성이 그의 재능이나 왕권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가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섬긴 데 있습니다.(창세기 메시지 중에서)

그때 우리의 예배는 일반 교회의 예배와 겹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후 3시에 드렸습니다. 그 시간은 한창 나쁜 오후입니다. 그러나 대학생들은 이사무엘 선교사의 본문 중심의 설교를 듣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우리는 한국 교회가 본문 중심의 설교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기 15년 전부터 본문 중심의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의 성경공부는 한국 교회에 일정한 기여를 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 (2) 성경 선생 양성

본문 중심의 설교와 귀납적 성경공부는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했고, 성경에 기초한 인생관을 갖게 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기초가 있었기 때문에 성경학교나 수양회 때에는 학생들과 학사들을 강사로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들을 세울 때 말씀을 인격적으로 받아서 마음 깊이 회개하고 인생을 걸고 결단하도록 도왔습니다.

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같은 문제와 고민을 안고 있는 참석자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결단과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1967년 서울에서 가진 전국 수양회에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때 학생들은 지정된 구약 본문 중에서 한 개를 택해 해석학적으로 연구하고 발표했습니다. 또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문제를 주제로 정하고 이에 대해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연구하고 발표했습니다. 이 수양회의 의미를 배사라 선교사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 수양회가 기여한 가장 의미 있는 공헌은 학생들과 젊은 전임 목자들이 강의를 했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가르치는 사람에게 학위가 있어야 인정받고, 모호하고 이해하기 어려워야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며, 학생들은 수동적인 태도로 앉아서 주어지는 지식을 아무 생각 없이 수용해야 하는 교육 체계 속에서, 주강사가 학생들이요, 학생들이 창조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 학생들은 자립적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전하는 ‘성경 선생’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캠퍼스에 나가 성경공부반을 인도하고 일대일 성경공부를 인도했을 때, 많은 성경공부반들이 들불처럼 일어났습니다. 이를 통해 대학생 제자양성 역사가 힘 있게 일어날 수 있었고, 이들 가운데서 1,700명의 자비량 선교사가 파송되고 전임목자들이 세워졌습니다. 이들은 세계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성경을 가르쳐 전도하며 제자들을 양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기초로 구원을 얻고 인생관을 확립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 (3) 전임 목자 성경연구와 교재연구팀

이사무엘 선교사는 개척 초기부터 ‘전임’(풀타임 스텝, Full time staff) 목자들이 주석책 베끼기 식의 성경공부보다 자립적으로 공부하도록 도왔습니다. 무엇보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는 안목을 갖도록 도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공부가 시작되면 먼저 그 개관을 연구하여 발표하게 했습니다. 그것도 다른 책에서 베낀 것보다 본인이 스스로 연구한 것을 발표하게 했고,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발표를 모두 들었습니다. 사도행전을 공부할 때에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설교들을 모두 연구하여 발표하도록 했습니다. 이사무엘 선교사는 전임목자들과 함께 말씀을 연구했습니다. 이 모임은 시간이 많이 들었고 긴장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재미가 있었고, 늘 말씀의 은혜로 충만했습니다. 전임목자들은 그러한 성경연구를 통해서 역사의 방향을 잡고 지

해를 얻었으며, 말씀에 기초해서 역사를 섬길 수 있었습니다.

1977년 이사무엘 선교사를 시카고로 파송된 후 양마가, 이바울, 김다윗, 이다니엘 목자들로 교재팀이 구성되었습니다. 그들은 매주 수요일마다 모여서 성경을 연구하고 문제지를 만들었으며, 이를 기초로 전임목자들의 성경공부를 인도했습니다. 이 사역은 후배들에게 계승되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 3) 발전적 방향

우리 모임은 성경을 공부하고 이에 순종하고자 목적으로 출발했고, 본문 중심의 설교와 귀납적 성경공부로 흥왕한 말씀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50년이 지나면서 현재 상태에 만족해서는 안 되고 앞으로의 50년을 바라보면서 더욱 발전해야 할 방향을 찾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사무엘 선교사는 늘 어려움에 부딪치면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보다 높아진 것들을 내려놓고 성경 자체로 돌아가야 합니다.

#### (1) 성경 말씀을 순수하게 공부해야 합니다.

우리도 일반교회들처럼 성장을 최우선의 과제로 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즉 성경을 공부하면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하면 역사를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어떤 본문을 공부하든지 대답이나 해석은 굳어졌고, 적용은 역사 성장으로만 모아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말씀을 순수하게 공부하는 자세를 회복해야 합니다. 역사의 부흥과 성장도 물론 중요하지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공부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구도자적인 자세를 갖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말씀공부를 통하여 우리 각자의 신앙과 인격이 성숙해지고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 힘써야 합니다.

‘성경 중심’,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말은 성경 전체의 흐름으로 돌아간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다양성이 있지만 동시에 통일성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의 흐름과 성경 전체의 숲을 볼 수 있는 교재가 개발되어야 합니다. 성경공부 교재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사명과 성장에 맞춰 대답을 유도하는 문제를 지양하고, 성경의 진리와 예수님의 인격을 깊이 공부하는 문제를 내는 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양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만 하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가 약화된 점을

깊이 인정하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2) 성경 교재 연구팀을 강화해야 합니다.**

UBF의 핵심 사역은 성경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UBF의 핵심부서도 교재팀이어야 합니다. 교재팀은 책임감을 갖고 말씀을 연구하고 증언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그때그때 필요한 말씀을 공부하기보다 중장기 계획을 세워 말씀 연구에 힘써야 합니다. 본부 대표는 교재팀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 말씀으로 방향을 잡고 모임을 인도해야 합니다.

**(3) 전임 목자들을 위한 메시지 연구소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사무엘 선교사가 우리에게 유산으로 남겨 준 본문 중심의 설교를 더욱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 계승사역은 말씀을 연구하고, 그 연구를 근거로 하여 설교에 접목시키는 작업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일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메시지 연구소’를 설립하여 이를 UBF의 핵심 사역으로 키워야 합니다. 메시지를 연구하여 적실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전문가들을 키워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의 전통적인 성경공부 방법이 ‘귀납적 성경공부’를 더욱 연구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해야 할 것입니다.

## **2. A Biblically Based Spirit**

“To the Jews who had believed in him, Jesus said to them, If you hold to my teaching, you are really my disciples. Then you will know the truth, and the truth will set you free”(Jn 8:31-32).

In 1961, UBF in its beginning stage was called University Bible Research Group. Afterwards, it was believed that reading and obeying the word of God was more important than researching or studying it, and the name changed to University Bible Fellowship. In **1976, as a result of the dissension, Samuel Lee decided to go to the United States as a missionary.** New reflection led to another revision of the name to University Bible Reading Mission Group in Korean.

Although our name has undergone a few changes, the word "Bible" has never been dropped. The Bible has continued to remain central to our thought and spirit. Jesus says in John 8:31-32, “If you hold to my teaching, you are really my disciples. Then you will know the truth, and the truth will set you free.” In John 7:17, Jesus says, “If anyone chooses to do God's will, he will find out whether my teaching comes from God or whether I speak on my own.”

We believe in the Bible as the absolute and infallible word of God and so obey it. The Bible is at the center of our every work and purpose. We do our best to interpret everything according to the Bible, and to make our decisions based on it. Among our many ministries, the most important ministry, our disciple-making ministry is our obedience to Matthew 28:19-20, “Therefore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baptizing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Spirit, and teaching them to obey everything I have commanded you.” Additionally, the reason why world missions is so important it is because this is based on Jesus' word for us to feed sheep and spread the gospel to the whole world, based on Mark 16:15, “He said to them, 'Go into all the world and preach the good news to all creation.'” Our purpose is to obey God's word.



In the 40th Anniversary message by Sh. Daniel Rhee, titled, “The Faith and Philosophy of UBF Predecessors,” he says, “Whatever difficulty and impossibility our predecessors faced, they tried to see all thing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Bible, to make decisions based on the Bible, and sought wisdom and strength in the Bible. The Bible was the basis of all of their considerations, their speech, and their actions.”

### **1) The Beginnings of a Biblically Based Spirit**

The year of 1960 in Korea saw an uprising, the 4.19 Student Revolution. The following year, there was the 5.16 Coup D'etat. Because of the military regime, university students lost hope in democratization of the country. At this time, the Korean church also lost the ability to give hope and vision to students. It was during this period that Dr. Samuel Lee sought to give them hope through God's word, and to raise spiritual leaders through the word of God. He believed this to be the only solution in the darkness and hopelessness of that time.

Above all else, Lee's own love of the word of God, and struggle to obey God's word throughout his life was itself a powerful influence for young students. He held onto the word of God to help students' problems. He read the Bible so much that the pages of his Bible were wrinkled. For four years, beginning in 1964, he studied the Bible analyzing the meaning of words by breaking down paragraphs, and during the following three years, he completed the first Daily Bread book. He studied every day during his morning prayer time, and in the course of three years, studied, and created study notes for all 66 books of the Bible.

His wife, M. Grace A. Lee, says of that time, “Like a woman in labor, he poured all of his heart and strength, every moment of the day, for the writing of these texts. After his breakfast until 1pm every day, he concentrated on studying the Bible. Nobody was allowed to disturb him during these hours, but sometimes he would sing hymns when he wanted coffee. I would wait and bring him coffee at these times.” Lee lived with the joy of seeing students being saved through study of the word of God. And he helped and

encouraged all shepherds to do the same, to become Bible experts.

In helping our Bible studies, M. Sarah Barry played a crucial role. She came to Korea in 1955 and met Lee when he was a college student, and disciplined him. She taught us the inductive method in studying the Bible, and this approach still continues today. According to the observation,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she taught, we have been able to study the Bible comprehensively to this day.

## **2) The Effects of a Biblically Based Spirit**

### **(1) Biblical Messages**

A slogan in 1960 Korea was "Let's live a rich life!"(Jal sara-bosae). Most Korean churches at this time were also influenced by this ideology. Most of the interpretation of the Old Testament was turned into prosperity gospels. Many sermons appropriated titles from the Bible, but in content, had nothing to do with God's word. Instead of preaching the gospel, they merely emphasized morality and ethics. In light of these problems, Lee thoroughly studied the Bible and wrote messages based on the Scripture. Through various passages, he taught about Jesus Christ and the Kingdom of God. In a religious climate favoring prosperity, he challenged believers to live sacrificial lives for God.

"Stewarding the world created by God is a blessing (Gen 1:28). It is also a mission God has entrusted to us. Ever since we were born, we all received different missions from God. We could say that "Man is mission and mission is man," ... "King David's greatness was not in his talents or kingship but in his living according to the will of God" (from Lee's Genesis message).

At that time, we held our worship services at 3pm so that it would not conflict with other worship services. This time was the most relaxed time of the day. But college students gathered in the middle of the day to hear Lee's messages.

UBF began writing Biblical, Scripture-centered messages 15 years before most Korean churches began doing so. In this way, we are proud of how UBF has undeniably made a

contribution to the Korean church.

## **(2) Raising Bible Teachers**

Biblical messages and inductive Bible studies taught us to know Jesus personally, and taught us a Biblical viewpoint and worldview. Because of this, undergraduate and graduate students could serve as messengers at Bible schools and conferences. They were trained to receive the word of God deeply and personally, to deeply repent and to realize their commitment, to serve Biblical messages. Their relatable messages deeply stirred and moved their audiences, and inspired decisions of faith and personal transformations.

In the historical National Conference in 1967, there was a special program. Students were asked to choose from selected Old Testament passages, and to present a scholarly researched analysis of the passage during the program. Others were asked to research and present on a topic of national concern for the Korean people, discussing the topic from a Christian viewpoint. M. Sarah Barry said about this conference:

"The greatest contribution made through this conference is that lectures were given by students and young shepherds. People think that a person needs a diploma to teach, and that a lecture derives its authority from being obscure and complicated. In a system of education where students are passively educated, it is immensely important that the main lecturers here were students, and that they creatively and actively participated."

Through these various means, students could study, teach, and share the Bible independently, and grow into Bible Teachers. When they led Bible study groups on campus and taught one-to-one Bible studies, the Bible study groups spread like wildfire. Through this, campus disciple-making could powerfully increase, and among them, 1,700 tent-maker missionaries were sent out and full-time shepherds were reared. Furthermore, they could teach and preach the word of God, and raise disciples, wherever they could meet, to whomever they could meet. This was only possible because from the very start, they studied the word of God, and found salvation based on the word of God, and developed and found increase, based on the word of God. They learned to obey the word of God.

### **(3) Bible Study of Full-time Shepherds and Bible Teaching Materials Committee**

Lee trained and helped full-time staff shepherds to independently study the Bible, rather than be passively fed. Above all else, he taught them to develop a discerning eye of seeing the Bible in its entirety. For example, if they were studying Exodus, he had each person present their research of the opening chapter. These presentations required time and attention because they had to be written in their own words, rather than copied from another book. Or if they were studying Acts, they had to give a presentation on every sermon that occurs in the book of Acts. In short, Dr. Lee studied and researched the Bible with them together. These sessions required a lot of preparation and people were often nervous. Yet they were also fun and they were filled with the grace of God's word. This enabled them to serve the ministry based on the word of God.

After Lee went to the US as a missionary, Shepherds Mark Yang, Paul Lee, David Kim, and Daniel Lee formed the Bible Teaching Materials Research Committee. They met every Wednesday and studied the Bible, and made question sheets, and led a full-time shepherds' Bible study group. These groups, still continues to this day.

### **3) Progressive Direction**

UBF was formed and has continued to grow for the purpose of studying and obeying the word of God, and the word of God has continued to work powerfully through Biblical messages and inductive Bible study. But we cannot become complacent and we need to think of ways to continue to develop and grow for the next 50 years. Whenever Dr. Lee faced a difficulty, he said, "Go back to the Bible." We need to let go of, and put down, those things that have somehow become more important than the Bible, and go back to the word of God itself.

#### **(1) We need to study the Bible pure-heartedly.**

There were times where, like many churches, we considered ministry growth the most important factor. So in studying the Bible, rather than ask ourselves, "What is the Bible saying?" we were more interested in, "How can we expand our ministry?" In doing so,

our answers and interpretations of the Bible become dry and rigid, and we filtered our testimonies and personal applications towards ministry growth rather than our personal lives.

But now, we need to go back to a pure attitude toward the word of God. Ministry growth and revival is very important. But far more important is having a truth-seeking attitude to desire to know what God's word is saying, and listen to God's voice. We need to study the Bible to mature our personal faiths and characters, and to help build a more healthy community.

The phrases, "Biblically based spirit" and "Back to the Bible" also mean to "go back to the main theme of the whole Bible." There may be a multi whoity to the Bible, but there is a uni whoity that runs through them. But the Bible can be like a forest, difficult to discern a single mnr a s. We need to impro. We need to i materials to help impro. Wa betterd to i of the Bible. But even in making these materials, it is important tha. We avoid making q. stions tha. frame answers toward mission se ministry growth. Rather, the Bible sto i q. stions must probe deeperdanswers related to the character of J sus Christ. Furthermore, we need to acknowledge and deeply repent of merely teaching the word of God to students, rather than obeying the word of God ourselves.

**(2) We need to consolidate and strengthen the Teaching Materials Committee.**

The crux of UBF is Bible study. Naturally, the central committee in UBF should then be the Teaching Materials Committee. The Teaching Committee needs to responsibly research and study and teach the word of God. Rather than make weekly preparations for the passage needed for that week, they need to set up a long-term plan and dedicate themselves to the study of the word of God. Each chapter director needs to maintain a close relationship with the committee, and they need to co-work together to share God's word, make decisions, and lead the ministry.

**(3) We need to make a research institute for full-time shepherds' messages.**

Lee has left us a legacy of Biblical messages. We need to build on this and further develop it. The succession of this legacy begins with scrupulous Bible studies, and writing

messages molded to those Bible studies. But this cannot happen overnight. Therefore, we need to build a message research institute and establish it as the key ministry in UBF. At the same time, we need to raise specialists that can continue to develop the tradition of our inductive Bible studies through more research and study.

## 제 2장 대학생 제자양성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우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사도행전 19:9).

### 1. 대학생 제자양성의 정신

#### 1) 대학생 제자양성의 의의

대학생들은 대부분 10대 말에서 20대 초반의 청소년들입니다. 이들은 감수성이 예민하며 진리에 대한 수용성이 강합니다. 복음에 대한 수용력 또한 어느 세대보다 높습니다. 대학생들은 진리를 찾고자 노력하며 진리를 위해 기꺼이 몸과 마음을 바칠 준비가 된 열정적인 세대들입니다. 그들은 신분에서 자유롭고, 기꺼이 모험을 할 만큼 도전적이며, 각 분야의 엘리트가 될 사람들입니다.

대학은 사회와 국가, 그리고 교회의 미래를 이끌고 나갈 지도자를 양성하는 곳이라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4년제 대학은 215개이며, 학생 수는 300만 명이나 됩니다. 대학은 우리가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선교의 장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학은 해마다 졸업생들이 나가고 입학생들이 들어옴으로써 끊임없이 새로운 사람들로 채워지는 곳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합니다.

대학이 선교의 장이요 대학생들이 선교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곧 선교의 주체요 선교에 공헌할 사람들입니다. 교회사에서 대학생 복음운동이 끼친 영향은 지대합니다. 18세기 독일의 할레(Halle)대학과 영국의 옥스퍼드(Oxford)대학, 그리고 19세기 초 미국의 윌리엄스(Williams)대학에서 일어난 대학생 복음운동은 수많은 헌신된 선교사들을 배출했고 세계선교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수님께서도 12명의 청년들을 제자로 세우시고, 그들을 다음 세대의 교회 지도자들로 양성하셨습니다. 대학이 선교의 대상일 뿐 아니라 선교의 주체라는 점에서 대학생 제자양성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대학생의 위기는 그 사회의 위기라는 말이 있듯이, 대학생 제자양성의 위기는 곧 교회의 위기요 세계선교의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학생 제자양성은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사역입니다.

## 2) UBF의 정체성과 대학생 제자양성

대학생 성경읽기 선교회(University Bible Fellowship)는 1961년 전남대학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대학생들은 가치관의 혼란 속에서 좌절하며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사무엘 선교사는 지성인들을 복음신앙에 입각하여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 급선무이며, 또 그것이 이 나라를 위기 가운데서 구원하는 길이라고 인식했습니다. 이때부터 대학생 제자양성이 시작된 겁니다.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대학생 제자양성의 목표는 UBF 선서문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 목표는 대학생들이 성경공부를 통해 기독교 인생관을 확립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즉 영적인 지도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 목표는 세계 선교에 이바지하는 세계적인 사람들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이사무엘 선교사는 대학생들을 돕고자 성경공부와 기도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모임은 태동부터 선교의 대상을 대학생들로 잡았고,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양성한다는 목표와 방향이 분명했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우리 공동체는 ‘대학생 제자양성’이라는 뚜렷한 정체성을 잃지 않고 꾸준히 성장해 왔습니다.

## 3) UBF 대학생 제자양성이 기여한 점

우리 모임이 지난 50년 동안 묵묵히 대학생 제자양성 역사를 섬기는 동안 알게 모르게, 또는 원하건 원하지 않건,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넘어 제자들을 양성하는 일과 귀납적 성경공부와 본문 중심의 설교의 열기를 일으키는 데에 일조했고, 자비량선교에 있어서도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두 가지 점에서 기여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1) 대학생들을 경건한 삶을 살도록 도왔습니다.

우리는 대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살도록 도전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도록 훈련했습니다. 성경읽기, 새벽기도와 일용할양식 쓰기, 소감쓰기, 전도하기, 기도, 독서, 섬기는 자세 등을 통하여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맞춤 훈련을 했습니다. 대학은 지성적인 곳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젊은 정욕을 절제하지 못하거나, 거의 무한대로 주어진 자유를 감당하지 못해서, 또는 낭만을 구가한다는 구실로 가장 방종해지기 쉬운 곳이기도 합니다.



이런 대학 풍토에서 우리 모임에 속한 대학생들은 위와 같은 훈련들을 통해 대학에서 구별되고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되었고, 직간접적으로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 **(2) 평신도 지도자 양성을 통해서 세상을 섬기고 세계선교를 섬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모임에 와서 성경공부를 했습니다. 그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평신도 지도자들로 사회의 곳곳에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며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평신도 선교사를 세계 각처에 파송함으로써 세계선교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1,700여명의 평신도 선교사들이 세계 각을 섬 대학에서 대학생 복음역사를 섬기고 있습니다. 21세기 세계선교 대학생 선교에 기여한 바가 결코 작다할 수 없을 것입니다.

## **4) UBF 대학생 제자양성의 나아갈 방향**

하나님께서 지난 50년 동안 우리 공동체를 귀하게 쓰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자족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의 50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갈 발전적 방향을 찾아야 합니다.

### **(1) 시대에 맞는 대학생 제자양성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모든 사회가 급속히 전자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대학생활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이나 아이패드를 나눠주기도 합니다. 이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학생을 위한 선교전략과 그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하루 빨리 세워야 합니다.

특히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적인 세계관을 가진 대학생들에게 효율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다음 몇 가지 사항을 특히 고려해야 합니다.

① 관계성 전도가 필요 합니다. 대학생들의 생활 현장에서 그들을 만나 대화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전도가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의 대화가 좋은 예입니다(요한 4장). 그러므로 그들과 접촉점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많은 연구와 모색과 도전이 필요합니다. 이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우리 자신이 적극적으로 대학생들 속으로 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며, 우리의 전하는 바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 영향

을 미쳐야 합니다.

② ‘사냥꾼 식’ 전도에서 ‘낚시꾼 식’ 전도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 동안 우리의 전도 방식은 사냥꾼이 대상을 포착하고 겨냥하여 잡는 것과 같이, 캠퍼스나 거리에서 한 사람을 붙들고 전도하는 ‘사냥꾼 식’ 전도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전도방식은 대학생들의 사상과 생활방식의 변화로 말미암아 효과를 거두기 어렵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도에 대한 거부감을 키울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낚시꾼 식’ 전도를 익혀야 합니다. 낚시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미끼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다려야 합니다. 물고기가 미끼를 물 때 까지 오래 동안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이처럼 전도에 있어서는 강압적이기 보다 인격적인 관계성을 중요시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래 동안 참고 기다리는 인내를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삼아야 합니다.

③ 뿌리는 자도 거두는 자도 다 전도자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제 까지 전도하는 데 있어서 눈에 보이는 ‘열매’를 중요시 했습니다. 열매가 없으면 실패했다고 생각하여 좌절했고, ‘전도에 은사가 없다’며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전도가 무거운 짐이 되고, 열심히 할수록 좌절감만 늘어나고, 그래서 괴로움에 시달리거나 아니면 전도를 포기하고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샀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요한 4:36). 이 말씀을 볼 때 열매를 거두는 자뿐만 아니라 뿌리는 자도 전도자입니다. 전도에는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다만 뿌리는 데 성공했는가, 거두는 데 성공했는가 하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뿌린 것을 어떤 모양으로든지 반드시 거두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점에서 전도에 대한 인식을 전환함으로써 뿌리는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또 당장 거두지 못한다 할지라도 먼 미래를 내다보고 꾸준히 전도하며 뿌려야 한다고 믿습니다.

## **(2) 대학생 제자양성을 위한 전임 사역자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대학생을 제자로 양성할 수 있었던 가장 요인 중 하나는 전임 사역자들의 헌신과 공로를 빼놓을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대학생 제자양성을 계속해서 감당하기 위해서는 전임 사역자들을 계속해서 양성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계속해서 개척하는 역사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전임 목자들이 물러날 때 계승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사람들을 양성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합심하여 도

전하여 나갈 때 ‘대학생 제자양성’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 3) 맺는 말

대학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선교의 장이요 대학생은 방치할 수 없는 선교의 주체입니다. 대학생은 미래 사회와 교회의 지도자가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대학생을 포기하면 한 나라의 미래도 없고 교회의 미래도 없습니다. 우리 모임은 이런 중요성을 인식하고 시작부터 현재까지 일관되게 대학생 제자양성의 목표를 잃지 않았습시다. 그런데 여러 면에서 우리는 위기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처음 대학생 제자양성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임이 60년대 처음 대학생 제자양성을 시작할 때의 대학생 운동은 아주 역동적이었습니다. 대학생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기도하고 결정하고 추진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진취적이고 도전적이었습니다. 지도자 양성도 우리 모임이 필요한 지도자가 아니라 국가와 민족, 나아가서 세계를 섬길 지도자를 양성하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제자를 키우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초기 정신을 바탕으로 볼 때 대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자기 시대에 맞는 대학생 제자양성 방법을 찾아가도록 도와야 합니다. 또 다음 세대에 필요한 전문인 제자들을 키워내야 합니다. 그럴 때 앞으로의 50년도 희망으로 가득 찰 수 있을 겁니다.

## **II. Campus Ministry for Discipleship**

“But some of them became obstinate; they refused to believe and publically maligned the Way. So Paul left them. He took the disciples with him and had discussion daily in the lecture hall of Tyrannus”(Acts 19:9).

### **1. The Spirit of Campus Ministry**

#### **1) The Meaning of Campus Discipleship**

Most college students are in their late teens or early twenties. They can be sensitive and highly receptive to truth. Their acceptance of the gospel is higher than in any other generation. Many college students are in search of the truth, and are passionately ready to give mind and body for that discovery. Their identities are as yet unbound and exploratory, they are adventurous, and have potential to become elites in their fields.

The university is an important place that produces future leaders who can lead society, the nation and the church. In Korea, there are currently 215 four-year-colleges. The aggregate student population is currently approximately 3 million. The university is an undeniably important mission field. Not only this, but every year students graduate, and new students enroll. It is an important place where there is a continuous inflow of new students.

The university is an important place for mission, and students are not only our objective, but they are those who will become bearers and contributors of our mission. In church history, campus ministry has always had an immense influence. Student movements at Halle University in 18th century Germany, and Oxford University, and Williams University in the 19th century all produced a huge number of sacrificial missionaries that went out to the whole world. Our Lord Jesus himself raised young disciples to be the leaders of the next generation. Campus disciple-raising is so important, in that the university is not only

the object of our mission, but the main agent of our mission.

There is a saying that the crisis of a college student is the crisis of their society. In a similar way, the crisis of disciple-making is the crisis of the church, and the crisis of world mission. Because of this we can never give up on the ministry of raising disciples.

## **2) UBF Identity and Campus Discipleship**

UBF, University Bible Fellowship, began in 1961, in Jeonnam University (Kwangju, Korea). At that time, students were lost and in despair. Samuel Lee not only considered it his utmost priority to help these students to rediscover their direction based on the word of God, but he believed this was how our nation would be saved from our crisis.

Our aim of raising campus disciples is clearly stated on our Mission Statement. Our first goal is to raise students who have a comprehensive Biblical outlook through Bible study, and moreover, are approved and unashamed workmen(2Ti 2:15) and spiritual leaders. Our second goal is to raise global leaders that can contribute to world mission. Samuel Lee helped college students and began Bible studies and prayer meetings for the purpose of these goals. From our beginnings, our goal was campus ministry, and our goal was always to raise them as Jesus' disciples. For the past 50 years, we have not lost sight of these goals and have faithfully continued to raise campus disciples.

## **3) How UBF contributes to the discipleship of college students**

Our ministry has served discipleship ministry of college students silently for last 50 years and contributed greatly whether we wanted to or not and other churches knew or not. This discipleship has helped church-goers participate discipleship ministry, inductive Bible study, Bible passage-centered preaching and has had a good influence on self-supporting world mission. Especially, we have contributed in two ways.

### **(1) We helped students to live godly lives.**

We not only taught students the word of God, but challenged them to live according to

the word of God. We helped them to do their best to present themselves to God as those approved, as workmen who do not need to be ashamed and who correctly handles the word of truth. We tailored discipleship for each student through Bible reading, early morning prayer, daily bread meditation, testimony writing, evangelizing, prayer, self-study and reading, ny wning to serve, etc. The university is not only a place of intellectuals, but also a place where it is easy to benive immoral. Young pplple can have dif aculty controlling lustful desires, or not know how to use the freedom suddenly afforded them in college. They even use the pretext of pursuing romance to become lost in sin. In the midst of such a university setting, our students have learned to live lives set apart, and to develop the strength to live a godly life, and indirectly were good influences.

**(2) We served our world and world mission through raising lay shepherds.**

Many people came to UBF to have Bible study. They have now graduated and live as lay shepherds according to the Bible and serve their communities. Not only this but they are also contributing to world mission by going sent as missionaries to different countries in the world. Currently approximately 1,700 lay missionaries are serving campus ministries in different countries all over the world. It would not be a stretch to say that our contribution to world campus mission has been considerable in the 21st century.

**4) The Future Direction of UBF Campus Discipleship**

God has used UBF preciously the past 50 years. But we must not become complacent. We need to find future direction for the next 50 years of our ministry.

**(1) We need to develop a disciple-making program that is appropriate for our times.**

Our world has recently become rapidly and highly technological. Some schools even distribute smart phones or iPads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students' college life. We need to quickly develop mission strategies appropriate for our students in order to adapt to these times.

In particular, students' outlooks and worldview are affected by the postmodern influence of humanism and secularism. We need a strategy that can enable us to reach past influences, to preach the gospel effectively to them. Regarding such a strategy, we need to

take into consideration the following points:

① We need to evangelize relationally. Our evangelism needs to occur through conversation and fellowship with students at the sites of their daily activities. Jesus' conversation with the Samaritan woman is a good example(John 4). Thus, we need to challenge, discuss and research how to establish points of contact with students. This will require us, most importantly, to actively meet students where they are. Moreover, our lives, must be what we preach.

② In our approach to evangelism, we need to 'fish' rather than 'hunt.' Up until now, our approach to evangelism seems generally to have been like hunting: like a hunter aims at and seizes its prey, on campus we look for a student to seize. But because of the change in students' mindset and lifestyle, not only is this approach now ineffective, but will only serve to increase their sense of aversion and reluctance. We need to 'hook' students, like a fisherman would a fish. In order to fish, one needs bait. And one needs to patiently wait. Until the student grabs the bait, we need to persevere and wait. Likewise, our approach to evangelism and outreach needs to value personal relationships rather than be coercive. We need to regard patience and waiting as our most important virtues.

③ We need a change in awareness that the sower and the reaper are both evangelizers. Up until now many of us have considered the fruit as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evangelism. If we didn't have fruit we considered ourselves a failure, and considered ourselves without the gift of evangelism. Evangelism became a big burden. The harder we tried, the more we despaired. Many of us condemned ourselves or gave up and lived weak and powerless lives.

But Jesus said, "Even now the reaper draws his wages, even now he harvests the crop for eternal life, so that the sower and the reaper may be glad together"(Jn 4:36). In light of this verse, both the sower and the reaper are evangelizers. There is no failure in evangelism. It is simply a difference of success in sowing, or success in reaping. We believe God will surely reap and harvest whatever we have sown. May we shift our thinking and become confident as sowers of the word of God. Moreover, even if we may not reap immediately, may we have the perspective and faith that we will surely eventually

reap whatever we sow.

## **(2) We need to know the importance of full-time workers for disciple-making ministry.**

We cannot forget that one of the most important reasons our disciple-making ministries have been possible, is the sacrifice and service of our full-time workers. Our campus disciple-making ministry can only continue if we continue to raise full-time workers. In order to raise full-time workers, we will need to continue to pioneer chapters. Not only that but we need to raise people of capacity and competence to succeed current full-time shepherds who may eventually retire. I believe that when we cooperatively challenge our problems together we will be able to create a new paradigm out of campus disciple-making.

## **3) Final Words**

The university is a place of mission that we cannot be ignore, and campus students are the bearers of mission. College students are already capable of becoming leaders in society and in the church. Thus, if we give up on campus students there can be no hope for the nation or for the church. Our organization has, from its inception, consistentl. Ouen aware ion, conimportance and has, till , condany, regarded campus disciple-making as our goal and purpose. However, in many ways we are faced with al and pt kinds of problems and challenges. In order to overcome , co, we need to return to our original spirit of campus disciple-making. When we first started our disciple-making ministry in the 60o, our student movement was ppus ful. College students gathered, discussed, prayed, made decisions, and pushed forward. In that sense we were progr arovement bold. In our raising of leaders, we drin't just seek to raise leaders for our ministry, but to raise leaders for en awaciety and our nation,ment wor tarteple-makld. W awauceptto raise disciples of Jesus. In view of the spirit of the earl. days, we can learn that we need to help students to fint wor themselves the methods and strategies for disciple-making that is appropriate to their times. We also need to raise professionals and specialists for the next generation. Then may we be able to have hope for the next 50 years of our ministry.



## 2. 제자 양성 및 가정교회

우리의 제자양성 역사는 개척기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50년 동안 줄기차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 지난 50년 동안 수많은 헌신된 캠퍼스 목자들과 선교사들을 양성하여 세우셨고, 그들을 세계 각지에 보내 수많은 캠퍼스 개척역사를 이루어 오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캠퍼스 제자양성이 어려워져가고 있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지난 5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제자양성역사를 이루어 오셨는가를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제자양성 사역에 대한 철학과 비전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1) 지난 50년 동안의 UBF의 제자양성 역사

#### (1) ‘소회’(小會, Counsellor meeting), ‘소기도회’(Small Prayer Meeting)로 출발한 제자양성

1962년 3월말 이사무엘 선교사는 3일 동안 20명의 광주 지역 대학생과 16명의 전주 지역 대학생을 모아 최초로 대학생 리더십 수양회를 가졌습니다. 이 수양회 후에 소수 정병을 훈련하여 리더로 세웠습니다. 또 이들을 통하여 다른 제자들을 세우는 영적인 방향을 가지고 이들 가운데 6명의 리더를 뽑아 ‘소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매일 성경공부를 하였습니다. 이 소회는 초기사역의 ‘산실’이었습니다.

‘소위원’이 되려면 우선 학교성적이 평균 B학점 이상이어야 했습니다. 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선교사업부’에 가입해야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분명한 기독교 인생관을 확립해야 했습니다. 정기 소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있고, 필요에 따라서 갖는 임시소회가 있었습니다. 정기 소회 때는 한 사람이라도 오지 않으면 그를 찾아가서 그를 참석시킨 후에야 시작하였습니다. 소회에 대한 절대성은 소위원들의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절대성을 키우는 훈련장이었습니다.

#### (2) ‘일대일 성경공부’를 통한 제자양성

1965년 3월, 봄 학기 신입생들이 몰려왔습니다. 날마다 새 양들이 오기 때문에 이들을 수용할 공간이 부족하였습니다. 그때 이사무엘 선교사는 리더 모임에서 리더들이 양들을 한 사람씩 도울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합니다. 즉 많은 사람이 모인다고 해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철저한 ‘1대1’ 사상의 필요성을 강조한 겁니다.

5월 15일 주말수양회 때도 철저하게 한 사람을 돕는 ‘1대1 사상’을 강조하였습니다. “많은 양보다 한 마리 어린양을 사랑하며 기도하기로 했는데, 오늘 우리는 얼마나 실전에 옮기었는가? 내 양 한 마리를 사랑하지 못할 때 어떻게 다른 양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 **(3) 이사무엘 선교사의 제자양성의 철학과 열정**

UBF가 초기부터 캠퍼스 제자양성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은 이사무엘 선교사의 철학과 열정에 기초합니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지도자 양성에 힘을 쏟았습니다.

바울은 리더로서 자부심이 넘쳐 있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로마에 대한 빛진 자의 의무를 다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UBF 지도자로서 자격을 갖추어야만 합니다. 분명한 목적의식을 갖고 대과업을 앞에 놓고 나아가야 합니다. UBF 지도자는 방황하는 세대 속에서 그들의 목적을 선정해 주고 나아갈 방향을 선정해 줘야 합니다. 괴로울 때나 넘어질 때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야 합니다.

이러한 지도자상은 UBF의 선서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군이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기독교 인생관을 확립한다.

하나,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군이다.

성서한국과 세계선교를 위해 자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

이 선서문은 디모데후서 2:3, 15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여 지도자를 양성하고자했기 때문에 성경공부도 이론적이고 지식적인 공부가 아니라 말씀을 영접하고 순종하는 실천신앙에 중점을 두게 되었습니다.

### **(4) 뜨거운 기도생활과 아름다운 공동체 훈련**

1966년도 캠퍼스 그룹 성경공부 팀 수가 100개에 이르렀고, 그 공부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이 600명에 이르렀습니다. 당시 역사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회관 1-2 층에 가득 찬 영어 회화 반들. 아래층만도 다섯 개의 분반이 같이 공부하였다. 법석 법석하여 무슨 소린지 알아듣지 못하고 서로 정신이 나갈 듯하다. ....회

장과 이창우 선생님을 비롯하여 리더들이 모여 장시간 동안 기도하고 있다. 그들의 기도의 응답이 이 땅 위의 기독교 문화로서 이루어 질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다(1966년 3월 10일).

#### (5) 믿음의 조상들의 신앙적 영향력

개척기 조상들의 신앙적 영향력은 지난 50년의 UBF 제자양성을 가능하게 한 밑거름이요 제자양성의 영적 환경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역사는 캠퍼스 현장에서 성경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자 몸부림치는 역사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개척기 조상들의 성경말씀대로 순종하여 살고자 한 헌신과 희생과 믿음을 축복하시고 그분들의 신앙적 영향력과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하여 제자양성을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 (6) 가정교회 세우기

초기 기독교는 가정교회 형태였습니다. 초기 기독교가 극심한 핍박에도 쓰러지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가정교회 형태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정교회는 자연스럽게 타종교인, 이웃들을 담는 그릇이 되었습니다. 가정교회에서는 성도들 간 사랑의 관계가 뛰어났습니다. 사회적, 민족적, 종교적 장벽들을 무너뜨리고 모든 신자들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평등하게 만들었습니다. 가정교회는 각 계층 사람들에게 말보다도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보여줌으로 전도를 활성화 시켰습니다. 또한 가정교회에서는 한 사람의 영혼에 깊은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양육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들에 의해 양육된 평신도들이 말씀사역을 비롯한 전반적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가정교회는 교회의 원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모범은 초기 기독교의 가정교회들이 가졌던 정신과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공동체는 초기부터 같은 신앙과 같은 사명을 가진 리더들이 믿음으로 가정을 세우면서 가정교회들이 탄생되었고, 가정교회의 이상이 실현되었습니다. 가난한 생활을 하면서도 가정을 개방하여 양들을 데리고 살기도 했고, 어떤 가정은 학생을 하숙시켜 영육 간에 섬기며 복음을 전하고 제자로 양육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물질적 희생과 사생활의 희생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은 개척 조상들이 가졌던 이러한 가정교회들을 통해 제자양성과 복음역사를 크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개인주의 이기주의 세속화의 물결이 거셉니다. 동시에 우리의 공동체들이 몸집이 커짐에 따라 성도들 간의 인격적인 교제가 약화되기 쉽습니다. 우리는

공동체의 규모가 커질지라도 계속해서 초기 기독교의 원형인 가정교회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가정교회의 정신을 지켜가려면 마가의 다락방 가정교회의 수인 120명 정도가 이상적일 것입니다. 더 커지면 분립해서 개척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들이 가정교회의 정신을 회복하고 실현해야 합니다. 가족예배, 말씀, 기도, 찬송이 살아있는 가정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부부가 함께 성경을 읽고, 말씀을 나누어야 합니다. 먼저 사랑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선배 가정교회들은 후배 가정교회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격려해주어야 합니다. 자녀들이 올바르게 성장해서 가정교회를 이루기 까지 어릴 때부터 가정교회에서 신앙교육이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 국제결혼을 한 가정의 경우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도아야 합니다.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한다든지 문화적 적응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상의 실현을 위해서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헌신과 자기희생의 정신을 본받고 실천해야 합니다. 철저한 헌신과 자기희생 없이는 가정교회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정을 선교의 공동체, 섬김의 공동체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계속해서 가정교회들이 탄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가운데 성경적 가정관, 결혼관이 교육되어야 합니다. 가정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힘써야 합니다.

## **(7) 전임 목자 양성**

이사무엘 선교사는 우리 모임이 평신도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 단체이지만 전임 목자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많은 선배들을 전임 목자로 세웠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평신도 목자들처럼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생동안 주님 사역에 전적으로 헌신하고자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들은 뒤에서 평신도 목자와 선교사를 섬기며 말씀과 기도로 힘써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임 목자들은 기둥을 뽑아 드리는 정신으로 세계선교를 섬겼습니다. 이로써 기라성 같은 평신도 선교사들이 양성되고 선교 일선에 파송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전임 목자들의 헌신을 축복하시고 제자양성을 이루어 주셨다고 믿습니다.

## **2)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우리는 모두 사역의 부흥을 갈망합니다. 그런데 그 부흥은 ‘무리 운동’에 있지 않습니다. 더디게 보이더라도 제자양성에 힘쓰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사역 현장에서 제자

양성에 실패를 경험함에 따라 제자양성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심기일전해야 합니다. 이런 도전은 오히려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캠퍼스 제자양성의 길을 흔들림 없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조상들의 제자양성 사역을 넘치게 축복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의 제자양성 사역도 넘치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 **2. Discipleship and the House church**

Campus Ministry for Discipleship has unremittingly continued for 50 years from its inception to this day. Through this God has raised a great number of sacrificial shepherds and missionaries, and has pioneered a great number of campus ministries through them. However, we are faced with the increasingly difficult reality of campus disciple-making ministry. At this point in our ministry, we wish to reflect on how God has worked through our disciple-making ministry for the past 50 years. Through this may we renew our philosophy and vision for our Campus Ministry for Discipleship.

### **1) The past 50 years of Campus Ministry for Discipleship**

#### **(1) The discipleship ministry that began with a Counselor Meeting and Small Prayer Meeting**

In late March of 1962, Samuel Lee held a 3-day leaders' conference with 20 college students from Kwangju, and 16 students from Jeonju. After this conference, a group of three top disciples were trained and made leaders. Through them, with the purpose of raising more disciples, 6 more leaders were chosen, and they created a Counselor Meeting. Lee held Bible study sessions with them daily. This Counselor Meeting was the birthplace of early UBF ministry.

If you wanted to become a 'member' of the committee, your college GPA had to be an average of B or higher. You had to accept Jesus as Christ, and you had to register with the Missions Work Committee. In short, you had to love the word of God and have a clear Christian worldview. The Counselor Meeting was held once a month, and provisional meetings were held when necessary. During the monthly meetings, even if one member was absent, the meeting did not begin until that person was found and brought to attend. Students were taught commitment to God's ministry by learning to be committed to the Counselor Meeting.

#### **(2) Discipleship Through One-to-one Bible Study**

In March of 1965, at the commencement of the spring semester, freshmen swarmed into the Bible center. Because new students came every day, there was not enough room for them to have Bible study. At this time, during a leaders' meeting, Lee proposed that each leader only help one Bible student. In short, just because many people came, they could not become complacent. They had to strictly maintain Bible studies to be one-to-one.

In May 15 during a weekend conference, he again emphasized the one-to-one philosophy of Bible study. He said, "Although we served and prayed for one sheep, how much have we put this into practice? How can I love any sheep if I cannot love even one?"

### **(3) Lee's Philosophy and Passion for Disciple-Making Ministry**

The reason why UBF could focus on disciple-making ministry from the very beginning, was based on Lee's philosophy and passion. From the beginning, he poured all his energy to nurturing and raising leaders.

"Apostle Paul was full of confidence as a leader. As an apostle for the gentiles, he fulfilled his labors for Rome. Likewise, we also need to equip ourselves as UBF leaders. With a clear sense of purpose we need to set the great task before us and press onward. UBF leaders need to know how to present their purpose and direction for people lost in the world. They must hold onto Jesus Christ whether in difficulty or even if they fall."

The UBF declaration shows very well this sense of leadership:

"One, I am a soldier of my Lord Jesus Christ.

I will correctly handle the word of truth and build a Christian outlook.

One, I am a soldier of my Lord Jesus Christ.

I will participate in the sufferings of Christ for Bible Korea and world mission."

This declaration is based on 2 Timothy 2:3,15. Because leaders were raised based on this word, they were not theoretical or knowledge-based, but did it in a way that led to personal acceptance of God's word and total obedience of the word of God.

#### **(4) Training for Lives of Prayer and a Christian Community**

In 1966, the number of campus Bible study groups reached 100, and the number of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those groups reached 600. This is a report from that time:

"The first and second floor of the meeting hall is packed with English Conversation study groups. As many as five groups are studying together are on the first floor. It is so full of commotion that they cannot hear or understand what the other is saying. Including the group president and Changwoo Lee all the leaders have been praying for a long time. My heart is filled with anticipation thinking of how their prayers will be answered one day" (Dated March 10, 1966).

#### **(5) The Spiritual Influence of Our Predecessors of Faith**

The spiritual influence of our predecessors is the foundation that made UBF disciple-making possible throughout the past 50 years, and created the conditions for a disciple-making ministry. We could say that our ministry was simply going to the campus, believing the word of God, obeying it, and desperately struggling to experience its power. God blessed the commitment, sacrifice and faiths of our predecessors to live according to God's word, and blessed our disciple-making ministry through their spiritual influence and their fragrance of Christ.

#### **(6) Establishing House Churches**

The early churches in the Bible were originally house churches. One of the reasons why the early church did not collapse under severe persecution was because it existed as house churches. The house churches were also a vessel that easily accommodated neighbors of other religions. What is most exceptional about these house churches was their fellowship of love. Social, national and religious barriers were demolished and the believers were equal and one in Christ Jesus. In the house churches, evangelism was enlivened by showing Christ in one's life, rather than through one's words. The house churches also allowed care and attention to be given to one person, to share the gospel, and nurture them. These lay workers who were disciples by the apostles grew to oversee most of the gospel ministry. The house church is the church in its original image. Therefore, the



example that the church today needs to emulate is the spirit and life of the house churches of the early church.

In our ministry, leaders established house churches with other leaders of the same faith and mission, and we have seen the establishment of ideal house churches. These house churches were poor but opened up their homes for students to live with them. One house church boarded one student and served and cared for them while sharing the gospel and raising them into disciples. But in order to do so there had to be financial and personal sacrifices. God blessed the gospel ministry through these house churches.

However, the influences of individualism, selfish and secularism are so strong. At the same time, while our communities grow in size, it is easy for personal relationships to weaken. Even though our ministry expands, we need to maintain and continue to develop the house church spirit of the early church. Practically, if we are to continue to keep our house church spirit, the ideal number may probably be Mark's house church of 120 (Acts 1). Any bigger, and a pioneering of a new chapter may be advisable.

Not only this, but families need to restore the original house church spirit. There needs to be family worship, and they need to create a family filled with the word of God, prayer and praise. Spouses should read the Bible together and share the word with each other. They must strive to love one another first. Older house churches need to encourage and pray for younger house churches. They need to be attentive to educating their children from when they are young until they grow up sound and mature. International house churches need special attention and care. Their friends may outcast them or they may have problems adjusting culturally. There needs to be a continual imitation of Christ's commitment and self-sacrifice and practice of the word of God in order to realize the ideal house church. This is because without a complete commitment and complete self-sacrifice, a house church cannot stand. We need to continue to make the family a place of mission and a place of service of ministry and serve the family.

Above all, more house churches need to be raised. For this, we need to continue to educate ourselves of the Biblical teaching on family and marriage. We all need to make a

cooperative in order to raise house churches.

### **(7) Raising Full-Time Shepherds**

Samuel Lee emphasized that we are not only a lay missionary-sending ministry but also that we need to raise full-time shepherds. He raised many people as full-time shepherds. Like the lay shepherds, they could have found good jobs. However, they left everything in order to wholeheartedly devote their lives to serve God's ministry. They work behind the scenes serving the lay shepherds and missionaries, and supporting them with God's word and prayer. In fact, they served world missions of sending out the most important and needed people. Because of this a starry array of lay missionaries were raised and planted to the frontiers of mission fields. We believe that God has blessed the sacrifice of these full-time shepherds by blessing our disciple-making ministry.

### **2) Our Future Direction**

We all desire a revival in our ministry. However, the answer to that revival does not lie in group movements. Even if it may appear slow, it is in raising disciples. Some of us experience failure or setbacks in raising disciples in our ministries, which causes us to doubt the discipleship ministry. But it is now, at this moment we need to challenge our thinking and turn over a new leaf. This problem may even be an opportunity for us to grow. May we walk the road of discipleship, unshaking in our faith. When we do so, God will raise disciples of Jesus just as he did in our ministry before.

### 3. 일대일 성경공부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디모데후서 2:2).

우리는 초기부터 대중 집회보다는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한 사람을 끝까지 말씀으로 돕는 일대일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우리는 큰 사역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일대일 사역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한 영혼을 귀히 여기고, 구원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키우기에 힘쓰다 보니 하나님께서 이 일을 크게 축복하신 겁니다.

#### 1) 일대일 성경공부의 정의

일대일 성경공부는 ‘말씀을 통해 구원 받은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과 말씀으로 도와서 구원에 이르도록 돕는 새 창조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회심케 하고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일대일이 중요합니까? 그것은 각 사람이 다 다르고, 그들 모두가 우주만 한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들을 한순간에 획일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자기 주관이 뚜렷하며 인격적인 대우를 원하는 대학생들을 돕기 위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일대일로 돕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일대일은 외적으로는 두 사람, 즉 두 인격의 만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매개로 만나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세 인격의 만남입니다. 즉 목자와 양,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양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간직한 목자와 일대일로 만납니다. 그 목자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 일대일로 만납니다. 이를 통해 그 양은 죄로 병든 내면을 치료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런 점에서 일대일 성경공부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한 새 창조역사요, 내면이 변화되는 영적혁명의 장이요(고후 5:17),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영적회복운동입니다(눅 19:10). 또한 사단에게 빼앗긴 하나님 나라를 되찾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운동입니다(마 12:28).

지난 50년 동안의 UBF의 사역은 이처럼 일대일 사역을 통한 새 창조와 재생산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UBF 사역의 살아 있는 공로자들은 각 사역 현장에서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해산의 수고를 감당해 온 일대일 성경선생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2) UBF 사역 속에서의 일대일 성경공부

### (1) 일대일 사상에 대한 강조

우리는 처음부터 대형집회를 통한 많은 사람의 사역이 아니라,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도와서 예수님의 제자로 키우고자 하는 일대일 사역에 집중하였습니다. 1966년 2월 5일의 메시지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택하셨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루어 놓은 역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 한 사람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철학적으로 보면 ‘1’은 전체의 총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없이 전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 한 사람을 마음으로 품고 기도할 때 상한 심령을 갖게 됩니다. 누가복음 15:6-7에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위해 끝까지 찾으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 사람을 중히 여기며 한 사람을 위해 끝까지 수고하고 기도하는 일대일 사상이 기독교의 사상이며, 예수님의 주된 사상입니다. 그러므로 일대일 사상에 근거하여 한 사람을 위해 끝까지 수고하고 희생함으로 한 사람의 진실 된 양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일대일 사상으로 복음 역사가 이루어졌듯이 일대일 사상을 깊이 간직하여 행함으로 하나님의 복음역사의 물줄기를 이을 수 있어야 합니다.

### (2) UBF의 일대일 성경공부의 기원과 발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일대일 성경공부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이사무엘 선교사가 1968년 성경권별 문제지를 만들어서 말씀공부를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그는 창세기, 마가복음 문제지를 만들고 강의안을 작성해서 목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이를 기초로 목자들은 리더들에게 일대일로 성경을 가르쳤고, 그 리더들은 캠퍼스로 나가서 한 양을 붙들고 일대일 성경공부로 양을 도왔습니다. 이로써 1960년대 후반과 1970년 초반부터 일대일의 꽃이 만발하여 그 열매들이 나타났습니다. 1980년대에는 일대일이 불길처럼 타올라서 각 캠퍼스마다 일대일 팀 수가 주일예배 수의 두 배를 육박하였습니다. ‘일대일 전투’, ‘일대일 축제’, ‘우물가 일대일’과 같은 신조어가 탄생하였고, 일주일에 20팀 이상 일대일 하는 목자들도 나왔습니다. 일대일 할 양이 없으면 인형을 놓고 일대일 하기도 했습니다. 결혼한 목자들과 선교사들은 아이들을 맡기고 일대일 전

선에 뛰어들었으며 그 열매들로 많은 제자들이 탄생하였습니다. 이처럼 활발한 일대일을 통해 각 센타마다 기둥 같은 주인들이 세워지며 활발한 세계선교 역사를 이루는 견인차가 되었습니다.

### **(3) 일대일 성경공부가 가져온 내적인 열매들**

UBF가 일대일 성경공부를 시작한 것은 불신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도와서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것이 일차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일대일은 양들을 변화시킬 뿐 아니라 일대일을 해 주는 목자들을 성장하게 하는 지름길이기도 했습니다. 목자들은 양들과 일대일을 하면서 자신의 부족하고 죄악 된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즉 사랑의 부족, 혈기가 많음, 조급함, 교만 등의 문제들을 스스로 발견합니다. 일대일 양을 도우면서 기도하게 되고, 말씀을 연구하게 되고, 여러모로 배우고, 성장하게 됩니다. 일대일은 예수님을 배우고 닮아가는 가장 실제적인 훈련입니다. 한 영혼에 대한 목자의 심정, 인내와 사랑, 희생과 헌신, 섬김의 내면성, 자기 부인과 십자가 등과 같은 예수님의 성품을 삶의 현장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 **3) 역동적인 일대일 사역을 위한 발전적 제안**

1960년대에는 가족적이고 끈끈한 사랑의 분위기 속에서 오직 한 영혼에 대한 사랑과 개척을 위한 열망으로 발동을 걸었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70년대에서 1990년대 중반까지는 일대일의 전성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90년대 후반에는 일대일 사역이 약간 주춤한 시기였습니다. 최근에는 캠퍼스 현실이 더 각박해졌습니다. 또한 우리 모임에 있었던 시련은 목자들의 마음에 일대일에 대한 열정을 식게 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사역의 근간이 되는 일대일 사역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발전적 제안이 필요할 때입니다.

#### **(1) 목자의 가슴에 복음에 대한 감격의 불이 타올라야 합니다.**

일대일 사역은 마치 성화주자가 불을 옮겨 붙이는 것과 같습니다. 성화를 봉송하는 첫 주자가 다음 주자에게 불을 옮겨 붙일 때, 그 불이 그 다음 주자에게, 그리고 또 다른 주자에게 계속해서 불이 옮겨 붙습니다. 이처럼 일대일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감격으로 심령에 불이 붙은 목자가 그 불을 양의 가슴으로 옮겨 붙이는 작업과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은 목자의 가슴에 먼저 복음의 감격과 열정의 불이 타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말씀은 우리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목자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어 불이 붙게 되면 자연스럽게 양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고 불을 지르지 않고는 건딜 수 없는 열정으로 불타오를 겁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딤후 3:16), 성경을 깊이 공부하면 그 마음에 감동을 받고 마음이 뜨거워지게 됩니다.

UBF 초기 역사를 기록한 사회일지를 읽어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가슴속에서 뭔가 뜨거운 감격이 끓어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즉 개척조상들의 가슴에는 뭔가 타오르고 있는 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암담한 조국의 현실에 대한 민족에 적인 불이었을 수을 왔습니다. 각자가 가진 슬픈 운명의 한이 복음전파와 세계선교를 향한 열정의 불로 나타났다고 볼 수을 왔습니다. 어쨌든 그 복음에 대한 감격의 불이 물불 안 가리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목숨 걸고 섬기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음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새롭게 말씀을 받고 기뻐 뛰노는 복음의 감격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 **(2) 목자가 스스로 말씀을 연구해야 합니다.**

일대일 성경공부를 할 때에 목자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되풀이해서 전달하는 수준으로 만족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으로는 양들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목자님이 잘 가르쳐 줘도 내가 그 말씀을 소화하기까지 내 말씀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감동력 있고 확신 있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고, 양에게도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 **(3)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일대일 사역을 섬겨야 합니다.**

일대일의 중요한 두 축은 ‘만남’과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들은 단지 성경만을 공부하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따뜻한 만남과 사랑을 원합니다. 이런 양들에게 어떻게 하면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사랑을 표현하고 베풀어 줄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노력과 연구가 필요합니다. 사람은 사소한 일에 감동하고 감격합니다. 생일을 알아준다든지, 가정문제에 관심을 가져준다든지, 건강에 신경을 써 주거나, 밥 한 끼 사주는 것, 같이 커피 마시며 대화해 주는 것, 함께 놀아주는 것에 감동을 받고 마음 문을 엽니다.

우리는 양들과 ‘만남’에는 많은 투자를 합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관계’라는 측면은 소홀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일대일 공부를 이루려면 ‘관계’를 잘 맺어

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목자의 조급을 극복해야 합니다. 우리모임이 일 년 단위로 역사가 돌아가기 때문에 처음에 소망의 싹이 보이지 않으면 포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면부지의 양이 목자와 ‘라포’(rapport, 마음의 유대)를 형성해서 깊은 신뢰의 단계까지 이르는 것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목자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또 우리가 일대일 사역에서 알아야 할 점은 ‘일대일은 대화’라는 겁니다. 양들은 목자에게 말씀을 들으러 오기도 하지만 자신의 생각을 말하기 위해서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일대일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적입니다. 목자는 듣는 연습을 통해서 양들의 마음을 얻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귀를 기울려 경청할 때에 사람의 마음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함’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음’을 통해서 목자와 양은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관계’(heart to heart relationship)를 맺을 수 있습니다.

#### **(4) 대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한 사람을 일대일 성경공부의 테이블로 인도하기까지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목자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전체 차원에서 공동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초창기에는 영어성경공부가 양들을 초청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1980-1990년도에는 영어와 컴퓨터 등을 가르쳐 주는 ‘동계학교’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는 각종 소그룹 공부모임, 스포츠 및 음악 활동, 온라인(On-line)을 통한 관계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 양들의 요구(need)를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양들의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친구를 삼는 일이 중요합니다. 양들이 와서 자신의 가능성을 마음껏 발휘하고 뛰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체 차원에서 질 높은 내용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 **(5) 일대일 사역의 부족한 점을 극복하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일대일의 최대 장점은 목자와 양이 일대일 관계를 통해서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가 깊어진다는 점입니다. 반면 부작용 중 하나는 양이 자기 목자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양이 목자의 영적 수준 이상의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또 대부분의 영적 자양분과 정보를 일대일 목자를 통해서만 공급받기 때문에 시야가 좁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목자는 일대일 양을 언제까지나 자기의 품속에서만 키우려고 해서는 안 되고, 어느 정도 성장한 뒤에는 전체에 맡겨서 보다 넓고 다양하게 배

우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또한 일대일을 하면서도 다른 목자들과 함께 동역해서 돕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그래야 양도 폭넓게 성장할 수 있고 일대일 목자의 부담감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목자가 양을 돕지만 근본적으로 양을 키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목자는 양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중매쟁이일 뿐입니다(고후 11:2).

#### 4) 맺는 말

현대사회는 모든 분야에서 대량화, 초고속화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사람은 한꺼번에 한 사람이 여 있음을 낳는다는지, 열 달을 채우지 않고 낳는 법은 없습니다. 반드시 과정을 거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치요, 생명의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랜 시간이 걸리고 어려워도 한 사람을 품고 섬기는 이 길을 가야 합니다. 일대일 사역일대일 사역우리 모임이 계속 사역예수 길을 가을 배우고 예수 길을 가을 닮은 제자들을 꾸준히 양성해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 **3. One-to-one Bible Study**

“And the things you have heard me say in the presence of many witnesses entrust to reliable men who will also be qualified to teach others”(2 Ti 2:2).

From the beginning, rather than hold public gatherings, our ministry has focused on valuing one person and serving them to the end with the word of God through one-to-one Bible study. Our one-to-one Bible studies were not for the purpose of doing something great. We simply sought to deeply value one person, to save them and to raise them as Jesus' disciples, and God did all the rest by abundantly blessing this ministry.

#### **1) The definition of one-to-one Bible study**

One-to-one Bible study can be defined as the process of new creation in which one person is saved through the word of God to lead another person to salvation through Christ's love and the word of God. There can be many ways to help someone find happiness and change their life. But why is one-to-one Bible study so important? It is because each person is different, and each person carries problems as big as the universe itself. One cannot solve these problems through a standardized procedure. One-to-one Bible study is also the most effective way to serve people who tend to be opinionated and desire to be respected as individuals.

On the surface, one-to-one Bible study is the meeting of two people, and two different personalities. But as they meet in the context of God's word, strictly speaking, it is a meeting of three persons. In short, it is a meeting between shepherd, student and God. The student meets a shepherd one-to-one, who shows the love of Christ. Through the shepherd, the student once again meets God one-to-one. Through this the student receives healing for his sin-sickness, is saved, and is reborn as a child of God. In this sense, one-to-one Bible study is a process of a new creation through a person's meeting with God. It is a site of a spiritual revolution that works a transformation of the heart (2 Co 5:17). It is a spiritual restoration movement through which we regain the image of God (Lk 19:10). It is also a

restoration movement through which we regain the Kingdom of God (Mk 12:28).

Throughout the past 50 years, the UBF is the fruit of new creation and regeneration borne through our one-to-one Bible study ministry. The great contributors of this ministry are the one-to-one Bible teachers who labor in love for one student's salvation.

## **2) One-to-one Bible Study within UBF Ministry**

### **(1) The Emphasis of Our One-to-one Philosophy**

From the beginning we did not catered to a wide public, but devoted to the caring of one person to raise them into Bible teachers through one-to-one Bible study. The following is a message from February 5th, 1966:

"Christianity came about through one person at a time beginning with God's choosing Abraham, Isaac and Jacob. Jesus came for one person: 'myself.' Philosophically, the number 1 is known as the unity of a whole. There cannot be a whole without even one person. When we truly care and pray for one person, we come to have a broken heart for them. Luke 15:6-7 talks about "the finding of a lost sheep until he finds it." Likewise, the idea of valuing one person, and the one-to-one philosophy of serving and praying for one person is the philosophy of Christianity, and Jesus' main philosophy. Therefore, based on our one-to-one philosophy, through suffering and sacrificing ourselves for one lost soul we need to be able to care for one sheep. Just as the gospel ministry was based on God's and Jesus' one-to-one philosophy, we need to cherish our one-to-one philosophy and put it into practice, and help God's gospel ministry to continue."

### **(2) The Beginning and Growth of UBF's 1:1 Bible Study Methods**

UBF leaders adopted systematic 1:1 Bible study methods since 1968. First, Samuel Lee started providing student leaders with Bible study materials in the form of question sheets and written messages from the book of Genesis and Mark's Gospel. Based on question sheets of each lesson, student leaders studied the Bible one-to-one or in small groups. Then, these leaders invited their friends for Bible study and humbly shared what they

learned. In this way, campus Bible studies spread not only through 1:1 but also in small groups on many college campuses. This grass roots effort of training and equipping Bible teachers bore much fruit between the 1960s and 1970s. By the 1980s, these one-to-one Bible study methods became widespread in many UBF chapters. Through such personal evangelism efforts the number of one to one Bible teachers increased, and as the number of Bible teachers increased, there was also a rapid growth of the overall number of students. The experiences of these 1:1 Bible studies were both personally rewarding and spiritually challenging to the participants, and many described their one-to-one Bible studies as a forgettable one to one moments, a one-to-one festival, a one-to-one struggle, and so on. Dedicated leaders engaged in one-to-one Bible studies with 10, 12 and even 20 different individuals per week. Student leaders without any particular friends to study with even practiced one-to-one study with a puppy doll. Such one to one ministries required personal sacrifices. Some young mothers had to find time for their students while their children remained in care of babysitters. This was not easy for many leaders. Yet, many sowed the seeds of 1:1 studies in tears to reap the harvest for the Lord. As these children grew up, they also received one-to-one care with their parents and other Bible teachers as well. In brief, UBF's growth is based on the commitment, dedication and sacrifice of many leaders for such vigorous one to one ministries in each college campus.

### **(3) Enormous Impacts of 1:1 Bible Studies on Participants**

The primary reason for 1:1 Bible studies is mobilization of Bible teachers for effective personal evangelism. The focus is to lead non-Christians to Christ and His kingdom. Over the years the impact of 1:1 Bible studies has been huge in transforming both Bible teachers and participants. When Bible teachers(i.e., shepherds) had Bible study with students(i.e., sheep), their spiritual insight, attitude toward Christ, and their understanding of humanity also grew. It is not possible for Bible teachers to be careless, rash and arrogant toward their Bible students. They approached the Bible as disciples of Jesus. They learned to pray, examine the Bible for personal applications and help their students to accept the word of God with their labor of love and deep care. Through these 1:1 Bible studies these Bible teachers experienced practical training to learn the mind of Jesus Christ towards his sheep. A shepherd heart and labor for lost sheep in the form of patience, love, sacrifice and commitment has been the constant theme of these Bible teachers on a daily basis.

### **3) Modest Proposal for Fruitful 1:1 Ministries**

In the 1960s, UBF leaders served young people regarding them as their own family members with dedication, commitment and a spirit of love. The periods between the 1970s and 1990s were the golden era for 1:1 Bible ministries. In the 1990s, the excitement for 1:1 ministry somewhat slowed down. These days, the 1:1 ministries has experienced practical challenges. The changing environment of college campuses requires a fresh strategic approach for 1:1 ministry. Although the 1:1 methods are still relevant and essential, it is worthy to note both strengths and limitations of 1:1 ministry.

#### **(1) Bible teachers' hearts need to be touched and convinced by the power of the gospel.**

1:1 ministry is often compared to passing a baton in marathon race. The torch is being passed from one runner to the next in sequential fashion. Likewise, the power of 1:1 ministry is based on the extent of love and spirit that works in the heart of a person. Thus, it is important for a Bible teacher (shepherd) to remain motivated and inspired by the gospel. In essence, the gospel is about the love of God for the world. When the Holy Spirit works in a shepherd's heart and moves him, he goes out to the world to preach the word in season and out of season. Since the Bible is God-breathed (2 Tim 3:16), those engaging in deep and prayerful Bible study experience love in their hearts and minds by the love and the spirit of God.

Many are moved as they read the minutes of fellowship leaders meetings in the UBF yearly pioneering years. A great deal of passion and tears of love was the undercurrent of these early UBF leaders. These leaders loved their nation Korea in view of unsettling political circumstances, social unrest and economic hardships. They found reasons for hope and vision through the gospel of Jesus. Many individuals experienced the power of the gospel of Jesus beyond their sorrowful, painful and even fatalistic elements. The gospel of Jesus enabled them to rise up and go out to preach the gospel to all nations. Many leaders were willing to give themselves fully to the Lord in response to the grace of Jesus working in their lives. In view of the power of the gospel at work in these early UBF leaders, it must be our sincere prayer to renew such a passion and love for Jesus as well.

## **(2) Commitment to serious personal Bible study.**

For effective 1:1 ministries, Bible teachers may not merely repeat what they have learned from their senior leaders. Mindless and superficial studies may not appeal to students who seek the power of the truth. To be effective 1:1 Bible teachers, shepherds need to commit to serious personal Bible studies with much prayer. Such personal effort is essential to subject themselves first to the gospel truth and experience real joy of living by the truth in his/her own life.

## **(3) Approach 1:1 Bible study with long-term vision and hope.**

Two important factors for a fruitful 1:1 ministry are a personal encounter and meaningful relationship with the Bible student. A sheep may not come to the 1:1 Bible study merely for obtaining spiritual knowledge. Most sheep are in need of love and care. The key to reach these searching hearts is a meaningful encounter which is based on a display of genuine kindness and care for others. A sheep appreciates expressions of love through practical details such as remembering her birthday, listening to what she has to say, asking about her health, sharing a cup of coffee, and just hanging out for fun.

We tend to invest much on meeting with a sheep who is willing to study the Bible. Then, we tend to take the relationship aspect somewhat for granted. More encounters or meetings do not necessarily build relationships. Spiritual relationships require great patience. If it takes a series of meetings that open a sheep's heart for regular Bible studies, it involves a deeper level of care for him to grow into a serious walk with Jesus. This process often takes months, years and even more than ten years. Thus, Bible teachers engage in 1:1 ministries with long-term vision and hope. It is God who raises his people for his glorious purpose. Bible teachers participate in the process of raising people in God's time.

It is important to keep in mind that 1:1 Bible studies are personal interactions. Good Bible teachers are proficient in teaching (through talking). Sheep, however, want to speak what he/she thinks about. Thus, effective 1:1 Bible studies are interactive based on a deep respect toward the participants. For this reason, a shepherd needs to practice listening to

what a sheep says and consider what she may not say. When a shepherd truly listens and gives sincere feedback to a sheep, then they can have a heart to heart relationship.

**(4) Make every effort to build an environment for college students.**

It is not easy to bring one person to 1:1 Bible study. Students come when they feel comfortable, welcome and engaged. Therefore, those who participate in student ministries need to provide a student-friendly environment and offer interactive programs. In the 1980-1990s, many chapters offered a variety of programs that attracted students through English studies, computer subjects and other social activities including team sports, praise and worship sessions, orchestra practices and eating fellowship. As many Bible teachers are no longer college students, it is all the more important to provide venues through which both Bible teachers and college students can meaningfully interact as well.

**(5) Be aware of other growth venues beyond 1:1 relationships.**

Long-term 1:1 studies enable very deep personal relationships between a shepherd and a sheep. Over the years the role might be defined as sheep and shepherd. However, such a fixed relationship may also have a downside. A student may not go beyond his teacher. Thus, a sheep may accept all of his/her shepherd's ways. It is important for shepherds to allow their sheep to interact with other shepherds and leaders for continuous growth and healthy engagements. Raising a sheep is more than an individual's work. It involves a team effort. This may be one of the effective ways to raise one sheep to become a leader. Ultimately, God raises his sheep. Shepherds are mere servants that lead people to Jesus, the Chief Shepherd (Cor 11:2).

**4) Concluding Remarks**

Increasingly, speed and productivity matter in this world. The motto of the world is, "Faster and more with less." However, even with all the technological advancements people cannot be mass produced. A woman cannot bear ten babies all at once. A baby does not grow over night. Vital processes are necessary for healthy growth. God's principles and laws still operate in this world. Therefore, we must take time to raise even one sheep for the Lord. People grow through painful processes of repentance and faith. Bible teachers

must endure hardships for their sheep. Besides the labor of love, the grace of God is absolutely necessary for the transformation of souls. May God use our 1:1 ministries to raise influential leaders for Christ and His kingdom.

## 4. 일용할 양식

“그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 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출애굽기 16:4).

UBF 형제자매들은 틈만 나면 무엇인가를 씹습니다. 집에서 쓰고, 강의실에서도 쓰고, 도서관에서도 쓰고, 심지어 전철이 오기를 기다리면서도 씹습니다. 뭘 그렇게 열심히 쓰는가를 들여다보면 ‘일용할 양식’을 ‘먹는’ 중입니다. 우리 모두는 처음부터 ‘일용할 양식’과 함께 호흡해왔습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 말씀과 더불어 울고 웃으며 성장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40년 동안 날마다 만나를 내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UBF 형제자매들에게 지난 44년 동안 날마다 ‘일용할 양식’ 말씀을 공급해주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은 UBF 형제자매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 1) ‘일용할 양식’ 집필 시작

UBF가 서울에 있는 대학들을 개척하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이사무엘 선교사는 학생들이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도록 돕고자 했습니다. 그래야 개인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구성원들이 날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개인 시간을 갖고자 할 때 길잡이가 필요했습니다. 처음에는 영국의 성서 유니온(Scripture Union)에서 나온 책자 중 유용한 내용을 발췌해서 번역하여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 대학생들에게 맞는 원고를 써야 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이사무엘 선교사는 1968년 3월부터 ‘일용할 양식’ 원고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집필 전에 개인적으로 준비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3년 동안 성경 66권 전권 원고를 쓰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고 이를 이루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3년을 쓴 다음 다시 3년을 반복하여 썼고, 그 다음에는 성경별로 구분하여 썼습니다. 그는 성경별로 표현방법이나 접근 방식의 차이점에 주목했습니다. 새로운 샘의 물줄기를 찾아내기까지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힘든 투쟁을 열심히 감당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산통을 겪는 산모와 같이 온 마음과 힘을 쏟아 원고를 썼습니다. 그때



는 모든 것을 손으로 직접 써야 하는 시대여서 원고를 쓰는 도중 틀린 부분을 고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수정 테이프(Correction Tape)도 없어서 시험지를 잘라 풀로 붙여서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1971년경 겨울 이사무엘 선교사의 집에 화재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그는 손, 발, 얼굴에 각각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1개월 정도 치료받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손을 붕대로 감고 계속 ‘일용할 양식’ 원고를 썼습니다. 좀 쉬면서 하라고 해도 그는 “이 작업은 쉴 수가 없다”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이사무엘 선교사는 9년 동안 줄기차게 일용할 양식 원고를 써나갔습니다. 9년 동안의 원고 집필을 마친 후 그는 마침내 성경전권의 기본적인 흐름과 본질을 이해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 2) ‘일용할 양식’ 출판

처음 ‘일용할 양식’은 50권이 출판 되었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예쁜 책자로 출판되어 나올 때 이사무엘 선교사는 책자를 가슴에 안고 눈물을 흘리며 찬송을 불렀습니다. 학생들의 기쁨도 매우 컸습니다. 우리가 직접 만든 ‘일용할 양식’책이 있다는 것이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 귀한 말씀이 대학생들과 성경읽기가족들, 그리고 선교사들에게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같은 양식이 되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길잡이가 되기를 늘 기도했습니다.

## 3) ‘일용할 양식’이 주는 유익

### (1)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

‘일용할 양식’을 먹을 때는 혼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깊고 개인적인 만남은 그 자체가 한량없는 은혜요 감격입니다. 또한 기쁨과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는 원천입니다.

### (2) 사고방식과 가치관의 변화

오랫동안 가져왔던 사고방식이나 가치관들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거듭난 이후에도 어떤 특별한 문제들에 부딪치면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고자 투쟁하면 하나님 중심적인 내면으

로 완전히 변화됩니다. 매일 먹는 ‘일용할 양식’의 유익이 여기에 있습니다.

### **(3) 영적 성장의 원동력**

그리스도인은 꾸준히 성장해야 합니다. 어린아이의 수준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장성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합니다(벧전 2:2).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일용할 양식’은 우리들이 날마다 먹는 신령한 젖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꾸준히 먹는 자는 반드시 성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작은 예수’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 **(4) 영적 싸움에서 승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유혹과 핍박을 동시에 받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영적 싸움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날마다 계속됩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강력한 무기가 필요합니다. 그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엡 6:17). ‘일용할 양식’은 매일의 영적인 무기입니다. 매일매일 공급되는 말씀을 통하여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 **(5) 친밀한 영적 교제**

‘일용할 양식’은 영적 교제의 좋은 도구입니다. 단과대학 별로 학생 ‘요회’(Fellowship)가 생겼을 때 각각의 ‘요회’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 때 ‘요회 목사’는 그 주의 일용할 양식 중 한 부분을 골라 짧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구성원들은 ‘일용할 양식’ 소감을 써와서 함께 나누고 기도했습니다.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소감을 들으면서 같은 말씀이지만 각 사람에게 인격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말씀의 새로운 맛을 느낍니다. 또한 발표하는 사람의 실제 기도제목을 알게 되고, 말씀에 따라 간절하게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면서 서로간의 관계성이 친밀해짐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 소감발표는 공동체를 영적으로 결속시켜줄 뿐만 아니라 복음전파에도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 **4) ‘일용할 양식’을 잘 먹는 방법**

### **(1) 기도하기 -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일용할 양식’은 성경을 날마다 묵상하기에 적당한 분량으로 나누어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을 조명하시고, 가르치시며, 해석하시는 분은 성령님이

됩니다(요한 14:26; 16:14, 고전 2:13-14). 성경을 읽기 전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2) 읽기 - 사랑의 편지를 읽듯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신 사랑의 편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온 편지는 토씨 하나까지 꼼꼼하게 살피며 읽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흥분과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 **(3) 쓰기 - 구체적으로, 솔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는 자연스럽게 그 말씀의 올바른 적용으로 연결됩니다. 그 적용이 잠시 머릿속을 스쳐지나가는 생각이 아니라 실제 삶으로 나타나는 열매가 되게 하려면 글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글을 쓸수록 사고가 명료해지고, 구체적인 적용점을 찾게 됩니다. 이는 생각과 행위를 일치시켜 자칫 사변적으로 흐르기 쉬운 신앙을 실제적이고 역동적인 신앙으로 바꾸어줍니다. 이 점에서 ‘일용할 양식’을 쓰는 것은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우리의 내면도 치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정직하고 정확하게 성찰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일용할 양식’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예수님의 사죄와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날마다 새롭고 역동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 **(4) 다시 기도하기 - 한 말씀을 기초로**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결심한 바를 기초로 다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말씀에 기초한 삶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할 때 우리는 자신의 계획과 목표와 욕망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우선하게 됩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대로,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께서 UBF에 주신 영적 유산이요, 신령한 ‘만나’임에 틀림없습니다. 이 ‘만나’를 사랑하여 1년 365일 날마다 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 **4. Daily Bread**

“Then the LORD said to Moses, ‘I will rain down bread from heaven for you. The people are to go out each day and gather enough for that day. In this way I will test them and see whether they will follow my instructions’”(Exodus 16:4).

Brothers and sisters in UBF love to write. They write at home, at school, at the library and even while waiting for the subway. Some of them actually write or eat daily bread. Daily bread has been an important part of UBF ministry. We have been growing daily through daily bread.

After forty years of wilderness life, God said, “Man does not live on bread alone but on every word that comes from the mouth of the LORD” (Deut 8:4). Daily bread is about living daily on the word of God. For the past fifty years God has supported us with daily bread passages. Daily bread is God's very special gift given to UBF leaders now and even for the future.

### **1) The beginning of writing Daily Bread**

Even from the early period of pioneering universities in Seoul, Samuel Lee decided to help students with Daily Bread. It was to help them walk with Jesus daily and grow in personal faith. Since all the growing leaders desire to have personal devotion daily for Bible study and prayer, there was a pressing need for a suitable guide. At first, UBF took daily devotional portions from the British Scripture Union and translated them into Korean. Nevertheless, Samuel Lee felt that it is important to develop a Daily Bread booklet fitting for Korean students. Thus, he started preparing Daily Bread booklets from March 1968.

Samuel Lee spent much time studying the Bible on his own. His plan was to cover the entire 66 books of the Bible in a 3 year cycle of Daily Bread. After writing Daily Bread for 3 years, he revised the entire manuscript for the next 3 years and afterwards he wrote the text on each book of the Bible in depth. His main focus was on highlighting the glory

of God and His wonderful work in each book and presenting them in the form of meaningful and relevant messages for people. He struggled and earnestly prayed for God's wisdom and insight in writing the daily bread texts. He poured out his heart and energy in doing this important work. Back then, everything had to be written by hand and therefore it was not easy to fix an error while writing the text. As there was no correction tape, he had to cut and paste pieces of paper to correct errors.

One winter day in 1971, there was a fire at Samuel Lee's house. Due to this fire accident, he had third-degree burns on his hand, feet and on his face. After a month of treatment he returned home and the first thing he did was to start writing the daily bread text with his bandaged hands. Even though many people asked him to rest first, he only said, "I cannot stop writing." Despite the harsh circumstances, he continued to write the daily bread text for 9 years. After 9 years of daily bread text writing, he said he was finally able to understand the basic chemistry of the entire Bible.

## **2) Publishing the Daily Bread**

Only 50 copies of the first issue of the daily bread were published. When Samuel Lee received the first issue of daily bread book he shed tears and praised the Lord. Students were also happy to have quiet time with the Daily Bread booklet. Many students were excited to have Daily Bread written for them. After a while, the distribution of the Daily Bread booklet became quite widespread. Many leaders learned how to meditate on Daily Bread, share what they learned through Daily Bread, delivered messages on Daily Bread passages for fellowship meetings, wrote letters to missionaries, and used the Daily Bread for personal reflection and daily devotion.

## **3) Practical Benefits of Daily Bread**

### **(1) Personal encounter with God**

In writing Daily Bread each person takes time to be alone with God. By meditating on the word of God in the presence of God, people experience a deep personal relationship with God. Establishing the sound habit of having Daily Bread allows individuals to walk

with God and taste the grace and love of God in very personal ways. Personal reflection and time of prayer enables leaders to rejoice in the Lord and pursue a life that is marked by strength and energy.

## **(2) Transformation of mind and soul in Christ**

One's worldviews rarely change easily. Even after one accepts Jesus as his or her Savior, it is not uncommon to return to his old habits as he faces serious testing circumstances. However, by forming sound habits of prayer and Bible study it is possible to approach life's challenges with God's perspective, spiritual insight and strength from above. Many experience God through Daily Bread in to address their practical problems. Thus, using Daily Bread for daily devotion is quite helpful in practical living.

## **(3) Engine for spiritual growth**

The growth process of Christians should not stop. No one should stay permanently as a level of a child. For spiritual maturity Christians crave pure spiritual milk which is the word of God (1 Peter 2:2). Daily bread provides pure spiritual milk that we drink every day. Those who meditate on the word of God every day grow in mature faith and become more like Jesus. Thus, those who eat the word of God daily maintain an engine for continuous spiritual growth.

## **(4) Victory in spiritual warfare**

Christians face temptations common to everyone. Persecutions often occur in the lives of serious and devout Christians, too. Spiritual warfare is applicable in a general sense for all Christians. Spiritual battles are practical challenges individuals face on a daily basis. Christians need to be equipped with a strong weapon which is the word of God (Eph 6:17). In this sense, Daily Bread is a spiritual weapon for daily victory. Thus, Daily Bread is a practical means to win spiritual battles.

## **(5) A spiritual venue for meaningful fellowship**

Daily Bread is a good tool for spiritual fellowship. When small groups were formed by colleges, all of these fellowships met once a week. Then, the leader of the fellowship would choose a portion of that week's daily bread passages and deliver a short sermon

during the meeting. Other members of the fellowship also wrote and shared their testimonies. When members of the fellowship share their testimonies based on the weekly passages that they are familiar with, they learn how God is at work among the members of the fellowship and gain a deeper insight on the word of God as well. In addition, while sharing the daily bread testimony, members could be aware of others' needs and their prayer topics and pray earnestly for one another. In the meantime, they experience rich spiritual fellowships with one another. Testimony sharing based on daily bread passages unites the fellowship members and thus the body of Christ grows in depth and strength. Thus, the kingdom of God advances through the daily devotion of his people.

#### **4) Steps of meditating and writing Daily Bread**

Sharing Daily Bread is useful for making a spiritual vessel of unity and powerful in spreading the gospel.

##### **(1) Prayer - for the help of the Holy Spirit**

Daily bread requires an adequate amount of time to meditate on a portion of scripture. When we read the Bible, the Holy Spirit enlightens, teaches and interprets the word (John 14:26; 16:4, 1 Co 2:13-14). Thus, it is important to pray and ask the Holy Spirit to help us understand the passage before reading the Bible.

##### **(2) Reading - with affection for God**

The Bible is God's love letter for us. When a woman reads a letter from her fiancé who loves her, she probably would read it very carefully. In the same way we read the word of God with great interest and anticipation, seeking God's love.

##### **(3) Writing - with specific focus and prayerful applications**

Proper understanding of God's word is necessary before applying it to one's life. Clarity of understanding of the passage is helpful for specific applications. Integrating thoughts and actions are critical for strong faith. Thus, writing Daily Bread involves both meditation and application. Deep healing in our soul requires application of God's word in clear and specific aspects of our lives. Through Daily Bread we recognize Jesus' grace of forgiveness

and the presence of God's love at work in our lives.

**(4) Pray again - in light of the lesson(s) through the word**

It is helpful to pray again according to the word of God spoken, understood and received. When we pray according to the word of God, we are willing to obey God's will rather than our own plans.

Writing Daily Bread is an important way that many UBF leaders practice living by the word of God on daily basis- 365 days a year.



## 5. UBF의 소감이 지닌 신앙적 의미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로마서 10:10).

UBF에서 소감은 1973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요한복음 1장을 공부하면서 가진 ‘내 생명 심포지엄’을 하였습니다. 이 심포지엄에서 이 세상에 생명을 가지고 태어남으로 인해 그 많은 슬픔과 무거운 짐들을 안고 고민하던 문제들과 숨겨진 죄악들을 다 드러내고 예수님을 생명의 주님으로 영접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무거운 생명의 문제를 해결한 기쁨 때문에 모두들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느라 발표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 생명 심포지엄’은 한 학기 내내 계속되었고, 여름 수양회에서 전국적으로 ‘내 생명 심포지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인생소감’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고, 여름 수양회의 프로그램 중에 빠지는 안 되는 내용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감은 목자와 양의 1대1 모임에서, 혹은 요회나 ‘팀’(team)과 같은 소그룹 모임에서, 혹은 수양회나 선교대회에서, 그리고 선교사 파송식이나 환영식 등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 1) 소감의 성경적 의미

소감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의 올바른 반응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구원과 심판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행하신 두 가지 일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우주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창조주요 구속주이신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반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1) 창조와 소감

소감은 인격적 존재만이 말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창 1:4, 10, 12, 18, 21, 25)고 소감을 발표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후에는 만물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창1:31)고 소감을 발표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실 때 좋았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만물의 존재의미와 가치가 있습니다. 그후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

해 돕는 배필을 만들어서 이끌어 오셨을 때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창 2:23a)고 소감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여자’(창 1:23b)라고 부여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대한 인간의 반응입니다. 즉 이 소감 속에는 감탄과 찬양의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창조에 대한 인간의 소감에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천지 만물을 만들어 인간 삶의 터전으로 주신 것에 대한 무한한 찬양의 마음과 배우자를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소감 내용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심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마음이 가득 들어 있어야 합니다.

## (2) 구속과 소감

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이러한 고백이 없는 공동체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는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최종적으로 물으셨던 질문이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마태 16:15)?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시느냐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과 심판이 결정됩니다.

로마서 10:10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님이 누구냐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입으로 고백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감 쓰기와 발표의 성경적 기초가 있습니다. 우리의 소감 쓰기와 발표는 단순히 나의 이야기를 써서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루신 일들에 대한 고백입니다. 즉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 되시는가를 고백하는 겁니다. 이 고백에는 죄인으로서의 회개와 은혜에 대한 감사가 담겨 있습니다.

## 2) 소감을 통해서 얻는 유익들

### (1) 소감은 제자양성의 길입니다.

글은 생각과 사상의 열매입니다. 인본주의자는 인본주의 글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불신앙의 사람은 불신앙의 글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UBF의 소감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말씀에 기초하여 자신을 비취보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새 삶을 살도록 돕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적 가치관과 인생관과 세계관을 가진 사람을 양성하도록 돕는 일입니다.

### (2) 소감은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신앙을 갖도록 돕습니다.

소감을 통해서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 받고, 내면의 평강과 기쁨을 얻습니다. 죄로 인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며, 죄로 인한 어둠과 좌절과 절망에서 일어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소감을 통해서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신앙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3) 소감은 끊임없는 영적투쟁을 통해 신앙의 성장을 돕습니다.**

소감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 앞에서 끊임없는 영적 투쟁을 하게 합니다. 소감은 규칙적으로,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를 비추어 보게 합니다. 이를 통해서 자신의 숨은 허물을 발견하고 회개하게 함으로써 신앙의 발전과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4) 소감은 성경적 교제를 통한 신앙공동체를 형성하는 통로입니다.**

사도신경에 삼위일체 고백 다음에 곧바로 이어지는 것은 “거룩한 공회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론의 핵심내용입니다.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성숙한 신앙공동체는 성경적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성경적 교제의 핵심 중 하나는 소감 발표입니다.

**(5) 소감은 불신자의 마음을 열게 하는 효과적인 전도의 수단입니다.**

소감을 발표할 때 듣는 사람들은 발표자가 체험한 은혜를 함께 체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양회나 선교대회에서 발표하는 ‘인생소감’은 어린양들로 하여금 마음을 열게 하며 공감대를 형성하게 하는 소통의 역할을 합니다. 즉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역할을 합니다.

**(6) 소감은 글쓰기 훈련을 통한 사고력과 지성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UBF는 지성인 대학사회를 복음화 하는 공동체입니다. 소감은 그 자체가 글쓰기 훈련이며 또한 쓴 글을 발표하는 의사전달의 훈련이기도 합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사고력과 지성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영성개발의 측면뿐만 아니라 지성개발의 측면에서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상에서 볼 때, 소감은 UBF의 사역 목표, 즉 대학생들을 성경적으로 제자양성하는 것을 구체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소감쓰기를 통해서 각 사람은 성경말씀에 근거한 신앙에 뿌리를 내리게 되고,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신앙의 사람으로 자라

나기 때문입니다. 소감은 UBF의 고유한 신앙의 유산이며,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에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영적 자산이라고 믿습니다.

## **5. The Purpose and Principles of 'Sogam' Writing**

“For it is with your heart that you believe and are justified, and it is with your mouth that you confess and are saved”(Romans 10:10).

‘Sogam’ (i.e., reflective understanding on particular passages of the Bible) in UBF began in 1973. Based on John 1:4, there was My Life Symposium (i.e., writing and sharing on the stories of how God worked in one's life). Many people shared their life stories, which included sorrows, despairs, wandering and joys of finding Christ in their lives. People confessed their sins, expressed their doubts and showed the processes of how they came to accept Jesus and lived as people of mission for God's glory. Many shed tears of joy because of the great love of God they tasted and the freedom they experienced as the heavy burdens of sins were rolled away from their hearts. Since then, many people had chances to write a life sogam . In summer conferences many people shared their life stories in Jesus. Later, it was called a life testimony, and became one of the main programs at major Bible conferences.

Sogam is not necessarily writing about one's entire life. Sogam is somewhat short and brief based on a particular passage people study. Sogam is more or less the outcome of reflection on the specific passage of the Bible with personal application in detail. This sogam sharing was also in small groups like fellowships, conferences and sending ceremonies and mission reports.

### **1) The Biblical basis for sogam writing**

Sogam in Korean refers to specific human responses. It is customary to ask, “What is your sogam?” after reading a book, watching a movie, or having a tour or completing a challenging game. Thus, it is also possible to have spontaneous or thoughtful response after studying the word of God. In the Bible, God himself expressed his sogam on many occasions.

### **(1) Sogam in creation.**

After each day's creation, God shared his sogam saying, "It was good" (Gen 1:4, 10, 12, 18, 21, 25). When God created man in his own image, God saw everything in it and said, "It was very good" (Gen 1:31). God expressed his deep satisfaction over the creation of all. When God brought a woman to him, Adam said, "This is now bone of my bones and flesh of my flesh" (Gen 2:23a). And he called her "woman" (Gen 1:23b). It was Adam's sogam over seeing Eve. Here, sogam is an expression of joy and satisfaction in response to what is happening. It was in the form of happiness, joy, admiration and praise. God himself was quite pleased at seeing the beautiful creation in heavens and the earth. Thus, sogam often is an expression of our joy and happiness over the work of God we experience in this life.

### **(2) Sogam in redemption.**

Church is the community of people who confess Jesus as the Savior and Lord. A community of believers is built on a common confession of faith. Christ builds his church based on the confession, "You are the Christ." Jesus asked his disciples, "But what about you? Who do you say I am" (Mt 16:15)? This question is also for us. Our confession of faith is our sogam on the work of God's salvation.

Romans 10:10 says, "For it is with your heart that you believe and are justified, and it is with your mouth that you confess and are saved." We confess, "Jesus is Lord" with our mouths. We share such confession of faith in the presence of believers. In a sense, this is the biblical basis of sogam sharing. Sogam sharing is not merely about writing and sharing one's life story or ideas, but confession on what Jesus has done or how God has shown understanding and insight about particular passages. In sogam, it is usual to share lessons learned through the Bible study, or reasons for repentance for specific actions, or great joy and thanksgiving for the grace of God.

## **2) Benefits of Sogam writing and sharing**

### **(1) Sogam is beneficial in training our minds as disciples of Jesus.**

Writing requires careful observation, consideration and expression of thought. People

express their thoughts based on what they have in their minds. Humanists may write the victory of human achievements. People in their unbelief may share their sorrows and despairs. Through sogam writing and sharing, people in UBF meditate the word of God and consider our own circumstances in light of the teachings of the particular passages of the Bible, recognize our sins, express our desire to changes and decide specific steps for a new life. Through writing a sogam, we clarify the issues of life, gather our strength, and express our desire for God and understand the will of God. In this sense, sogam writing and sharing is quite helpful to train our minds and love the Lord God with all our minds (Deut 6:5).

**(2) Sogam is helpful for us to grow in personal faith.**

Through sogam, our life issues are identified, clarified, and resolved. God's word is specifically applied in our practical contexts. We experience peace and joy based on God's grace. Broken relationships can be mended overcoming despairing thoughts, sense of failures, and disappointments in this life. Instead, we taste the goodness of God. In this way, through sogam writing we grow in deep personal faith.

**(3) Sogam is powerful in our ongoing spiritual struggles.**

Sogam can be a practical tool for our spiritual struggles. Through sogam, we examine ourselves before God's word on regular basis. We become aware of problems that are buried and ignored in our busy life. As we face issues honestly seeking God's grace, we find our responsible and realistic responses to these issues and lead us to further spiritual growth and character development.

**(4) Sogam is useful in building a community through spiritual fellowship.**

'Communion of Saints' is an important component of the Apostles' Creed. A community of believers is a part of Universal Church. Communion of Saints involves spiritual fellowships of believers which require shared Christian convictions, confessions and experiences. Sogam sharing is a practical way to build such rich fellowships among believers.

**(5) Sogam is practical in preaching the gospel to unbelievers.**

When people listen to others' sogam, they learn about others' struggles, the paths of understanding of God's truths, and processes of how God works in others. Especially in the Bible conferences or report meetings, life testimonies open many people who would otherwise not have chances to learn about God. God's grace and truths are communicated through the stories of people. Many non-Christians to such God's stories in others' lives communicated through these sogams.

**(6) Sogam is effective in developing our mind for God.**

UBF is the evangelical community of believers. Regular sogam writing training is enormously helpful to grow in vital communication skills in terms of organizing, writing, and delivering God's truths in one's own soul to others.

In conclusion, sogam is a great way to experience God's grace and truth in our lives. This is also quite useful in raising up college students into Jesus' spiritual disciples. Through writing and sharing sogam, each person takes root in personal faith, acquires deep understanding of the Bible, and grows into spiritual maturity. God has used sogam practices in UBF to honor Christ and advance his kingdom in Korea and around the world.



## 제 3장 세계선교와 자비량

### 1. 자비량 선교의 정신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 떼를 기르고 그 양 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고린도전서 9:7).

#### 1) 세계선교 - 주님의 지상명령, 우리의 지향점

우리 모임의 이름 ‘대학생 성경읽기 선교회’와 우리 모임의 구호인 ‘성서한국 세계선교’가 말하듯이 우리는 초기부터 선교를 지향했습니다. 국내선교 뿐 아니라 세계선교를 지향했습니다. 그 결과 설립 50주년을 맞은 오늘날 ‘선교’는 우리의 뼈와 살을 구성하는 중심 사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계선교 사상은 우리가 만들어 낸 것이 아닙니다. 선교사상은 성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설립자이신 이사무엘 선교사가 반복했던 메시지가 이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복음서를 자주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공부할 때마다 맨 마지막에 주님께서 세계선교를 명령하신 것을 발견했습니다. 당시에는 세계선교를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주님의 명령이었기에 우리는 순종하고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세계선교 사상은 성경을 정직하게 읽고 절대적으로 순종하고자 했던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특별히 4복음서의 말미에 강하게 부각되어 있는 선교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인식했기에, 세계선교는 늘 우리 모임이 나아가야 할 지향점이 되었습니다. 이 지향점은 세계선교가 불가능하게 보였던 1960년대는 물론이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교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가장 훌륭한 사람들, 모임에 없어서는 안 될 기둥 같은 사람들을 아낌없이 세계선교에 드렸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세계 선교를 위

해서 자신의 모든 이상과 소유를 버리고 선교 일선으로 나가곤 했습니다. 개척 초기에는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1970년대에 하나님께서 독일과 미국에 선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1970년부터 미국 나이가이라에서 수양회를 열며 거기에 200명이 참석하게 해 주시도록 기도했을 때 1981년 나이가이라 수양회에 220명이 참석한 기적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1985년 ‘선교보고 대회’에서 이사무엘 선교사는 10년 뒤인 1995년에 모스크바에서 100명이 참석하도록 기도제목을 제시했는데, 1991년 소련과 동구의 공산체제가 무너지면서 1991년 여름에 100여명이 참석한 수양회를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기적적인 역사를 체험하면서 세계선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사라는 것을 깊이 알게 되었고,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일에 계속해서 순종하고자 할 때 극복해야 할 점들도 있습니다. 주로 자비량 선교에서 생긴 문제이므로 이에 대해 방향을 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 2) 자비량 선교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 앞에 ‘자비량’이란 말이 붙는 것은 모든 민족으로 가는 방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가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자비량은 그 방식 중 선교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충당과 관련이 있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가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 비용입니다. 그것은 여행경비에서부터 생활비와 선교비에 이르기까지 모두 포괄됩니다. 이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가 선교사 자신이라는 점에서 ‘자비량’이란 말이 붙습니다. 그러므로 ‘자비량 선교사’란 한마디로 선교에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선교사 자신이 부담하는 선교사란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비량’이란 단어의 예시를 고린도전서 9:7에서 찾습니다.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 떼를 기르고 그 양 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여기서 사도 바울은 ‘자비량’이란 말을 로마 병정들의 군복무에서 따옵니다. 이 말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당시 용병제가 보편적이었던 로마 군 제도를 감안할 때 ‘자비량’으로 군 복무를 한다는 말은 있을 수 없는 말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당시의 정서상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자비량’하면서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고린도 성도들에게는 매우 이상하게 여겨진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에게 뭔가 쟁기는 것이 있지 않을

까 의심했습니다. 그들의 생각대로 ‘자비량’하면서 선교를 다니는 것은 ‘자비량’하면서 군 복무를 하는 것만큼이나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군 복무를 하면 당연히 그에 해당하는 값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자비량’을 고집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9:12에서 바울은 스스로 대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다.” 바울이 제시하는 분명한 이유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도 없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즉 그가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뻘어 나가는데 약간의 장애라도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왜 복음을 전한 대가를 받는 것이 복음에 장애가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는 당시에 로마 제국 전역을 돌아다니며 철학 강연을 하고 돈을 받는 순회 철학자들을 의식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처음부터 복음을 전한 대가로 돈을 받는다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복음도 ‘새로운 사상’(행 17:21) 중 하나로 오해하기 쉬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당시의 철학자들이 전하는 사상과 그리스도의 복음의 차별화를 꾀했습니다. 그가 전하는 내용은 물론이거니와 전하는 방식에서조차 그렇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비량’을 택했습니다. 그는 선교사로서 스스로 자신의 비용을 해결하는 일이 있더라도 절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람들에게 오해를 사는 일은 하지 않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유대교 랍비 출신인 바울에게는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직업이 있었습니다. 그는 텐트를 만드는 일의 전문가였습니다.

우리가 세계 선교에 순종하고자 했을 때 처음부터 자비량 선교를 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탐라국(제주도)과 동남아시아(필리핀)로 첫 선교사를 파송했을 때는 자비량 선교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70년대 초에 들어서면서 자비량 선교로 틀어졌습니다. 그 결정적인 계기는 당시에 서독으로 파견되는 간호사들과 ‘아메리칸 드림’(American Dream)을 꿈꾸며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는 사람들에게서 선교의 가능성을 발견하기 시작하면 서부터였습니다. 그것은 한국 교회의 선교사(史)에서 획을 그을 수 있을 만큼 창조적이며 획기적인 시도였습니다. 그로부터 우리의 선교 정책은 자연스럽게 자비량 선교로 굳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예를 통해서 선교사가 ‘자비량’하는 장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교사가 선교의 대상들에게 자신이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고 선교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만일 선교사가 대가를 얻기 위

해서 일한다는 것이 감지되면 복음을 받는 사람들은 값없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 놓으신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이해에 도달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아무 조건 없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 놓으신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데 아무 장애가 없게 될 것입니다.

이런 본질적인 이점 외에 우리는 부수적인 자비량 선교사의 장점을 몇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물질적인 자립으로 인해 선교비의 부담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둘째로 다양한 나라, 다양한 분야에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셋째로 양적으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적어도 물질적인 부담 때문에 선교사로 파송될 수 없는 원인이 제거되기 때문입니다. 넷째로 자비량 선교사는 반드시 일정한 직업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선교사의 신분만으로 나아갈 수 없는 곳까지(비자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에) 나아갈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다섯째로 믿음과 희생을 겸비한 지도자가 양성된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자비량 선교사는 파송되는 순간부터 자립과 개척을 스스로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믿음과 희생을 자연스럽게 몸에 익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스스로 영적 지도자로 성장해 갑니다.

우리는 그 동안 이러한 자비량 선교의 장점을 잘 살려 한국교회 제일의 선교사 파송 단체가 되었습니다. 오대양 육대주 곳곳의 캠퍼스에 선교 지부가 세워지고 선교사들이 지금도 계속 파송되고 있습니다. 2040년 까지 10만 선교사 파송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 3) 발전적 방향

자비량 선교사의 장점은 주로 선교 초기에 두드러집니다. 반면 그 단점은 선교가 어느 정도 진행 되었을 경우에 두드러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발전적 방향을 찾아야 합니다.

#### (1) 자비량 선교의 장점을 계속해서 잘 살려 나가야 합니다.

선교 대상자들에게 복음의 장애가 없도록 선교사 스스로 별어서 선교하는 일은 매우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자비량 선교사는 많은 시간을 선교비를 버는 데 소모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선교 사역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말씀 연구나 전도, 제

자양성에 일정 시간을 쏟아 부을 수 없는 한계를 지닙니다. 이런 한계를 잘 극복하면서 자비량 선교사의 장점을 계속해서 살려야 합니다.

## **(2) 유급 선교사를 진지하게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자비량 선교사는 스스로 선교비용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어디든지 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선교비용을 충당할 만한 직업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지역이 아니면 선교사로 나아가기가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때문에 선교사들이 선진국 같은 특정 선교지로 파송이 제한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자비량 선교의 장점 곧 자비량 선교사로서 모든 민족, 누구에게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장점이 결국 단점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비량 선교가 매우 어려운 지역은 전략적으로 유급 전임 선교사를 파송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선교사가 일정한 지역에 치우치지 않고 전 세계에 골고루 퍼져서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자립을 하기 어려운 제 3 세계권에 대해서는 전략적으로 유급 전임 선교사를 파송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급 선교사 문제는 우리 모임의 선교 정책에 있어서 중대한 변화를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 **(3) 한국으로 온 유학생들을 양성하여 자비량 선교사로 파송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의 위상이 여러모로 높아 감에 따라 한국으로 유학을 오는 학생들이 최근 몇 년 새 급증했습니다. 이들은 주로 중국과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제 3 세계 국가 출신들, 무슬림 국가 출신들입니다. 이미 이들을 양으로 또는 목자로 양육하고 있는 목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선교적 관심과 양육 프로그램은 아직 초보단계입니다. 이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제자로 양육해서 파송할 수 있다면 세계 선교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에서 볼 때, 세계 선교는 주님의 지상명령인 동시에 우리 공동체를 특징짓는 중요한 사상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자비량 선교 방식을 택해 왔습니다. 이제 선교의 초기를 지나 중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축적된 선교의 장점들을 잘 살리는 동시에 그 동안 드러나 문제점들을 잘 보완하여 앞으로의 50년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UBF가 하나님께서 선교역사에 귀하게 쓰실 그릇으로 새롭게 빚어져야 하겠습니다.

### **III. World Mission and Self Supporting Missionaries**

#### **1. The Spirit of Self-Supporting Missionaries**

“Who serves as a soldier at his own expense? Who plants a vineyard and does not eat of its grapes? Who tends a flock and does not drink of the milk?”(1Corinthians 9:7)

##### **1) World Mission - Great Commission of our Lord as the Basis of our Obedience**

From its early pioneering years University Bible Fellowship adopted this motto: "Bible Korea World Mission." This short phrase summarizes the direction of UBF Mission in this world. World Campus Mission, has become the main focus of UBF ministries in the past 50 years. It is proper to discuss the meaning of World Mission and self-supporting missionaries. Samuel Lee often spoke about how UBF engages in World Mission. This is what he used to say to this effect:

"As we study the four gospels, Jesus' Great Commission is always mentioned at the end of the book. Practically, we were not sure how to obey this command. At that time, nobody could dream world mission. However, in obedience to Jesus' we started praying for world mission work."

Then, we have taken concrete steps to realize God's vision for this world. The jobs that these leaders could take as missionaries are too often humble and difficult. However, many leaders who had chances to go out to any parts of the world receive necessary training for world mission purpose. Those who were sent out are the top leaders who are fruitful and influential. Many gave up their personal plans and dreams for a secure future. In 1981 there was the first UBF Summer Bible Conference in Niagara Falls, Canada. We then began to pray for the Soviet Union. After six years of prayer, with the fall of communism

in the Soviet Union and other Eastern European countries God allowed the first Russian Summer Bible Conference in 1991. It is God who inspired and sent many young people for God's world mission purpose. No UBF chapter is financially capable enough to support all UBF missionaries. Instead, all these missionaries, with few exceptions, went out as missionaries and tent-makers (i.e., self-supporting missionaries).

## **2) Self-supporting missionaries**

Mission work in other countries requires financial support. It is expensive to send full-time missionaries in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From the beginning UBF adopted the principle of self-support for world mission work. These self-supporting missionaries engaged in mission work while finding ways to support themselves in the mission field. In the book of Acts we see many examples of self-supporting missionaries as well.

Apostle Paul was a good example for this. Paul said, "Who serves as a soldier at his own expense? Who plants a vineyard and does not eat of its grapes? Who tends a flock and does not drink of the milk? (1 Cor 9:7). Here, Paul used the term self support in the example of Roman soldiers in Rome. It is rare that soldiers fight for their country with their own expenses. In fact, the Roman Empire hired many mercenaries with money. These soldiers fought for the worth of their salaries and benefits. Thus, Corinthians thought that it was very odd for Paul and Barnabas to preach the gospel while supporting them with their own hard work. They despised such sacrificial work of mission as cheap and worthless. From their perspective, doing mission work through self-support (note that Paul did as a tent maker) was just like serving the army with their own expenses.

Nevertheless, Paul said, "If others have this right of support from you, shouldn't we have it all the more? But we did not use this right. On the contrary, we put up with anything rather than hinder the gospel of Christ" (1Cor 9:12). Paul engaged in mission work through self-support for the sake of the gospel of Jesus Christ. He did not want to burden young Christians in Corinth with any financial burdens. In Paul's time there were so called philosophers who earned money by going around in the empire with their lecture tours. If Paul had earned the money after preaching the gospel, people might have regarded the gospel of Jesus no more than a new idea for mere intellectual curiosity.

Instead, Paul wanted to show the supreme value of the gospel in contrast to such human philosophies and teachings. He wanted to be pure both in content of the gospel and the manner he preached it. So he chose self support methods of preaching the gospel through his professional work as a tent-maker.

The first two missionaries sent to Jeju Island and the Philippines at Southeast Asia were not self supporting missionaries. However, from the early in 1970s, self-supporting missionaries have become a norm for all missionaries. The German government accepted nurses and miners from Korea. Doors for immigration to US in the form of nurses, doctors and other professionals were open as well. The UBF mission strategy is to utilize these available routes as leaders sense God's leading for different countries for his mission purpose.

Paul in the book of Acts showed the specifics of a self-supporting style of mission (i.e., tent makers). It was both for individual freedom and the needs of the mission fields. Paul could preach the gospel with a clean conscience while giving no real burdens to young believers in the mission fields. By preaching the gospel for free of charge, Paul preached the gospel with a greater sense of freedom and joy. He was free to move anywhere as needed. He preached the gospel of Jesus Christ through his personal example of sacrifice and devotion. Later, these young believers also followed the example of Paul in adopting the life of sacrifice and devotion for the gospel as well.

There are several other practical reasons why UBF has adopted self-support as a principle of mission strategy. First, self-supporting missionaries are financially responsible and spiritually independent. Second, self-supporting missionaries quickly adapt to diverse cultural and social requirements at the mission fields. Third, self-supporting missionaries enable sending chapters to deploy their resources for special care needs of missionaries (e.g., healthcare, children's education). Fourth, self supporting missionaries are free to enter many countries which do not allow the activities of missionaries from foreign countries. Fifth, self-supporting missionaries raise other native leaders who are also responsible, independent and hard working. Self supporting missionaries impart a spirit of sacrifice and dedication to other leaders as well. Through their life of devotion, native leaders in the



mission fields also become capable fellow co-workers for the gospel.

UBF has become one of few mission organizations that practiced such a principle of self-support. In this way, UBF has established active chapters in many parts of the world. Thus, we are quite encouraged to pray for raising up 100,000 missionaries by 2041.

### **3) Issues and Prospects for the Future**

The principles and effects of self supporting missionaries are remarkable in the early stage of mission. As ministries grow beyond the pioneering stage, practical issues in terms of quality, succession, and growth require careful attention. Several issues and prospects for future are discussed here.

#### **(1) Examine quality ministry issues for self-supporting missionaries.**

It is desirable that self-supporting missionaries establish key leaders through their hard work and sacrifice. However, as the number of people in a mission field grow to even hundreds of people, serious quality issues arise. As self-supporting missionaries spend much time for their jobs, they experience serious limitations in providing quality pastoral care, devoting to prayers and in-depth Bible studies, or having adequate time for their essential family needs. Thus, at some point self-supporting missionaries alone can no longer serve the complex needs that arise for growing needs.

#### **(2) Consider fully supported missionaries for strategic focus.**

Self-supporting missionaries may go any place with their hard work in any mission fields. On the other hand, not all mission fields allow self-supporting missionaries to support themselves and do the demanding work of mission. In certain parts of Africa, Latin America, Middle East or CtS countries, it is not possible for missionaries to make enough money to support their families. Thus, self-supporting missionaries tend to be concentrated in advanced nations such as North America and Europe. On the other hand, where missionaries cannot support themselves and their mission may hinder people going into the countries where missionaries are really need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end fully supported missionaries for strategic reasons.

**(3) Raise up international students and send them as self supporting missionaries.**

With the growing economic clout of Korea, many international students come to Korea for study and research. Many of them are from Asia, Africa and Latin America including Muslim countries. Many of them are currently studying in different chapters in Korea. This is true in North America and European countries. It is to be seen if these international students are raised as capable leaders for their own countries or they merely rather stay in the countries where they receive their education. This needs further study.

The Great Commission (preaching the gospel to all nations) is from our Lord Jesus. This focus on World Mission is what characterizes UBF as a community of believers. Our self-supporting mission strategy is an important principle of UBF. As we move beyond the early stage of pioneering mission, it is critical to strengthen the spirit of self-support while paying attention to growing quality issues and strategic needs. May God lead UBF leaders to face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in the next fifty years with a humble dependence on God and earnest prayers for Christ and his kingdom.

## 2. UBF의 전문인 자비량 선교역사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사도행전 1:8).

우리 주님은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복음 전파의 절대 명령을 주셨습니다. 선교는 문화권을 초월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이므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이 명하시는 곳으로 가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자비량 선교역사는 자발적으로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무익한 종으로 헌신하고자 하는 믿음과 결단에 의해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또 이것은 성령님이 친히 주도하시는 사역입니다. 하나님은 지난 50년간 UBF 자비량 선교사들을 쓰셔서 현재까지 75개국을 개척하며 현지 캠퍼스 목자들을 계승자로 세우는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이제까지 이루신 전문인 자비량 선교역사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향후 50년을 바라보며 자비량 선교역사에 대한 큰 비전과 분명한 기도제목을 찾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 1) 평신도 자비량 선교사 파송의 필요성

선교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따라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주님의 증인이 되고자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는 종들이 쓰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선교사가 되기까지 순수한 인생목적과 절대적인 사명감과 선교 현장에서 적응하여 자립하며 선교지 영혼들을 섬기는 자세를 배우는 것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선교사의 영육간의 자질을 갖추도록 양성해야 합니다. 이때 평신도 자비량 선교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선교지의 제한이 없습니다.

회교권 나라나 중국 등 폐쇄적인 나라는 목회자나 선교사를 허용하지 않으므로 평신도 자비량 선교사 파송이 효과적입니다.

#### (2) 선교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선교를 물질 지원을 전제로 한다면 순수하게 오직 믿음으로 선교명령에 순종하여 나간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문인 자비량 선교는 이런 점에서 순수하게, 또 믿

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선교비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질 지원에 의존할 때 선교사 파송이 제한 받기 쉽고 또 물질지원의 필요성을 인위적으로 판단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자비량 선교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자비량으로 선교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만큼 굳건한 절대복음 신앙과 헌신할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선교지로 파송되기 전 필요한 성경지식과 성경적 가치관의 정립과 복음에 대한 체계적인 신앙의 확립이 필요합니다. 또 성경을 스스로 공부하고 가르칠 수 있는 영적 자립 훈련, 제자 양육의 훈련, 기도 훈련 등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파송을 받는 선교후보들은 평소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훈련 받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또한 파송 받은 후에는 현지 어학 정복과 현지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목자가 되고자 애를 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국 동역자들은 나대신 먼저 선교 역사를 감당하는 선교사들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랑과 기도 지원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 2) UBF 자비량 선교역사

지난 50년 동안 UBF 개척 선교사들의 자비량 선교 역사를 되돌아볼 때 이는 성령님께서 친히 하신 위대한 역사에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설립자이신 이사무엘 선교사도 초창기에는 가난한 대학생들을 섬기기 위해서 여러 아르바이트를 하며 자비량으로 사역을 감당하심으로써 본을 끼치셨습니다. 또 대학생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믿음으로 자비량 선교사를 파송하였습니다. 가난한 대학생들에게 가난의 운명주의를 극복하고, 얻어먹고자 하는 거지근성을 버리고 남을 돕고자 하는 지도자의 자세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인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는 비전을 심어주셨습니다. 이 비전에 힘입어 단일 선교단체로서는 최대의 전문인 자비량 선교사 파송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자비량 선교역사는 1969년 서인경, 설동란, 이화자 3명의 간호사들이 서독을 취업하여 나감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당시 우리는 세계선교 명령에 어찌하든지 순종하고자 밤낮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선교사를 파송하느냐’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가난한 한국에서 국내 선교하기에도 벅찬데 무슨 세계선교냐’며 비웃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이사무엘 선교사는 지상명령에 어찌하든지 순종하기 위해

독일에 간호사로 가는 자매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서 선교사로 파송하였습니다. 이것은 오천 명을 먹이는데 오병이어를 드린 안드레의 믿음과도 같았습니다. 세 명의 간호사들은 독일에 가서 낮에는 병원에서 밤에는 기숙사에 모여 성경을 읽으며 합심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그들의 좋은 영향력으로 낯선 땅에서 외로운 간호사들이 성경읽기 모임에 참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은 독일에 광부로 와 있던 형제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3년 뒤 1972년부터는 체계적으로 훈련 받은 선교사들이 합류하면서 현지인 복음 전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돈을 벌어 가족을 부양하거나 자신들의 꿈을 이루고자 독일에 갔는데, 성경공부를 통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찾고 주님과 복음사역에 자하여 위대한 믿음의 종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연약하였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힘났는데, 독일 지성인들이 말씀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1974년 첫 스위스 국제 수양회 때 150명이 참석하였고, 부다음 프랑크푸르트 제 2회 수양회 때는 독일인 50명을 포함하여 230명이 참석하는 큰 사역을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초기 개척역사를 섬긴 선교사들은 근무 연한을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섬들의 선교의 열정0명이으시고 미국의 선교사로 나갈 길0명다시 열어주셔서 미국 선교 역사에도 귀하게 쓰셨습니다.

1977년 이사무엘·그레이스 선교사들이 미국 시카고 선교사로 파송됨으로써 선교사역은 더욱 활성화되었습니다. 1985년 서울에서 열린 제 8회 세계선교보고대회에서 이사무엘 선교사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행 19:21)는 말씀에 기초하여 10년 후인 1995년까지 ‘모스크바도 보아야 하리라’는 비전을 주었습니다. 즉 공산주의 종주국인 소련에 선교사를 파송하여 주시도록 기도제목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러시아 빵을 먹고 러시아 댄싱을 배우며 러시아 노래를 들으며 러시아 개척역사를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소련과 수교도 되기 전인 1990년에 처음으로 유학생 선교사 한 사람을 모스크바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다음 해에는 30여명의 자비량 선교사들이 모스크바에 입성하는 기이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한 1992년에는 중국에도 첫 자비량 선교사를 파송하였습니다. 1996년에는 아프리카에서 14개국 14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 1회 UBF 아프리카 수양회를 가졌습니다.

2006년 6월, 서울에서 열린 제 12회 선교보고대회 때는 자비량 선교사 800여 명을 비롯한 6000여명의 회원들이 모인 선교대회를 열었습니다. 이곳에 참석했던 많은 젊은 이들이 자비량 선교의 소명을 영접하고 비전 가운데 선교사로 파송 되고자 결단하였

습니다. 지금까지 92개국 300여 지역에 1700여명의 선교사가 파송되어 다양한 직종으로 자립하며 현지 대학생들과 성경공부를 통해 제자 삼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 3) 자비량 선교의 특징

#### (1) 물질을 자립하며 현지 선교사역에 헌신합니다.

자비량 선교사들은 직업을 통해 자비량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지만 틈틈이 시간을 내어 현지 대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칩니다. 파송 받은 지역이 어느 곳이든지 현지 대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가정과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양육하고 유학생인 경우는 학문의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말씀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선교사들은 5중, 6중의 무거운 십자가를 지면서도 변함없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빛진 자의 심정과 부르심의 은혜에 대한 순종과 충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을 본받고 따르는 제자로 헌신하기 때문입니다.

#### (2) 현지 대학생 제자양성을 사역의 목표로 합니다.

선교사들은 현재 대학생들을 제자로 양성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현지 언어 정복을 1차적 목표로 삼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자기 한계에 도전하고 세상 문화 세력에 도전하며 죄와 사탄의 세력에 도전하여 양들을 구원하고자 순교자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해산의 수고를 통해 현지 대학생들 가운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님의 제자로 헌신하는 생명의 열매들을 맺게 된 것입니다.

#### (3) 선교지에서 뼈를 묻을 각오로 한곳에 뿌리내려 사역을 섬기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자비량 선교사로 사역하다가 때로는 직장을 잃기도 하고, 사업에 실패를 하기도 합니다. 생존이 막막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선교사들은 이 모든 역경 가운데서도 자신을 선교사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선교 현지에서 뼈를 묻을 각오로 믿음으로 남아서 캠퍼스 개척역사를 섬기고 있습니다.

#### (4) 선교를 위해서라면 어떤 직업이든 바꾸어서라도 섬기는 선교의 열정을 지니고 있습니다.

1980년대 초 캐나다 선교사 23명은 현지 봉제공으로 취업하여 들어갔고, 어떤 선교사는 도계공(닭 잡는 사람)이 되어 선교지로 나아갔습니다. 그들 중 어떤 선교사는 박

사과정을 밟던 것을 포기하고 단기 집중 봉제공 훈련을 받고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아무도 이들을 이해해주지 않았고 말렸으나 이들은 선교사로 쓰임 받는 자체를 영광으로 여기고 직업의 귀천에 상관없이 현지에서 낯은일을 하면서까지 자립을 했습니다. 후에는 대학생 전도를 잘 할 수 있는 직업으로 바꾸어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 **(5) 선교사 자녀들을 ‘2세 선교사’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은 가정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교회로 인식합니다. 그들은 자녀들과 함께 예배와 말씀공부와 기도에 동참합니다. 그 결과 자녀들이 대학생활을 할 때나 졸업 후에는 본격적으로 ‘2세 선교사’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부모의 세대가 겪었던 언어와 문화 장벽도 없이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역사를 섬기는 든든한 동역자요 유능한 성경선생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 **(6) 현지인 리더들이 제 3국에 자비량 선교사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UBF 선교사역의 새로운 획을 긋는 새 역사의 시작입니다. 이 역사를 보면서 각 지역의 현지인 출신 선교사들을 통해 2041년까지 10만 명 선교사 파송의 기도제목이 이루어질 환상을 보게 됩니다. 현지인 리더들이 제 3국에 파송된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멕시코: 에프라인(페루), 이시드로(엘살바도르), Jorge Antonio(도미니카 공화국)

우크라이나 키예프: 제임스 포인트(터키), 안톤(이탈리)

필리핀: Gideon · Evelyn Montefalcon(UAE)

인도: 마태오 썩(포르투갈), 아브라함 링컨, 모세스 랑탕(미국)

미국: Don · Hannah Kuper(아르헨티나), John · Maria Peace(우크라이나), Chris Sagel(한국), Siegmund Goddard(일본), Mike Thompson(St. Petersburg), Moses · Iris Maji(Sudan), Ray · Tsukasa Grondin(Japan), Steve · Allison Haga(Taiwan), Bob · Todgerel Von(Mongolia), Philip Brown(China), Wynelle Nett, Sarah Youk, Mike Staats(Germany), Moses · Sarah Chang(Belize), William · Marie Kim(Indonesia)

#### **(7) 실버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본국에서 직장생활을 마치고 은퇴하게 되었을 때 다른 나라에 실버 선교사로 파송 받아 현지 캠퍼스 전도 및 제자양성 사역을 섬기는 종들을 보내고 계십니다. 임이사 선교사 가정(광주, 키르기스스탄), 정요셉 선교사 가정(시카고, 우간다), 장모세 선교사 가정(워싱턴, 벨리스(Central America)).

그들은 타 문화권에서 오랫동안 선교사로 살아온 풍부한 경험과 숙달된 언어로 노년에도 새롭게 자비량 선교사로서 헌신하는 위대한 선교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연륜이 쌓인 단련된 중들을 통해 더 많은 실버 선교사들이 탄생할 것입니다.

UBF 자비량 선교사를 직업별로 살펴보면 간호사,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 등 전문직에서부터 사업가, 자영업 등 개인 사업가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다양한 종류들입니다. 이것은 복음만 가지면 어떤 직업에 종사하더라도 선교사로 나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향후 50년 선교역사를 바라보며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봅시다.

#### 4)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점

(1) 자비량 선교를 감당하고자 할 때 너무나 장래의 안정에 매여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직장이 보장되는 곳으로만 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물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믿음을 앞세우지 못합니다. 단순한 선교명령보다 자기기호나 자기 계획을 앞세워 자기 이상을 좇아 나가기도 합니다.

(2) 선교지에서 동역하려는 자세로 먼저 하나님의 역사를 세우고자 하기보다 개척을 나가 세움 받고자 하여 동역의 그릇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3) 자립에만 열심을 내어 선교사명을 소홀히 하며, 자기중심적이 되어 동료 선교사들을 낙담시키는 일도 있습니다.

이런 일 때문에 선교역사에 견고한 그릇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각개전투로 힘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는 길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주권신앙을 가져야 하고, 헌신의 각오와 결단이 준비되고, 구원의 은혜와 부르심의 은혜에 대한 뿌리가 견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파송 받은 센터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수시로 선교사들과 영적 교제를 나누며 신앙성장을 도와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세계선교는 하나님이 친히 명하신 절대명령입니다. 다만 파송되는 그룹이나 지원 그룹이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세계선교 역사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개인과 모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2. A Brief Overview Of UBF Self-Supporting Mission**

“But you will receive power when the Holy Spirit comes on you; and you will be my witnesses in Jerusalem, and in all Judea and Samaria, and to the ends of the earth”(Acts 1:8).

Our Lord told his disciples to preach the gospel to his disciples just before his ascension. The mission is to preach the gospel transcending cultural areas. It starts from leaving our country, our people and our father's household and going to the land that God commands us to go. The history of self-supporting mission is done by those who have faith and decide to obey Jesus' last command voluntarily as unworthy servants. It is also led by the Holy Spirit. God has used UBF self-supporting missionaries for the last 50 years to pioneer 75 countries with the gospel and to raise up native shepherds who succeed the ministry. When we look back on the history of self-supporting mission that God has done so far, we give glory to God. We pray that we may have a chance to have a great vision of self-supporting mission and clear prayer topics for the future 50 years.

### **1) The necessity to send out self-supporting missionaries**

The mission work is the work of the Holy Spirit. Therefore it is obvious that we receive power when the Holy Spirit comes on us and that those who obey God only by faith are used by him. But it is necessary to have a pure life purpose and absolute commitment to God's mission and the attitude to serve God's sheep while being adjusted and supporting themselves in the mission fields. For this, we need to raise up missionaries who have spiritual and practical qualifications as missionaries. Why is self-supporting mission necessary?

#### **(1) Self-supporting missionaries fit to many challenging mission fields.**

Muslim countries and China do not allow missionaries and pastors to come to their countries. So sending out self-supporting lay missionaries is effective in those countries.

## **(2) Self-supporting missionaries are responsible for actual costs of mission work.**

We cannot say that missionaries go to the mission field to obey the world mission command only by faith if money for their mission work is supposed to be paid for them. But self-supporting mission can be the way to obey God's command by faith in this matter because there is no problem in paying the money for mission work. self-support depend on material support, the money limitations in sending out missionaries and interfere with the guidance of the Holy Spirit while thinking of the necessity of money. On this point, self-supporting mission has merits.

However, we need to keep essential principles for mission work. Missionaries need to have absolute gospel faith and decision to commit themselves to God's mission because they need to serve the mission in supporting themselves. It is necessary for missionaries to have the Bible, and to have a biblical value system and faith in the gospel systematically before being sent to the mission field. They need to be trained fully in order to be spiritually independent to study and teach the Bible by themselves, to raise up disciples and to pray. Missionary candidates need to have a sense of problem and train themselves before being sent. And after being sent as missionaries, they need to struggle to master the language and to grow as influential shepherds in the society. Coworkers in mother chapters need to respect and support missionaries who serve mission work in our situation out of love and by praying for them.

## **2) UBF Self-supporting mission**

When we look back on the history of self-supporting mission by UBF pioneering missionaries, we are moved by the great work of the Holy Spirit. Samuel Lee, the founder, became a good example of serving a self-supporting mission by doing many kinds of part time jobs in order to serve poor campus students in the early time of UBF history. He taught university students the word of God and sent them as self-supporting missionaries by faith. He taught them to overcome fatalism that came from poverty and the beggars' mentality and taught them the attitude of leaders to help others. He planted God's hope and vision for them to be a kingdom of priests and a holy nation in their hearts. God blessed UBF to send out the most self-supporting missionaries as a mission

organization.

The history of self-supporting mission started in 1969 by three nurses: In-kyung Suh, Dong-ran Seol, Hwa-ja Lee who went to West Germany to work. At that time we had been praying day and night in order to obey Jesus' world mission command. But how to send out missionaries was another problem. People laughed at us saying, "How can you serve world mission in such a poor country as Korea when evangelizing people in our own country is not easy?" But Samuel Lee heard that there were some female nurses who were going to Germany and taught them the Bible and sent them out as missionaries in order to obey Jesus' world mission command. This was like the faith of Andrew who brought five loaves and two fish to Jesus to feed five thousand. These three nurses gathered together in the hospital in the daytime and in the dormitory at night and read the Bible and prayed together. Because of their good influence, other nurses who were lonely in a foreign country began to join their Bible-reading meetings. They preached the gospel to other men who came to Germany as miners.

Well-trained missionaries joined them in three years later in 1972. In this way they could preach the gospel to native German people. They went to Germany to support their family earning money or to achieve their dreams. But they found out the meaning and purpose of their lives through Bible study and became great servants of God who dedicated themselves to support the gospel ministry. Even though they were weak, the power of God had power. Gradually German people listened to the power of God and came back to God. 150 people ended in the first international Bible conference in Switzerland in 1974. And 230 including 50 German people ended the 2nd Bible conference in Frankfurt the next year. Missionaries who served early pioneering came back to Korea when their contract was finished. But God received their part of their world mission and opened another door in their lives through so America and themselves precious in the history of American mission.

The history of world mission was more activated when missionary Samuel Lee and Grace Lee were sent to Chicago, America in 1977. The 8th world mission report was held in Seoul in 1985. Samuel Lee gave us vision to pioneer Moscow also in 10 years by

1995 based on the word of God “I must visit Rome also” (Acts 19:21). He suggested a prayer topic that God could send missionaries to the Soviet Union, the birthplace of communism. According to this prayer topic, we ate Russian bread and learned Russian dances and heard Russian songs and prayed to pioneer Russia with the gospel in one heart and mind. God helped one student missionary to go to Moscow in 1990, even before Korea established diplomatic ties with Russia. Amazing work was done in the next year. 30 self-supporting missionaries went Moscow. God sent the first self-supporting missionary to China in 1992. The 1st Africa Bible conference was held in 1996 with 146 attendants from 14 countries. 6000 members including 800 self-supporting missionaries gathered together in the 12th world mission report in Seoul, in June, 2006. Many young men accepted God's calling for self-supporting mission and decided to be missionaries. Around 1700 missionaries have been sent to around 300 areas in 92 countries so far. They are carrying out God's mission to raise Jesus' disciples by studying the Bible with university students in their mission fields while supporting themselves in working in various areas.

### **3) Characteristics of self-supporting mission**

#### **(1) Responsible, sacrificial and independent for mission.**

Self-supporting missionaries get jobs and support themselves. They spend most of time in their working places. But they make time to teach the Bible to college students in their mission fields. They need to be ready to teach the Bible to college students wherever they are sent. They take care of their children and help them to grow in their faith. Student missionaries carry heavy cross of studying. They need to prepare messages to deliver at worship services every Sunday. In this way, missionaries carry 5 or 6 crosses. But they serve God's mission faithfully. What enables them to do it all is their debtor's heart to Jesus for the saving grace and their obedience to God's calling and their faithfulness. It is possible because they dedicate themselves to Jesus as his disciples who imitate and follow him.

#### **(2) A practical example in raising native leaders.**

To master language is the first basic goal that missionaries need to achieve in order to raise disciples among native students. They challenge themselves to overcome their own

limitations and challenge the power of the culture, the world, and, Satan so that they can save God's sheep. Their lives are like those of martyrs. Because of their labor of love which is like birth pain, they bear the fruit of life; native campus students repent and are raised up as Jesus' disciples.

**(3) Dedication to the chosen mission field (A decision to serve until buried).**

Sometimes missionaries lose their jobs or fail in their businesses while serving self-supporting mission. Sometimes there seem to be no way to survive practically. But they stay in their mission fields and serve campus pioneering ministry with the decision to bury their bones there in spite of these difficulties because of God's calling for them to be missionaries.

**(4) Flexibility to adapt to the contexts of mission fields.**

23 missionaries went to Canada as workers in sewing companies in the early 1980s. Some missionaries went to their mission fields as the workers who killed chickens. Among them, some gave up on their Ph.D course and received training to use sewing machines and went to their mission fields by faith. Nobody understood them. They rather told them not to do it. But they regarded being used by God as missionaries as glorious and worked hard to support themselves in unpleasant jobs. Later they got jobs that were helpful for them to reach out to campus students and they became influential in their fields.

**(5) Prayer for children for continuous mission work (2nd generation missionaries).**

Missionaries consider their family as a house church to worship God. They have worship services and study the Bible and pray together with their children. As a result, their children dedicate themselves to God as 2nd generation missionaries when they enter universities and after they graduate. They don't have the language or cultural barrier that their parents had. They are growing as good coworkers and Bible teachers to preach the Gospel to native people and to serve the ministry.

**(6) Native leaders for self-supporting missionaries in other countries.**

This is the beginning of a new history in UBF world mission. We can see God's vision to send out 100,000 missionaries by the year 2041 when we see native missionaries sent

to other countries:

Mexico: Efrain (Peru), Isidro (El Salvador), Jorge Antonio (Dominican republic)

Ukraine: James Point (Turkey), Anton (Italy)

Philippines: Gideon · Evelyn Montefalcon (UAE)

India: Matthew Sing (Portugal), Abraham Lincoln, Moses Lengthan (USA)

USA: Don and Hannah Kuper (Argentina), John and Maria Peace (Ukraine), Chris Sagel (Korea), Siegmund Goddard (Japan), Mike Thompson (St. Petersburg), Moses and Iris Maji (Sudan), Ray and Tsukasa Grondin(Japan), Steve and Allison Haga (Taiwan), Bob and Todgerel VonMoss (Mongolia), Philip and Sarah Brown (China), Wynelle Nett, Sarah Youk, Mike Staats (Germany), Moses and Sarah Chang (Belize), William and Marie Kim(Indonesia).

#### **(7) Opportunities for silver missionaries**

God is sending out silver missionaries to other mission fields when they retire from their jobs. They preach the gospel in their new mission fields and serve discipleship ministry there. Missionary Isaac Lim's family from Kwangju was sent to Kyrgyzstan. Missionary Joseph Chung's family from Chicago was sent to Uganda. Missionary Moses Chang's family from Washington was sent to Belize in Central America. They are good examples as silver missionaries. They are experienced missionaries and are fluent in languages. They live great missionary lives newly dedicating themselves as self-supporting missionaries in their old age. There will be more silver missionaries among experienced and well-prepared servants of God.

UBF self-supporting missionaries have various kinds of jobs from professionals such as nurses, doctors, dentists and oriental doctors to businessmen, etc. This fact shows that we can be missionaries in any vocations as long as we have the gospel. Let's think about what we need to prepare for world mission in the next 50 years.

#### **4) Practical issues for self-supporting mission**

**(1) We tend to go to the mission fields where we are guaranteed to get jobs to support ourselves and for future security instead of following God's calling.**

Then it's easy to depend on materials and men, not putting faith before them. Instead of following God's world mission command simply, we put our own plan before God's world mission command and follow our own ideals.

**(2) When people want to pioneer a new chapter instead of establishing the work of God by coworking well, they cannot make a good vessel of coworking.**

**(3) It happens that they neglect their mission in doing their jobs only. In this way they become self-centered and discourage their fellow missionaries.**

These things prevent missionaries from making a holy vessel to serve God's ministry so that they cannot be in one heart and mind but trying to struggle individually. The way to overcome these problems is for missionaries to have faith in God and his sovereignty, to be ready to dedicate themselves to God's world mission and to stand firm on his saving grace and calling. They need to keep contact with their mother chapters and mother chapters need to share spiritual fellowship with their missionaries and help them to continue to grow in their faith.

In conclusion, God gives us the world mission command that we should obey absolutely. We can be in the group that are sent as missionaries or in the group that support missionaries. We need to fulfill God's will by obeying world mission.

## 제 4장 공동체 정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요한복음 13:35).

우리는 ‘합심’ ‘동역’이라는 말을 즐겨 사용합니다. 지금도 ‘아내’나 ‘남편’이라는 말보다도 ‘동역자’라는 말을 더 자연스럽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임이 끝날 때마다 기도를 하는데 대개는 여럿이 ‘합심’ 기도를 합니다. 개척기에는 각 요일마다 소모임을 갖고 일용할 양식이나 주일 메시지에 대한 소감을 발표하고, 발표한 사람들의 기도 제목을 갖고 또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이 모임을 ‘월요회’, ‘화요회’, ‘수요회’ 등 ‘요회’라고 부릅니다. 각 요회는 소감을 발표하고, 교제하고, 역사를 의논하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사랑의 공동체로 성장했고, 우리 조직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던 밑바탕에는 적극적으로 주는 삶을 살기 위해 애쓰고, 구유에 오신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하고 검소한 삶을 살고자 하는 ‘구유 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장막 공동생활’은 이러한 정신과 삶을 실천하는 훈련의 장이 되었습니다.

### 1. 주는 정신

#### 1) 주는 삶을 실천하기 위한 몸부림

개척기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가장 많이 공부한 성경 말씀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마가 6:37a)는 예수님의 말씀일 겁니다. UBF의 주는 정신은 1963년의 한 사건에서부터 싹텄습니다. 배사라 선교사는 학생들에게 비용을 거두어서 프린트를 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사무엘 선교사는 학생들이 가난하기 때문에 돈 많은 선교사가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날 밤 이사무엘 선교사는 괴로운 마음으로 성경을 읽다가 위대한 정신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즉 주는 정신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위해 당신의 외아들을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 모든 것을 주셨고, 마침내는 자기 생명까지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마가 6:37a)는 말씀을 비롯해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주는 정신을 가르치셨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행전 20:35)는 주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주는 생활



을 실천하며 자비량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 밤에 무등산에 올라가 밤새도록 풀뿌리를 뜯으며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와 전날 밤에 읽었던 말씀들을 전하면서 외쳤습니다. “문둥이처럼 오 그라진 손을 펴서 우리도 주는 자가 됩시다.” 그리하여 그 날부터 주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주는 자가 됩시다.” “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는 말이 인사말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는 삶을 실천하고 외부의 지원 없이 자립하기 위해 선교 헌금을 시작했습니다. 또 대학생들에게 성경적인 물질관을 가르치기 위해 새로 나온 사람에게도 처음부터 선교 헌금에 동참하도록 권했습니다. 학생들은 버스 값을 아껴서 헌금했고, 자신이 정한 날짜에 헌금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제 사업을 통해서도 주는 정신을 실천했습니다. 성탄 때마다 양로원과 고아원을 찾아 구제했고, 또 거리에 나가 걸인들을 초청하여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나중에는 방글라데시, 에티오피아, 멕시코, 소말리아, 북한 등을 위해서도 마음으로부터 주는 삶을 실천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원조를 받기만 했던 나라 미국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들을 위한 ‘센터’를 마련하기 위해 헌금도 보냈습니다.

주는 정신은 우리로 하여금 의존심을 벗고 자립적인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당시 한국 교회는 받는 데 익숙했습니다. 복음도 받고, 선교사도 받고, 구호물자도 받고, 사랑도 받고, 위로도 받고, 받고자 하는 마음이 많았습니다. 이런 시대에 주는 정신은 시대에 대한 도전이요,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의존심과 운명주의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주는 정신은 의존심과 운명적인 생각으로 병든 대학 지성인들을 일깨웠습니다. 또 주는 정신은 오늘날 각 지구가 자립 역사를 이루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건강한 공동체도 이루었습니다.

## 2) 주는 생활을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한 제안

### (1) 물질뿐만 아니라 사람을 지원하는 일에도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성장하는 일에 힘을 쏟다보니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일에는 상대적으로 부족해 진 점도 있습니다. 자기 일에 바쁘다 보니 다른 동역자를 돌보고 도와주고자 하는 정신이 약해지고, 공동체 정신도 약해지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는 다시 초기 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개척 지구를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합니다.

(2) 주는 정신을 실천하되 예수님의 은혜에 기초하여 ‘기쁨’과 ‘자발성’을 갖고 주고자 해야 합니다.

주는 정신이 좋은 것이지만 자칫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심리적 박탈감에서부터 자신이 많이 바쳤다는 의를 주장하는 데까지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의 아름다운 공동체 정신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주는 정신에 대한 동기 유발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즉 “왜(why) 주어야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설명과 이해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런 마음에서 주면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가 품격 있는 사람으로 자랄 수 있습니다.

## **IV. The Power and Influence of Believing Community**

“By this all men will know that you are my disciples, if you love one another”(John 13:35).

We often say these words; unison and coworking. It is more natural for us to say "my coworker" than "my wife" and "my husband." After meeting we always pray and mostly together in one spirit. During the period of pioneering, everyday we shared daily bread and sogam writing based on a Sunday message and prayed together with prayer topics in small group meeting. We called this meeting fellowship. We called Monday fellowship which was held on Monday. In this way, there was the Tuesday fellowship, the Wednesday fellowship, etc. Each fellowship continued to grow as a community filled with love having fellowship, discussing God's ministry and praying together, and it became the basis of our organization.

The foundation of our community was a manger spirit which means to make every effort to give to others and learn Jesus who was placed in a manger. Also our communal living was a way of disciplining in this spirit and life-style.

### **1. Life-Giving Spirit**

#### **1) A struggle for giving one's life**

We learned from God's word, “You give them something to eat” (Mk 6:37a). The life-giving spirit of UBF sprang up from an incident in 1963. Mother Barry told missionary Samuel Lee to buy a printer with money gathered from students. But he told her that a missionary should pay money because most students were poor. That night Samuel Lee realized one great thing reading the Bible in painful mind. God gave his one

and only son for sinners. Jesus came to this world and gave his everything to sinners. Finally he gave his life for us. Jesus taught a life-giving spirit to his disciples with many words including “You give them something to eat”(Mk 6:37a). Also after Paul accepted Jesus' word "It is more blessed to give than to receive" (Ac 20:35) he fulfilled a giving life and became a lay-missionary.

That night Samuel Lee climbed Moodeung Mountain and repented of his sins while crying and plucking up grass roots all night. After coming down from the mountain he preached the words that he read that night. “Open our leper's shriveled hands and let's be a giver!” After that day a movement for giving started. These words of “let's be a giver” and “it is more blessed to give than to receive” became greeting words in our community. We started to make an offering for world mission without any help from others. And we made an effort to teach monetary value system to students. So we helped new comers to join in making an offering for world mission. Students saved bus their fare and worked part time for this offering.

Furthermore we practiced a life giving spirit through relief work. Every Christmas we visited orphanages and nursing homes and gave aid to them. Also we invited beggars and had a party for them. Also we offered to Bangladesh, Ethiopia, Mexico, Somalia and North Korea etc. Especially we sent missionaries to the US. We always received assistance from them and we sent money to build up new centers there. A life-giving spirit made us independent and took the places of our dependence. At that time most Korean churches were used to receiving. They wanted to receive the gospel, missionaries, relief supplies, love and consolation. Therefore a life giving spirit was the challenge to the spirit of that time and to fatalism and dependence spirit. A life giving spirit aroused university students who were sick in fatalism. Also a life giving spirit became the basis of our self-supporting ministry in each center and made our community healthy.

## **2) Suggestions for enriching A giving life**

### **(1) The priority of serving people in love more than with money.**

We have made an effort to grow. So relatively we lack in taking care of others. We

cannot help admitting that we become weak in helping coworkers and our community spirit is being weakened. Therefore we have to go back to the spirit of our pioneering period. Concretely we have to seek ways actively to support pioneering chapters.

**(2) Practice giving with joy and a willingness based on the grace of Jesus.**

A life-giving spirit is our precious spiritual asset. On the other hand it could make us burdensome. It could cause several side effects. Some people suffer from psychological deprivation and some people insist on their self-righteousness. Because of these side effects our beautiful community spirit can be damaged. To overcome this problem, we should be motivated for our giving life. In other words, the clear explanation and understanding of "Why should we give?" is a prerequisite. A giver and a receiver can grow up to be noble persons if a giver helps others with pleasure and willingness.

## 2. 구유 정신

### 1) 구유 정신은 겸손하고 검소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누가 2:12). 이 말씀 또한 우리가 가장 많이 공부하고 순종하기 위해 애쓴 말씀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겸손하고 검소한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주님과 양들을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캠퍼스 영혼들에 대한 상한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낮아져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구유와 같은 작은 전셋집을 얻어 양들을 섬겼습니다. 가난했지만 물질과 시간을 드려 양들을 섬겼습니다. 이런 삶 속에서 동지애가 싹트고, 사랑의 공동체로 서 갔습니다. 또 양들은 감동을 받아 목자요 지도자들로 성장하였습니다.

### 2) 구유정신을 발전시키기 위한 제안

#### (1) 서로를 배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가진 사람들은 못 가진 사람을 배려하고 좀 더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한편 못 가진 사람들은 가진 사람들이 베풀지 않는다고 원망하거나 그들에 대해 열등감을 갖기보다 그들을 인정해 줄 수 있는 내적인 여유가 필요합니다. 또 섬기고 희생하는 삶 자체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서로의 배려 속에서 사랑의 공동체가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 (2)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물량주의, 성공지향주의 영향이 교회에까지 파고들어 교회에서도 교인의 수에 따라 목회가 평가되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사회적인 지위보다도 다른 사람을 섬기고 희생하는 삶을 아름답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외적인 능력이나 사회적 지위 등을 더 중요시하는 풍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양들에게도 매력 있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이를 부추기기도 합니다. 이러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이 성공적이고 풍요로운 삶에 기울어지기 쉽고,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섬기기보다 큰 역사를 이루는데 마음을 쓰기 쉽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다. 시대가 변할지라도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이 마음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작은 한 영혼, 작은 한 센터를 소중히 여길 때 전체적으로 사랑의 공동체가 잘 형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 3. 공동체 정신

우리의 공동체 정신의 기초 훈련장은 공동생활의 실제 현장인 ‘장막생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장막생활’이라는 말은 히브리서 11:9에서 따왔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장막생활’은 세상과 구별된 영적인 환경을 만들고 그곳에서 학생들을 훈련하고 양육하고자 하는 동기에서 출발했습니다. 또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 유학하는 학생들 중에 단독으로 거처를 마련하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정신만큼은 세상에 소망을 두기보다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이 세상에서는 경건하고 소박한 삶을 지향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공동생활을 통해 서로를 섬기며, 서로의 약점과 허물을 감당함으로써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장막 구성원들 중의 한 사람이 영육 간에 어려움이 있을 때 모든 장막 구성원들은 그를 위해 기도하며, 때로는 그와 상담하며, 때로는 밤새도록 그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진한 영적 우정이 싹텄습니다. 또 식사 당번을 비롯한 실제적인 섬김을 통해 예수님의 섬김을 배울 수 있었고, 부모에게 의존적인 데에서 하나님만을 믿는 자립적인 사람들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또 사고방식이나 생활 방식이나 성격이 다른 사람들과 살면서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사람들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공동 생활하는 구성원들은 하나님 역사의 기둥 같은 동역자들입니다.

## **2. A Spirit of Sacrifice and Humility for Christ's Kingdom**

### **1) Manger spirit means to live sacrificial and simple life**

“This will be a sign to you: You will find a baby wrapped in cloths and lying in a manger” (Lk 2:12). This word is also one of the words that we studied many times and made an effort to obey. To obey this word we did our best to live humbly and frugally. We lived a humble and frugal life for our Lord and sheep.

Our predecessors of faith had compassion for campus students and served each person with humility. They served sheep in their small apartment. Although they were poor they served sheep sacrificing their money and time. Their sacrificial lives fostered warm comradery and our community could be filled with love. And sheep were moved by their shepherds' lives and grew into shepherds and spiritual leaders.

### **2) Practical suggestions for manger spirit in action**

#### **(1) A simple life style.**

The rich have to consider the poor and share with them. Also the poor should not blame the rich for not helping them. They need to have a composed attitude toward the rich not feel inferior to them. Also we need to think sacrificially and serve others. In this environment of careful concern, our community will stand firmly.

#### **(2) Respect people for their inherent value before God.**

Sometimes we evaluate a ministry according to a number of worshippers under the influence of materialism and success. In the past, we valued the life of serving and sacrifice higher social positions. However, now we can see the tendency of valuing a person's ability and social position in our community. Sometimes we think if we are able and have a high social status we may seem attractive to sheep. So we instigated ourselves to try to be charming. However under the influence of this tend, our hearts easily seek for a successful and affluent life. We are likely to be concerned in making a big ministry



than valuing one person. We have to care about being carried along by the trends of this time. Even though times have changed we should not lose the spirit of valuing one person more than the whole world. If we value one weak person and one small center, we can make our community filled with love.

### **3. A Spirit of Community**

Communal living is a basic way to learn a simple life, caring others, teamwork, and a devout life. The concept for communal living comes from Hebrews 11:9; "By faith he made his home in the promised land like a stranger in a foreign country; he lived in tents, as did Isaac and Jacob, who were heirs with him of the same promise." Communal living started from the motive to make a spiritual environment separated from the world and to disciple and take care of its saints. Environment was one way to with its saints who came from Seoul from other areas with financial difficulties have a place to stay. However, in communal living was aimed for living a holy and thankful life by having a hope in a kingdom of God and not in the world.

We can learn the love and sacrifice of Jesus by serving and enduring each other's weaknesses and faults through communal living. If someone in a common house had a practical or spiritual problem, all members prayed for him. Sometimes they talked with him and counseled him all night long. Through these times, spiritual deep friendship grew. They could learn Jesus' servanthood through practical serving like cooking in order that they could grow as independent people, believing in God not relying on their parents. Also they could be changed into people who understand and consider others by living together with people who had different way of thinking and life style.

## 4. 사회봉사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마태복음 25:40).

UBF는 캠퍼스를 중심으로 전도와 성경공부에 힘을 쏟으면서도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데도 관심을 기울여왔습니다. 성경은 전도와 사회봉사를 균형 있게 다루고 있고, 기독교 역사에서 사회봉사는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도구요 통로였습니다. 5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가 그동안 사회봉사를 어떻게 해왔는가를 살펴보고, 사회봉사를 어느 범위까지 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재적인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 1) 성경과 기독교 역사에 나타난 사회봉사

하나님께서서는 사회적 약자인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고아들과 과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돌아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배고픈 백성들에게 빵을 주시고, 병으로 고통 하는 자들을 고쳐주시고,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의 영혼의 병뿐 아니라 몸의 병도 치료하시고, 사회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전인적인 치료에 힘쓰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교회 안에만 머물게 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 파송하사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 세상을 변혁시키는 주역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전도를 통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살리는 일을 할 뿐 아니라, 사회봉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뱅(Jean Calvin)은 직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이라고 생각했으며, 제네바 시 전체를 거룩한 도시로 만들고자 혼신의 힘을 쏟았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는 ‘영역주권설’을 주장했는데, 그것은 가정, 과학, 예술, 교육, 비즈니스, 정치, 언론, 교회 등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한국 초대교회의 선교사들도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아 전도와 예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구령사역과 더불어 교육과 친교로 이루어지는 양육사역,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과 육체적 질병을 가진 자들을 위한 봉사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언더우드(Horace Grant Underwood)는 고아 한명으로 ‘고아

원 학당'을 시작했는데, 이는 경신중고등학교를 태동시키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위대한 선각자요 지도자였던 도산 안창호와 김규식이 언더우드와 '고아원 학당' 출신입니다. 스크랜튼(William B. Scranton)은 시약소를 차려 오갈 데 없는 환자들을 치료하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전도인들을 '시약소'(Dispensary)에 상주시켜 환자들을 돌보며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환자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변화되었고 그들로 인해 몇몇 교회들이 설립되었습니다.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사회봉사로 인해 한국 백성들은 닫힌 마음을 열 수 있었고, 기독교에 대해 호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신뢰를 받지 못하는 주된 원인 중 하나는 사회봉사에 인색하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는 영혼구원에 있어서는 어떤 나라도 따라오지 못할 정도의 열정을 보여주었고,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로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회봉사의 측면에서 볼 때 한국 교회의 성적은 초라한데, 특히 교회 밖 사회적 약자들과 빈곤층을 돌아보는 데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사회봉사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전도와 사회봉사를 통합적으로 생각하고, 사회봉사를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 2) UBF의 사회봉사

이사무엘 선교사는 초기부터 전도와 함께 사회봉사를 실천하는 데 힘썼습니다. 성탄 때마다 양로원과 고아원을 찾아 노인들과 고아들을 위로하고 구제헌금을 전달했습니다. 초기에는 거지들이 많았는데, 그들을 초청하여 풍성한 음식으로 섬기기도 했습니다.

이 정신을 이어 받아 우리의 사회봉사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해외구제, 북한구제, 국내구제, 그리고 신학대학원 장학금 지급입니다. 해외구제는 방글라데시를 시작으로 하여, 이디오피아, 우간다, 중국, 그리고 일본, 더 나아가 미국에까지 도움의 손길을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북한구제는 중요한 봉사활동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의약품을 보내고 식량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식량 지원의 손길을 꾸준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 3) 발전적 제안

### (1) 사회봉사의 중요성을 알아야 합니다.

일부에서는 사회봉사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회봉사는 복음사역에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사회봉사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의 브랜드 가치도 높일 수 있습니다. 사회봉사는 전도와 제자양성에 탁월한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 **(2) 의료 봉사팀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국내나 해외의 무의촌 지역에 의사와 간호사로 구성된 의료팀을 보내어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몇 차례 의료봉사를 하고 돌아온 것은 아주 감동이 되고 좋은 예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을 국내외적으로 활성화하면 좋겠습니다.

## **(3) 각 대학별로 ‘디딤 씨앗 통장’을 홍보하고 기부운동을 펼치는 일도 고려해 봐야 합니다.**

아동복지시설의 아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시설을 나와 자립해야 합니다. 의지할 곳도, 변변한 자금도 없이 자립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정부는 이들을 위해 ‘디딤 씨앗 통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디딤 씨앗 통장’은 후원자로 부터 받는 후원금에 정부의 지원금이 더해지는 제도입니다. 아이들의 사회진출에 꼭 필요한 ‘종자돈’(Seed Money)이 되는 겁니다.

이상에서 본 것처럼 우리는 여전히 공동체 정신에 목이 마릅니다.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해 사람들은 점점 더 개인적이 되고, 고립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UBF가 사랑의 공동체를 견고하게 이룰 때, 이 시대의 대안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유 정신과 주는 정신을 잘 계승하고 적용함으로써, 또 공동생활 체험을 통해, 견고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대학과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4. Social Responsibility in Action**

“The King will reply, ‘I tell you the truth, whatever you did for one of the least of these brothers of mine, you did for me’”(Mt 25:40).

UBF has worked hard not merely for evangelism and Bible study on a campus, but also UBF contributes to taking care of the disadvantaged. The Bible treats evangelism and community service in a balanced way and social service has been an important tool and way for evangelism in Christian history. Now we look back on how we have done social services during the last 50 years and seek practical suggestions of how we serve for our communities.

### **1) Responsible Social Actions: Examples in the Bible and Christian Church History**

God had mercy on the disadvantaged such as the poor, the sick, orphans and widows and took care of them. Coming to this world Jesus gave bread to hungry people and healed sick people and befriended tax collectors and prostitutes. Jesus did not heal only our souls and bodies but also helped us holistically to succeed in a social life. Jesus did not make his disciples dwell in churches but he sent them to the world. Jesus wanted them to take a leading role to change this world as light and salt. Jesus made his disciples save dead in spirit through evangelism. Furthermore Jesus wanted to extend God's kingdom in this world through social service.

John Calvin, a religious reformer regarded a job as a calling from God. He made every effort to make Geneva a holy city. Abraham Kuyper insisted on the "area sovereignty theory" which means Christians should exert a good influence on each area such as home, science, art, education, business, politics, the press and churches to make God's sovereignty built on these areas.

Missionaries of the early days of the Korean churches served evangelical works based on preaching the gospel and worship services, nurturing works based on education and

fellowship and public welfare works for the poor, the sick and a neglected class of people following the example of Jesus' works. Horace Grant Underwood started an orphanage school with one orphan and the school was the foundation of Kyung-shin Middle & High school. An, Chang Ho and Kim, Kyu Sik, who were great seers and leaders also graduated from this orphanage school which was founded by Underwood. William B. Scranton opened a dispensary and started to heal the poor and later she made evangelists stay and take care of patients and preached the gospel to patients. As a result of her efforts, many patients accepted the gospel and changed. And after that several churches could be established. Owing to missionaries' sacrificial life for social service, Korean people opened their hearts and could have a good feeling about Christianity.

One of reasons why today's Korean churches could not gain people's trust is that Korean churches are stingy in social service. From now on Korean churches have shown amazing passion for saving souls compared to other countries, and Korea received attention as a missionary-sending country. After the US, Korea became the second biggest sender of missionaries. However, the grade of social service of Korean churches is so bad. Especially Korean churches did not care of the disadvantaged and the poor outside of their churches. Therefore we have to take an interest in social service emphasized in the Bible. We should think evangelism and social service synthetically and admit that social service is also our mission.

## **2) UBF's Responsible Social Actions**

Samuel Lee made his efforts to do social service as well as evangelism. Every Christmas he visited orphanages and nursing homes. He consoled them and delivered relief to them. At that time there were so many beggars. But he invited them and served them with abundant food. Following his spirit, we can divide our social services into four parts; foreign country relief work, North Korea relief, internal relief work and scholarship program for graduate studies of theology. For foreign country relief work, we have helped Bangladesh, Ethiopia, Uganda, China, Japan and even the US. Especially North Korea relief became a very important mission. We have supplied North Korea with medical supplies and food. Especially we have provided food aid steadily.

### **3) Further Considerations for Responsible Social Actions**

#### **(1) Value responsible social actions.**

Some people thought of social service negatively. However social work is an important part of evangelism. We can build up our community through social works. Social service can have a good influence on evangelism and disciple making ministry.

#### **(2) Mobilize volunteer medical services.**

We should send doctors and nurses into remote villages both on a domestic and global scale. Medical service teams have to show Jesus' love by healing patients. A good and moving example was going to Africa for medical service. We need to invigorate medical services like this.

#### **(3) Consider implementing a "seed bank movement" on each college and start a movement of an organizing fund.**

Children in welfare facilities have to come out of those facilities and be independent at the age of 18. It is not easy for them to be independent because they have no one to depend on and have no money. The government has a system called "stepping-seed bank book" for them. a seed bank account system is the way to add government funds to the donated money from supporters. It can be seed money necessary for the children's social advancement.

We are still thirsty for a community spirit. People become more individualistic and isolated because of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When UBF establishes a loving community in this generation, UBF can be an alternative community of this age. We need to succeed in a manger and giving spirit well and continue to have common life so that we need to establish community full of love. May we be a good influence to our universities and society in this way.

## 제 5장 개척정신과 자립정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네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여호수아 17:15).

개척정신과 자립정신은 이사무엘 선교사가 끊임없이 강조하고 심어온 믿음의 자세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지켜온 전통이요 정신입니다. 우리는 개척하지 않고 안주하려는 자세를 죄악시 했으며, 자립하지 못하고 얻어먹으려는 자세를 수치로 여겼습니다. 개척정신과 자립정신은 국내 캠퍼스 개척과 선교사를 파송하는 원동력입니다.

### 1. 개척정신

UBF는 처음부터 개척정신에 불탔습니다. 광주에서 캠퍼스 복음 역사가 시작된 지 삼 년 만에 전남대학교와 조선대학교의 각 단과 대학과 교육대학이 모두 개척되었습니다. 1963년부터는 동남아를 개척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드디어 1964년 봄에는 동남아의 첫 관문인 ‘탐라국’ 제주도에 파송했습니다. 그 사역을 지원하기 위해 헌금을 시작했습니다. 이런 개척정신은 국내 대학들을 개척하고, 세계선교에 도전하는 힘입니다.

#### 1) 기여한 점

##### (1)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였습니다.

UBF 개척정신은 진공상태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캠퍼스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자 하는 열망 가운데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개척정신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했습니다.

##### (2) 지도자를 양성했습니다.

UBF는 처음부터 사람을 키우고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구체적으로 이룬 것은 개척역사입니다. 개척역사가 사람을 키운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사무엘 선교사는 모임의 규모가 커지면 그들 가운데서 열마를 내보



내 새로운 캠퍼스나 지부를 개척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전임 목자들이 개척역사를 섬기는 가운데서 성장하였습니다. 이런 개척정신의 원리는 세계선교에도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선교사들은 이미 개척해 놓은 곳에 가서 일하기보다 스스로 개척함으로써 영적인 지도자들로 성장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기조차도 감당하지 못하던 연약한 자들이 믿음의 용사들이 되었고 지도자들로 성장했습니다. 개척정신 때문에 대학생들이 영적인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 **(3) 깨어 있는 삶, 어려움에 도전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했습니다.**

사람이 개척정신을 잃어버리면 현상유지만 급급하며 안주하고자 합니다. 고난 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신앙과 삶에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개척정신이 있으면 안주하는 것을 죄와 수치로 여깁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 **2) 발전적 방향**

### **(1)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면서 개척해야 합니다.**

초기에는 한 캠퍼스는 한 센터만 개척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개척정신이 지나쳐서 한 캠퍼스를 여러 센터가 개척하기도 했습니다. 그로 인해 경쟁적으로 역사를 섬기게 되었고, 한 양을 두고 서로 자신의 공적을 내세우는 등, 공동체 정신을 잃어버리고 서로 상처를 입는 일도 생겼습니다. 즉 성장보다 더 중요한 바 동역자들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내’가 아닌 ‘우리’라는 인식이 희미해졌습니다. 그 결과 각 센터 간에 위화감이 생기고,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아무리 개척정신이 중요하다고 할지라도 공동체 정신과 충돌해서는 안 됩니다.

초기에는 한 센터가 개척할 때 모든 센터가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 등으로 실제적인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면서 개척한 것입니다. 사랑의 공동체 정신도 잃지 않으면서 개척역사도 힘차게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 **(2) 건강한 공동체를 세움으로써 사랑 없는 세상을 개척해야 합니다.**

세상에 날이 갈수록 이기적이 되고 가정의 파괴가 극심합니다. 건강한 공동체가 별로 없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이런 시대에 개척정신으로 도전하여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 시급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까지 캠퍼스를 개척했듯이, 이에 더하여 세상에서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개척하자는 것입니다. 캠퍼스 개척이 유

형적이라면 건강한 공동체는 무형적인 역사입니다. 캠퍼스 개척이 우리의 목표라면, 건강한 공동체 세우는 일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열매입니다.

## 2. 자립정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요한복음 5:8).

자립의 정신은 성경에서 중요하게 가르치는 사상 중의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을 믿고 자립하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이사야 60:1). 예수님은 심지어 삼십 팔년 된 병자에게도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요한 5:8).

UBF가 태동할 당시 우리나라는 가난하여 미국의 원조를 받았습니다. 의존심이 국민적인 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사무엘 선교사는 처음부터 사람을 돕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립하도록 도왔습니다. 자립의 정신은 UBF 안에서 하나의 원칙이 되었고 문화로 자리 잡아 왔습니다. 외부적으로는 기존교회나 제도권에 기대거나 연합하기보다는 차별성을 갖고 성경 중심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자립의 정신이 어떻게 지켜져 왔으며, 앞으로 50년을 바라보며 더욱 발전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 1) 기여한 점

#### (1) 철저한 자립심을 키웠습니다.

한 센터를 책임지는 책임 목자는 자립적으로 책임을 맡아 역사를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행정 구조입니다. 각 센터는 물질적으로 자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개척을 할 때도 얼마동안은 물질적으로 지원을 받기도 하지만 할 수 있는 대로 빨리 자립하도록 힘썼습니다. 지원받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문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수양회나 성경학교도 수가 많은 곳에 없어서 따라가기보다는 규모가 작고 부족해도 자체적으로 감당하기를 더 좋아합니다. 이런 일들을 통하여 철저하게 자립심을 키웠습니다.

#### (2) 우리만의 차별적인 역사와 문화를 창조하였습니다.

우리는 지역 교회나 다른 선교단체로부터 자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즉 독자적인 노선을 걸었습니다. 다른 교회나 선교단체들에 소속되어 있는 대학생들은 학교에서는 동아리의 회원으로서 활동하지만 주일에는 각자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UBF는 독자적으로 예배를 드림으로써 차별화를 시도했습니다. 또 호칭에 있어서도 목사나 장로나 집사로 하기보다 예수님을 닮은 작은 ‘목자’라는 의미에서 ‘목자’라고 부릅니다. 전도나 제자양성의 대상을 예수님의 양이라는 의미에서 ‘양’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하여 기존의 교회로부터 차별화를 꾀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만의 독특하고 차별적인 문화를 형성했습니다. ‘믿음의 결혼’, ‘평신도 자비량 선교’도 차별화된 자립의 정신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2) 발전적 제안

### (1) 자립과 지원의 조화를 모색해야 합니다.

개척사역을 섬기는 경우에는 물질적으로 자립하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일은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책임 목자는 필요한 물질을 마련하는 데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자기만 생각하고 다른 목자와 사역에 대해서는 생각할 여유가 없어 집니다. 결국 ‘개교회주의’에 빠지고 맙니다. 자립의 정신은 중요하지만 복음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일정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물질문제뿐만 아니라 결혼문제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도움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개척역사를 섬기기 위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목자들을 돌아보고 섬기는 적극적인 사랑이 있어야 자립정신도 아름답게 꽃 피울 수 있을 것입니다.

### (2) 본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본부의 기능이 지나치게 강조 되면 각 센터의 독립성을 해치게 되고 자립의 정신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각 센터가 섬기는 캠퍼스가 다르고 그 형편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각 센터의 독립성이 필요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더욱 유기적이 되고 역동적이 되려면 책임 목자들이 역동적이 되어야 합니다. 책임 목자들이 수동적이 되면 공동체도 수동적이 되고 건강하게 자라지 못합니다. 따라서 본부는 ‘서번트쉽’(servant ship)을 갖고 ‘서비스 센터’(service center)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 **V. Pioneering and Independent Spirit**

“If you are so numerous, Joshua answered, "and if the hill country of Ephraim is too small for you, go up into the forest and clear land for yourselves there in the land of the Perizzites and Rephaites”(Jos 17:15).

Lee has constantly emphasized pioneering and independent spirit which are spiritual legacies from innumerable UBF predecessors of faith. We regarded settling for the status quo without a pioneering spirit as wrong and depending on others as freeloaders as shameful. But pioneering and independent spirits have served as driving forces for pioneering many campuses and sending missionaries throughout the world.

### **1. Pioneering Spirit**

From the beginning, UBF had a burning zeal to pioneer. After 3 years since the first student center was opened up in Kwangju, Chonnam University and Chosun University were all pioneered. Then the early members had payed for pioneering the Southeast Asia from 1963 and finally by the spring of 1964, they succeeded in sending out missionary to Jeju Island that was a gateway to Southeast Asia. They began to take a financial collection to support the new ministry. The pioneering spirit has made it possible to evangelize Korean universities and challenged world mission. Here, we consider what pioneering spirit really accomplishes in mission work through UBF.

#### **1) The Effects**

##### **(1) Expand the Kingdom of God.**

The pioneering spirit had formed based on the desire to expand the Kingdom of God in the midst of university campuses and it served as a driving force for extending the Kingdom of God.

## **(2) Raise up influential spiritual leaders.**

UBF sets it as a goal to raise and train spiritual leaders who have pioneering ministries. It may be possible to say our pioneering ministry raised and trained leaders. When people gathered more and more and the size of church increased, Samuel Lee sent some of them out to a new campus and let them pioneer a new chapter. As a result, they were raised as spiritual leaders serving new pioneering ministries. The same concept was applied to, they were mission ministry. The new chapter, were trained and grew as spiritual leaders pioneering for themselves, rather than settling down with what other missionaries already established. By serving a pioneering ministry those who were spiritually weak became warriors of faith and great leaders. The pioneering spirit made university students become spiritual leaders.

## **(3) Train people to be strong and courageous.**

When people lose a pioneering spirit, they become complacent and try to maintain the status quo without challenging the future. They don't want to go through hardships. There is no life in their lives of faith. However those who go forward with a pioneering spirit don't consider settling for the present. They can be spiritually alert and continue to challenge not being complacent.

## **2) The Key for nurturing this pioneering spirit**

### **(1) Special love and care for pioneers in mission.**

At the beginning of UBF mission history, each center pioneered each campus. But as time went on several centers rushed to pioneer the same campuses which, lead to a severe competition among coworkers. They competed to get a sheep hurt one another. They forgot that loving one another was more important than expanding the scale of center. The perception of "we" not "I" became weak. As a result, the sense of incompatibility spread among UBF centers and the gap between the haves and the have-nots widened. Even though a pioneering spirit is important, it should not conflict with the community.

In the early UBF history, all centers supported a pioneering center with prayers and financial contributions. They pioneered campuses with loving and helping one another. We must be able to serve a pioneering mission as well as maintain the community of love

with a heart.

## **(2) Reach out this broken world with godly and healthy Christian communities.**

The world have become more selfish and a lot of families are divided. Since it is hard to find a sound community nowadays, challenging the world with a pioneering spirit and establishing a sound community is urgent. In other words, let's pioneer the world establishing a sound community as we did pioneering campuses up until now. A sound community is an intangible legacy while pioneering campuses is a tangible one. It is our goal to pioneer campuses and the fruit we should produce is a sound community.

## **2. Independent Mindset**

“Then Jesus said to him, Get up! Pick up your mat and walk”(Jn 5:8).

The independent spirit is one of the important ideas that the Bible teaches us. God created man as a self-supporting with faith in God. God said to weak Israel “Arise, shine” (Isa 60:1). Jesus said even to an invalid for thirty-eight years “Get up! Pick up your mat and walk” (Jn 5:8).

When UBF movement began, Korea was so poor that they received economic aid from the United States. The dependency was kind of a national disease. However Lee helped people to be self-supportive with having faith in God from the beginning. This independent spirit has become a major principle and kind of culture within UBF. Exfainall Lee has been a non-denominational and independent organization without relykind o existing churches. Then let's see how an independent spirit has been nd indeportind what way we should go for the next 50 years. What has an independent mindset accomplished among us?

### **1) The Effects**

### **(1) Grow in responsible stewardship**

It is UBF's belief that the shepherd of each center deals with the ministry independently. It has been a basic principle that each center be financially self-supportive. When coworkers pioneered a new campus they received financial support for a while but made efforts to be financially independent as soon as possible because they felt embarrassed for receiving support and not being independent. They preferred to hold Bible schools and conferences independently, inspite of a small number of coworkers, rather than be united with bigger chapters. It was an excellent opportunity for them to spiritually grow and become independent.

### **(2) Develop a Culture of Mature Actions**

It was the UBF principle to be independent of local churches or other missionary organizations. We took our own line. Those students who were members of other churches or missionary organizations served evangelism together at their own universities but separately attended Sunday worship services at their own churches. However UBF has had its own Sunday worship services that are different from other missionary organizations. As for titles, we call spiritual leaders "shepherd" expecting them to take after the Shepherd Jesus and called Bible studying students as "sheep." As a result, we differentiated ourselves from the existing churches and formed our own cultures based on the independent spirit such as "marriage of faith" and "lay missionaries."

## **2) Considerations for the Future**

### **(1) Seek balance between on independent mindset and the need for dependence.**

When serving pioneer ministry, it is most important to be financially self-supportive. However as it is not that easy. Staff shepherds cannot raise necessary funds and they have no time to take care of other shepherds and ministry. An independent spirit is important. However, not only financial support but also support for marriage is necessary to serve ministry. The love for those who go through hardships to serve ministry will enable the independent spirit to flourish.

### **(2) Affirm the role and function of UBF headquarters.**

Focusing on the functions of the headquarter may weaken the independence of each center of serving different campuses under different conditions. It is necessary to respect the independence of each center. To make our organization more dynamic and more united, staff shepherds must become more active. If they are passive, the community also becomes passive and does not develop. Therefore we need to rethink the role of the headquarter. It should perform its role as a "service center."



## 제 6장 북한선교와 통일준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사도행전 1:8).

### 1. 북한선교

성령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로마제국을 변화시켜서 로마국교까지 만들어내셨습니다. 북한선교의 원동력도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불가능하게 보였던 북한에 봉수교회(1988), 칠곡교회(1992)를 세웠습니다. 지금까지 기독교에 비판적 태도를 보였던 북한정부를 오직 성령님만이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 1) 북한선교의 필요성

##### (1)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태 28:19). 우리는 2002년부터는 모슬렘 권과 중국과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북한은 단순히 여러 민족 중의 하나가 아닙니다. 가장 가까이 있고 지상에서 유일하게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한 민족입니다.

##### (2) 우리가 받은 영적인 빛을 갚기 위해서입니다.

본래 우리나라의 예루살렘에 해당하는 곳은 북한의 평양이었습니다. 평양은 영국의 런던대학을 졸업한 토마스(Jermain Thomas) 선교사가 27세의 나이로 순교의 피를 뿌렸던 곳입니다. 또한 평양 대부흥의 발원지이기도 합니다. 평양에서 수많은 전도자들이 탄생했습니다. 특히 이기풍 목사는 제주도와 전라도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바쳤습니다. 한국전쟁을 통하여 북한에서 내려온 북녘의 교인들이 서울과 부산에서 복음을 전하여 남한사회를 복음화 시켰습니다. 이런 면에서 남한 교회는 북한 교회의 빛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빛진 자의 심정으로 북녘의 동포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 **(3) 기본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동포들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북한 동포들은 인권 탄압과 식량 때문에 기본적인 인권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들의 실상을 생각할 때 주님의 긍휼과 은총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 **2) 지금까지 UBF의 북한선교의 노력**

그 동안 UBF가 해 온 북한선교의 노력은 구제활동과 몇몇 목자들과 선교사들의 북한 방문입니다. 구제활동은 첫째, 2000~2003년까지 감당한 결핵요양소를 지원한 것입니다. 북한당국이 전용할 수 없는 결핵환자들만이 쓸 수 있는 약품, 의료기구등을 지원했기에 아주 실효성 있으면서도 결핵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둘째, 2006년도에 굿네이버스를 통해서 영유아와 고아들을 돕기 위해서 분유와 밀가루, 영양식, 건강보조식품을 제공했습니다. 셋째, 2008년부터 현재까지 옥수수가루, 밀가루, 밀국수를 1년에 여섯 차례에 걸쳐서 나누어준 것입니다. 한국교회나 NGO단체들을 통해서 북한을 구제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PUST(평양과학기술대)를 지원한 것입니다. 평양과기대는 중국과 조선족들의 복음화를 꿈꾸며 연변과학기술대가 설립된 것과 동일한 목적가운데 평양에 세워진 참으로 특별한 대학입니다. 평양과기대가 토마스 선교사 순교기념교회 터 위에 세워진 것은 뜻 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배사라 선교사와 전요한 선교사, 이그레이스 선교사와 고바울 선교사, 그리고 이사무엘 목자 등이 북한을 직접 방문하여 기도하였습니다. 북한에 대한 특별한 심정과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북한을 방문하고 기도의 단을 쌓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문을 여시고 구체적으로 일하실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2. 통일준비**

### **1)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들**

#### **(1) 탈북자 대학생 돕기**

탈북자가 3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탈북자 3만 명을 돕지 못하면 북한백성 3000만을 도울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탈북자 돕기는 곧 ‘북한 백성들을 도울 수 있는

나 없느냐'의 예행연습과 같습니다. 탈북자의 30%가 20대이고, 약 500명의 대학생들이 각 대학에 있습니다. 이들 중 대부분은 문화적 차이 때문에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들은 취업에 대한 염려가 큼니다.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들을 잘 돕는 일은 북한선교의 시작이요, 통일을 준비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2) 실제적인 선교 전략의 모색**

굶주림이 심한 북한의 동포들에 대한 식량지원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선교사로서 직접 방문하는 일에도 열심을 내야 합니다. 초기 사역을 섬길 때 해외에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서 길을 찾고자 몸부림을 쳤던 것처럼 북한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서 전략적인 지혜를 찾아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실제적인 선교 전략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 **VI. To the Ends Of the Earth: North Korea and Beyond**

“But you will receive power when the Holy Spirit comes on you; and you will be my witnesses in Jerusalem, and in all Judea and Samaria, and to the ends of the earth”(Ac 1:8).

### **1. Prayer for North Korea**

The Holy Spirit spread the gospel in Jerusalem and in all Judea and Samaria and to the ends of the earth. The Holy Spirit also changed the Roman Empire to build the Roman Catholic Church. It is the Holy Spirit that can evangelize North Korea. The Holy Spirit established Bongsu Church (1988) and Chilgock Church (1992) in North Korea which looked impossible. Only the Holy Spirit can change the North Korean government which, has been against Christianity.

#### **1) An imperative for praying for gospel mission in North Korea**

##### **(1) Jesus expects us to pray for suffering people.**

Jesus said to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baptizing them (Mt 28:19). Since 2002 we have prayed for Muslim countries, China and North Korea. North Korea is not simply one of many nations. It is the only country that uses the same language as us and is the most closely located. We are one nation.

##### **(2) We are obligated to pray for North Korea.**

Pyeongyang originally corresponded with the Korean Jerusalem. Missionary Jermain Thomas who graduated from London University was martyred in Pyeongyang when he was 27 years old. It was also the origin of the Pyeongyang Great Revival Movement. Many evangelists were spiritually reborn in Pyeongyang. Especailly Pastor Lee Ki Poong gave his

life for the evangelization of Jeju Island and Cheolla Province. Those Christians who came to South Korea during the Korean War ministered to South Korea beginning to preach the gospel in Seoul and Pusan. In that sense, we can say the South Korean churches are spiritually indebted to the North Korean churches.

### **(3) God hears the crying needs of brothers and sisters in North Korea**

They are deprived of fundamental human rights and are politically oppressed. They also have difficulty in obtaining food. God's mercy and grace are absolutely and urgently needed.

### **2) UBF's involvement and support for North Korea**

UBF made efforts to preach the gospel to North Korea by providing aid and sending a few shepherds and missionaries. First, we supported them to build a nursing home for tuberculosis from 2000 to 2003. Second, we provided them with milk powder, flour and health food to help children and orphans in 2006 through Good Neighbors. Third, we gave them corn powder and flour 6 times a year from 2008. We are participating in the aid program of Korean churches or NGOs for North Korea. We also supported the PUST (Pyeongyang University of Science Technology) which was established for the evangelization of the Chinese and ethnic Koreans who live in China as well as YUST (Yanbian University of Science & Technology). It is meaningful that PUST was built on the place where was Missionary Thomas martyred.

Sarah Barry, John Jun, Grace Lee, Paul Koh and shepherd Samuel Lee visited North Korea and prayed for them. They continue to build an altar of prayer with warm hearts and love for North Korea, waiting for the Holy Spirit to open the door and work in North Korea.

## **2. Prepare for the re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 **1) What can we do now for the eventual 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1) Help those who defected from North Korea particularly those who are college students.**

The number of North Korean defectors reaches almost 30,000. It is said that “If we cannot help 30,000 North Korean defectors, we also cannot help 30 million North Korean people.” Helping North Korean defectors serves as an opportunity to practice helping all North Koreans. 30% of the defectors are in their twenties and about 500 university students are attending university. Most of them are not well adapted to Korean society and school due to cultural differences. Their primary concern is to get a job. They need the love of Jesus Christ. To help them is the beginning of ministering to North Korea and preparing for reunification

**(2) Seek a practical mission strategy for North Korea both in the short and long-term**

We should continue to provide food to North Koreans who suffer from wide-scale famine and make efforts to visit them as missionaries. We build ministry strategies and seek ways to send missionaries out to the North Korea as we did at the beginning of our UBF ministry. In other words, it is time to seek practical ways and strategies to minister to North Korea.

## 결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디모데후서 3:16-17).

이 시간 우리는 ‘우리가 물려받은 영적 유산’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선배들에게 ‘UBF의 정신과 사상, 그리고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것들은 ‘성경 중심의 정신’, ‘대학생 제자양성의 정신’, ‘세계선교와 자비량의 정신’, ‘공동체 정신’, ‘주는 정신’, ‘구유 정신’, ‘개척 정신과 자립 정신’ 등이었습니다. 이 영적 유산의 핵심은 ‘우리는 누구이며,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 그 정체성이 무엇이며, 그것이 우리의 공동체와 한국교회 및 세계교회에 기여한 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동시에 좀 더 발전적인 방향도 함께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정체성을 통하여 지난 50년 동안 한국과 세계의 캠퍼스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영적 유산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우리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예수님의 피의 공로, 그리고 신앙의 선배들이 흘린 땀과 눈물을 절대로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영적 유산을 잘 지키고 후배들에게 잘 물려주어야 할 역사적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 앞에서 서니 우리는 아름다운 영적 유산을 잘 지키지도 못하고 잘 전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하나님과 후배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는 새로운 세대를 향한 재도약의 발판을 다지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앞으로의 50년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정신과 사역, 그리고 비전을 재무장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합니다. 새 시대를 섬기려면 그에 맞는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삶의 현장과 사역의 일선에서 부족한 것들, 바르지 못한 것들을 말씀의 렌즈로 보고 늘 갱신해 나가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새 시대의 새 양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50년도 더욱 역동적으로 쓰실 수 있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아름답

답고 위대한 신앙 유산을 주시며, 한국과 세계 캠퍼스 가운데 귀하게 쓰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앞으로의 50년도 부족한 점들은 채워주시고, 바르지 못한 것들은 바르게 고쳐 주시며, 목자와 선교사들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공동체를 역동적으로 써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 **Conclusion**

“All scripture is God-breathed and is useful for teaching, rebuking, correcting and training in righteousness, so that the man of God may be thoroughly equipped for every good work”(2 Ti 3:16-17).

So far we thought about the spiritual inheritance we have received. God gave to our predecessors in faith “spirit, heart and vision.” They were biblically based, raised campus student disciples, had compassion for world missions, had a community of love, had lives of giving, had the spirit of the manger, pioneered and were self-supporting. This spiritual inheritance sums up the core of who we are and what we are doing. This makes up our true character. At this time we think about what is this true character and what this contributes to our community, to the Korean churches and to world missions. Over the past 50 years the amazing work of God has happened through this true character in Korea and in campuses around the world.

And today this beautiful inheritance has been given to us. We cannot forget God’s overflowing and one-sided grace to us and the merit of Jesus’ blood and the sweet and tears of our predecessors. We have an historical mission to keep this spiritual inheritance and pass it on to the new generation. Considering this mission, if we cannot keep this inheritance well or if we fail to preach this point we cannot but feel ashamed before God and our young people. But now where we stand, we have a new generation to revive and make a firm foothold on. When we look back on the past 50 years we are at the place where we can reload our hearts, mission and vision.

We have to put “new wine into new wineskins.” If we are going to serve this new generation we have to change to fit them. The root of our faith is God’s word, the Bible. In our life circumstances on the frontlines, something is lacking or not right. We need to

see through the lens of God's word and always go and stand in front of God and be restored. Then we can serve new sheep in this new generation. Then God can use us even more dynamically over the next 50 years. Thank and praise God for giving us this beautiful and great spiritual inheritance and using us precious in Korea and on campuses around the world. I earnestly pray that God may fix what is lacking, fix what is not upright, lead our shepherds and missionaries and use our community dynamically over the next 50 years.

## 분임토의

### 1. 현지인 지도자 양성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요한복음 1:39a).

1) **하나님은 제자를 부르고 세우시는 분**(사편 127:1, 요한 6:44-45; 17:6)

2) **기도가 필수**(마태 9:37-38; 누가 6:12-13)

3) **처음부터 제자를 양성하신 예수님께에서 배울 점**

a. 요한 1:37-51)

- i. 예수님은 그들의 동기를 확인하셨다: “무엇을 원하느냐?”
- ii. 예수님은 믿음의 도전을 하셨다: “와서 보라.”
- iii. 예수님은 그들과 삶을 함께 나누는 인격적인 시간을 가지셨다.
- iv. 예수님은 희망을 갖고 그들을 보셨으며, 그 마음을 이해하셨다.
- v. 예수님은 하나님의 큰 비전을 보도록 희망을 주셨다.

b. 요한 6:1-13

- i. 예수님은 제자들이 백성들을 붙잡히 여기는 당신의 마음을 알게 하셨다.
- ii.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기 능력 이상의 일을 믿음으로 도전하게 하셨다.
- iii. 예수님은 사람들의 필요를 섬기는 데 동참하게 하셨다.

c. 요한 10:1-18

- i. 예수님은 선한 목자의 개념을 가르쳤다.
- ii. 선한 목자는 양들을 진심으로 돕는 올바른 동기를 갖는다.
- iii. 선한 목자는 본을 보여줌으로 이끈다.
- iv. 선한 목자는 양들과 인격적인 관계성을 맺는다.
- v. 선한 목자는 양들이 풍성하고 영원한 삶을 살게 하려고 일한다.
- vi.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다.
- vii. 선한 목자는 양을 돌보고, 양들을 위해 싸우기도 한다.

viii. 선한 목자는 하나님 앞에 착한 양이 된다.

ix. 선한 목자는 모든 민족을 마음에 품는다.

x. 선한 목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

d. 요한 13:1-17

i. 예수님은 겸손히 섬기는 본을 보이셨다.

ii.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인격적인 사랑, 용서하는 사랑을 보이셨다.

iii. 예수님은 제자들이 서로 겸손히 섬기고 용서하도록 하셨다.

e. 요한 14:1-30

i. 예수님은 아버지의 집을 약속하심으로 제자들을 위로하셨다.

ii. 예수님은 제자들이 믿음으로 당신이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약속하셨다.

iii.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영접하는 법을 보이셨다.

f. 요한 15:1-27

i. 예수님은 그 안에 거함(의지함)으로 열매 맺는 법을 가르치셨다.

ii. 예수님은 그의 말씀과 사랑, 기도를 통해 그 안에 거하는 법을 가르치셨다.

iii.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리셨고, 그들을 친구라고 부르셨다.

g. 요한 16:1-33

i.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립적인 하나님의 종이 되도록 도왔다.

ii. 예수님은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 가르치셨다.

iii. 예수님은 그의 죽음과 부활 및 그가 누구신지 알도록 도우셨다.

iv. 예수님은 자립적인 기도생활을 하도록 도우셨다.

v. 예수님은 그를 믿고 승리의 확신을 갖도록 가르치셨다.

h. 요한 17:6-19

i.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셨다.

ii.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거기에 순종하도록 도우셨다.

iii. 예수님은 제자들을 악한 자로부터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셨다.

iv.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가 되도록 기도하셨다.

v.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의 기쁨으로 충만하도록 기도하셨다.

vi. 예수님은 제자들이 거룩하게 되도록 기도하셨다.

i. 요한 21:1-23

i. 예수님은 제자들이 실패했을 때 찾아와 감싸주셨다.

ii. 예수님은 제자들이 실패를 만회하도록 도우셨다.

iii. 예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직접 요리해서 제자들을 먹이셨다.

iv.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의 은혜를 인하여 사랑을 고백하게끔 도우셨다.

v. 예수님은 최종적으로 “내 양을 먹이라.”는 한 가지 분명한 방향을 주셨다.

vi.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를 따르도록 인격적인 결단을 하게끔 도우셨다.

#### 4) 사도 바울에게서 배울 점

a. 행전 12:25; 13:5

i.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마가를 데려와 안디옥에서 섬기도록 했다.

ii. 바울은 첫 전도여행에 마가를 동역자로 데려갔다.

b. 행전 16:1-3

i. 바울은 두 번째 전도여행에서 디모테를 동역자로 데려갔다.

ii. 디모테는 루스드라 신자들이 추천한 사람이다.

iii. 디모테는 유대-헬라의 피가 반씩 섞여서 타문화권 복음역사에 아주 적합했다.

c. 빌립 2:19-22

i. 디모테는 바울과 가장 가까운 동역자였다.

ii. 디모테는 다른 사람들의 사정을 진정으로 알아줄 줄 알았다.

iii. 디모테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 같이 섬김으로 자기를 증명했다.

d. 딤후전 1장

i. 바울은 디모테를 믿음 안에서 참 아들처럼 존중했다.

ii. 바울은 디모테를 보내 거짓 선생과 싸우게 했다.

iii.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은혜를 간증했다.

iv. 바울은 디모데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격려했다.

e. 딤후 2:3

i. 바울은 디모데에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돕게끔 가르쳤다.

ii.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분명한 기준을 가르쳤다.

iii. 바울은 디모데에게 올바른 교회관을 가르쳤다.

iv.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건으로 이끄는 그리스도의 신비함을 가르쳤다.

f. 딤후 4장

i. 바울은 디모데에게 거짓 선생들에 대해 경고했다.

ii. 바울은 디모데가 믿음의 진리에 힘쓰도록 가르쳤다.

iii. 바울은 디모데가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라고 가르쳤다.

iv. 바울은 디모데에게 모범을 보이라고 가르쳤다.

v. 바울은 디모데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힘쓰도록 가르쳤다.

vi. 바울은 디모데가 부지런히 성장하고 자신과 가르침을 살피도록 가르쳤다.

g. 딤후 5장

i. 바울은 디모데가 과부와 노인들을分別력있게 돕도록 가르쳤다.

h. 딤후 6장

i.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건한 가르침과 경건한 삶의 소중함을 가르쳤다.

ii. 바울은 디모데에게 돈을 사랑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가르쳤다.

iii. 바울은 디모데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도록 가르쳤다.

iv. 바울은 디모데가 다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가르쳤다.

v.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가르쳤다.

vi. 바울은 디모데가 부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선행을 하도록 돕게끔 가르쳤다.

vii. 바울은 디모데가 부탁받은 것을 잘 지키도록 가르쳤다.

i. 딤후 1장

i. 바울은 디모데가 성령을 따라 살도록 권했다.

- ii. 바울은 디모데가 복음의 고난에 동참하도록 권했다.
- iii. 바울은 디모데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복음의 가르침을 지키도록 권했다.

j. 딤후 2장

- i.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강하도록 가르쳤다.
- ii. 바울은 디모데가 제자양성가가 되도록 가르쳤다.
- iii. 바울은 디모데가 좋은 병사요, 경기하는 자, 농부가 되도록 가르쳤다.
- iv. 바울은 디모데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음을 기억하도록 가르쳤다.
- v.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 다툼을 하지 말라고 가르쳤다.
- vi. 바울은 디모데에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법을 가르쳤다.
- vii. 바울은 디모데에게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 그리고 순수한 마음을 따르라고 가르쳤다.
- viii.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시금 사람들과 다투지 말라고 가르쳤다.

k. 딤후 3장

- i.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건치 못한 자들을 경계하라고 경고했다.
- ii.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의 행실과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기억하라고 가르쳤다.
- iii. 바울은 디모데에게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쓸모있는 주의 종이 됨을 가르쳤다.

l. 딤후 4장

- i. 바울은 디모데에게 때를 얻든지, 못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도록 명령했다.
- ii. 바울은 디모데에게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고 권했다.

## 5) 타 문화권에서 리더십 개발

- a.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심으라.
- b. 신뢰를 쌓으라.
  - i. 그곳 문화에 대해 배우라.
  - ii. 신앙 공동체 개발을 과업이나 일보다 우선시하라.

- (1) 문화나 민족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강조하라.
- (2) 성령님으로 그리스도의 지체된 자로 서로에게 헌신하라.
- (3) 그리스도처럼 이웃 사랑하는 법을 배우라.
- (4) 다양성을 갖고 섬기라.
- (5) 하나가 되어 함께 일하라.
- (6) 서로에게 복종하라.
- (7) 은혜롭게 말하라.
- (8) 긍휼을 갖고 회복하라.
- iii. 함께 예배드리는 법을 배우라.
- iv. 그곳 문화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실제적인 훈련을 하라.
- v. 그곳 사람들을 존중하고, 차이를 인정하며, 신뢰를 쌓아감으로 그 문화 속에서 이끄는 법을 배우라.

c. 현지인 리더 동력화

- i. 동력 제공자가 되는 법을 배우라.
  - (1) 예수님이 우리의 동력 추구를 대신하게 하라.
  - (2) 자리보다 관계를 중요시하라.
  - (3) 권위나 통제보다 사람이 더 중요함을 배우라.
  - (4) 정직한 인격과 깊은 관계성으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라.
  - (5) 바울이 노예 오네시모를 전 주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낸 사례를 통해 배우라.
- ii. 멘토가 되는 법을 배우라.
  - (1) 자격요건을 따지기 전에 리더 후보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지 살피라.
  - (2) 실패하더라도 멘토링 차원에서 리더 후보가 해보도록 기회를 주라.
  - (3) 항상 격려하고, 절대 정죄하지 말라.
  - (4) 정직하게 대면하는 법을 배우라.



- (5) 리더 후보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심으라.
- (6) 리더 후보를 관리하려 들지 말고, 리드하도록 도우라.
- (7) 하나님을 믿고 통제를 풀어주라.

## 6) UBF 차원에서 실제로 생각할 점

- a. 리더 후보를 세 단계로 도우라.
  - i. 경건함: 개인 신앙을 기르라.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훈련의 유익을 체험하라.
  - ii. 건강: 실제 삶에서 성공을 체험하라. (학업, 취업, 결혼, 성취)
  - iii. 영향력: “내 양을 먹이라” - 다른 사람을 섬기고, 성경을 가르치는 것, 영향력을 미치고, 희생하는 것을 배우라.
- b. 목회서신에서 배우는 원칙
  - i. 한 가정을 책임질 줄 아는 가장들을 뽑으라. (인격을 보여줌)
  - ii. 교회 내, 동역자들에게 존경받는 자들을 뽑으라.
  - iii.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울 줄 아는 리더들을 하나가 아닌 여러 명 기르라.
- c. 진실한 관계 개발
  - i. 리더 후보가 현재 리더 맡은 자를 지나치게 의지하지 않게끔 하라.
  - ii. 리더 후보가 부담 없이 솔직할 수 있고, 개인적인 반대도 할 수 있게끔 하라.
- d. 리더 후보의 가족을 살피라.
  - i. 배우자와 자녀들이 사역을 편안하게 느끼며, 피해자가 되게 하지 말라.
  - ii. 리더 후보의 부모까지 도우라.
- e.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는 자로서 성장하라.
  - i. 지속적인 성경공부와 개인신앙생활
  - ii. 건강한 성경신학을 익히라.
  - iii. 성경을 가르치고, 개인적인 소감을 나누며, 메시지를 전하고, 소통하는 법을 배우라.
- f. 건설적인 비평을 받으라.

- g. 겸손히 섬기고, 열심히 일하는 것을 배우는 데 착념하라.
- h. 어떤 틀이 없어도 자기 시간 경영하는 법을 배우라.
- i. 리더 후보를 세워주는 네트워크를 형성하라. (성경선생, 배우자 등등)
- j. 인내하라.
- k.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 형성에 힘쓰라.

## 7) 결론

- a. 요한복음에 나온 예수님의 제자양성의 핵심을 정리해보라.
- b. 바울이 디모데를 돕는 데 있어 핵심을 정리해보라.
- c. 타 문화권 선교시 고려할 핵심사항을 정리해보라.
- d. 실제로 생각해볼 중요사항을 정리해보라.
- e.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하나님을 믿으라.

## **Track Session**

### **1. Raising Native Leaders**

“‘Come,’ he replied, ‘and you will see’”(John 1:39a).

- 1) God is the one who calls and raises leaders (Ps127:1; Jn6:44–45; Jn17:6)
- 2) Prayer is essential (Mt9:37–38; Lk6:12–13)
- 3) Learn from Jesus, who raised disciples from the beginning
  - a. John 1:37–51
    - i. Jesus checked their motives: "What do you want?"
    - ii. Jesus gave them a challenge of faith: "Come and you will see"
    - iii. Jesus spent personal time with them, shared life together
    - iv. Jesus saw them with hope/understood their hearts
    - v. Jesus gave them hope to see God's great vision
  - b. John 6:1–13
    - i. Jesus helped them understand his compassion for people
    - ii. Jesus challenged them to do something by faith, beyond their ability
    - iii. Jesus included them in his work of serving people's needs
  - c. John 10:1–18
    - i. Jesus taught them the concept of being a good shepherd
    - ii. A good shepherd has the right motive, to truly help the sheep
    - iii. A good shepherd leads by example
    - iv. A good shepherd has a personal relationship with sheep
    - v. A good shepherd works for the sheep to have eternal and abundant life
    - vi. A good shepherd sacrifices himself for the sheep

- vii. A good shepherd cares for and even fights for the sheep
- viii. A good shepherd is a good sheep to God
- ix. A good shepherd has all peoples in his heart
- x. A good shepherd loves and obeys God

d. John 13:1–17

- i. Jesus showed them an example of humble service
- ii. Jesus showed them personal, forgiving love by washing their feet
- iii. Jesus challenged them to humbly serve and forgive one another

e. John 14:1–30

- i. Jesus comforted them with the promise of the Father's house
- ii. Jesus promised that through faith they would do what he did & even more
- iii. Jesus showed them how to have the Holy Spirit in them

f. John 15:1–27

- i. Jesus taught them how to be fruitful—by remaining in (depending on) him
- ii. Jesus taught them how to remain in him: in his word, in his love, in prayer
- iii. Jesus shared God's secrets with them and called them his friends

g. John 16:1–33

- i. Jesus helped them become independent servants of God
- ii. Jesus taught them about the work of the Holy Spirit
- iii. Jesus helped them understand his death and resurrection and who he is
- iv. Jesus helped them to have independent prayer lives
- v. Jesus taught them to have a sense of victory in him

h. John 17:6–19

- i. Jesus revealed God to them
- ii. Jesus gave them God's words and helped them obey them
- iii. Jesus prayed for them to be protected from the evil one
- iv. Jesus prayed for them to be one
- v. Jesus prayed for them to be full of his joy
- vi. Jesus prayed for them to be sanctified

i. John 21:1–23

- i. Jesus visited them graciously when they failed
- ii. Jesus helped them restore their failure
- iii. Jesus cooked for them and fed them with unconditional love
- iv. Jesus helped them confess their love for him based on his grace
- v. Jesus gave them one clear and final direction: "Feed my lambs"
- vi. Jesus helped them have a personal decision to follow him

4) Learn from Apostle Paul

a. Acts 12:25; 13:5

- i. Paul took John Mark with him from Jerusalem to serve in Antioch
- ii. Paul took John Mark with him on his first missionary journey as a helper

b. Acts 16:1–3

- i. Paul took Timothy with him as a helper on his second missionary journey
- ii. Timothy was recommended by the believers in Lystra

iii. Timothy seemed well-suited for cross-cultural gospel work (half Jewish/half Greek)

c. Philippians 2:19–22

- i. Timothy was like Paul's soul-mate
- ii. Timothy had an unselfish, genuine concern for others
- iii. Timothy had proved himself, serving like a son with his father

d. 1 Timothy 1

- i. Paul respected Timothy like his true son in the faith
- ii. Paul sent Timothy to refute false teachers
- iii. Paul shared his personal testimony of God's grace with Timothy
- iv. Paul encouraged Timothy to fight the good fight of faith

e. 1 Timothy 2–3

- i. Paul taught Timothy how to help God's people worship God
- ii. Paul taught Timothy clear criteria for church leaders
- iii. Paul taught Timothy the right view of the church
- iv. Paul taught Timothy the mystery of Christ which leads to godliness

f. 1 Timothy 4

- i. Paul warned Timothy about false teachers
- ii. Paul taught Timothy to focus on the truths of the faith
- iii. Paul taught Timothy to train himself to be godly
- iv. Paul taught Timothy to set a good example
- v. Paul taught Timothy to focus on preaching and teaching the Bible
- vi. Paul taught Timothy to be diligent, to make progress, and to watch his life and doctrine closely

g. 1 Timothy 5

- i. Paul taught Timothy how to deal with widows and elders with discernment

h. 1 Timothy 6

- i. Paul taught Timothy the value of godly teaching and godly living
- ii. Paul taught Timothy to beware of the love of money
- iii. Paul taught Timothy to pursue righteousness, godliness, faith, love, endurance and gentleness
- iv. Paul taught Timothy again to fight the good fight of the faith
- v. Paul taught Timothy who God is
- vi. Paul taught Timothy to teach rich people to put their hope in God and do good deeds
- vii. Paul taught Timothy to guard what was entrusted to his care

i. 2 Timothy 1

- i. Paul urged Timothy to live by the Spirit
- ii. Paul urged Timothy to join him in suffering for the gospel
- iii. Paul urged Timothy to guard the gospel teaching with the Spirit's help

j. 2 Timothy 2

- i. Paul taught Timothy to be strong in the grace of Jesus
- ii. Paul taught Timothy to be a disciple-maker
- iii. Paul taught Timothy to live like a good soldier, athlete and farmer
- iv. Paul taught Timothy to remember Jesus raised from the dead
- v. Paul taught Timothy not to allow quarreling about words

- vi. Paul taught Timothy to learn how to correctly handle the word of truth
- vii. Paul taught Timothy to flee the evil desires of youth and pursue righteousness, faith, love and peace, as well as a pure heart
- viii. Paul taught Timothy again not to quarrel with people

k. 2 Timothy 3

- i. Paul warned Timothy to beware of godless people
- ii. Paul taught Timothy to remember his way of life and the holy Scriptures
- iii. Paul taught Timothy that it is through the Scriptures that people become useful servants of God

l. 2 Timothy 4

- i. Paul charged Timothy to preach the Word in season and out of season
- ii. Paul urged Timothy to keep his head in all situations, endure hardship, do the work of an evangelist, and discharge all the duties of his ministry

5) Leadership development in a cross-cultural context

(based on the book *Leading Cross-Culturally* by Sherwood G. Lingenfelter, 2008)

- a. Inspire with a vision of the kingdom of God
- b. Build trust
  - i. Learn about the local culture
- ii. Put developing Christian community ahead of projects and tasks
  - (1) Emphasize our new identity in Christ, not in culture or ethnicity
  - (2) Commit to each other as the body of Christ through the Holy Spirit



- (3) Learn to love one another like Christ
- (4) Serve in diversity
- (5) Work together in unity
- (6) Submit to one another
- (7) Speak graciously
- (8) Restore mercifully

iii. Learn to worship together

- iv. Engage in practical training to understand from each other's culture's viewpoint
- v. Learn to lead in a culture's context, respecting the people, accepting their differences, engaging them in ways that inspire trust

c. Empower the native leaders

i. Learn to be power-givers

(1) Let Jesus replace our quest for power

- (2) Be relational, not positional
- (3) Learn that people are more important than authority & control
- (4) Influence followers through integrity of character & depth of relationship
- (5) Learn from Paul's example of giving power to Philemon over his former slave Onesimus

ii. Learn to mentor

(1) Discern God's calling in a potential leader instead of looking for qualifications

- (2) Give the potential leader opportunities to lead, even to fail, in the context of mentoring
- (3) Always encourage, never condemn
- (4) Learn to confront with honesty

- (5) Inspire potential leader with God's vision
  - (6) Do not manage potential leaders, but help them to lead
  - (7) Release control, trusting God
- 6). Practical considerations in UBF context
- a. Help a potential leader in three stages
    - i. *Godliness*: Build personal faith (deal with past, issues, whatever prevents from becoming responsible); experience the love and power of God, the benefit of God's discipline
    - ii. *Healthy*: Experience success in personal life (graduate from school, get a job, form a family, bear fruit)
    - iii. *Influential*: "Feed my lambs"—learn to serve others, teach the Bible, be influential, sacrifice
  - b. Follow principles from Pastoral Epistles
    - i. Choose those who are a responsible head of a household (reveals character)
    - ii. Choose those who gain the respect of peers, others in the ministry
    - iii. Try to have not one but several leaders who can learn to love one another
  - c. Develop an honest relationship
    - i. Help the potential leader not to be overly dependent on current leader
    - ii. Help the potential leader to be comfortable to be honest and to disagree in private
  - d. Help the potential leaders' family

- i. Help the spouse and children to feel comfortable in the ministry, not victimized
  - ii. Help even the potential leader's parent(s)
    - e. Develop as a Bible student and teacher
      - i. Consistent Bible study, personal devotions
  - ii. Develop sound Biblical theology
  - iii. Learn how to teach the Bible, share personal testimony, give messages, communicate
    - f. Receive constructive criticism
  - g. Focus on learning humility, how to serve, how to work hard
  - h. Learn to manage own time, without a structure
  - i. Develop a network of support for potential leader (Bible teacher, spouse, etc.)
  - j. Be patient
  - k. Concentrate on developing Christ-like character

## 7) Conclusion

- a. Review main aspects of Jesus' ministry with disciples in John's Gospel
- b. Review main aspects of Paul's ministry with Timothy
- c. Review highlights of cross-cultural considerations
- d. Review highlights of practical considerations
- e. Emphasis on prayer, following God's leading, depending on God

## 2. 현지인 리더십 개발 및 이양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딤후 2:2).

한국 교회사를 보면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선교를 하였을 때, 리더십을 오랫동안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1884년 미국 북장로교가 선교를 시작한 이래, 그로부터 17년 후인 1901년 한국 현지인 리더 양성을 위하여 평양신학교를 세웠습니다. 1907년에 길선주, 방기창, 서경조, 송인서, 이기풍, 양전백, 한석진 등 7명을 목사로 임명하고, 그들에게 리더십 전권을 이양하였습니다. 그 후에도 주기철 목사 같은 많은 한국 현지인 리더들의 리더십을 개발하며, 그들에게 한국 일반 민중에 대한 선교를 맡겼습니다. 서양 선교사들이 한국인 지도자들에게 맡기고자 했을 때, 한국 지도자들은 영적으로 미숙할 뿐만 아니라, 걱정스러울 만큼 미신적이고 비성경적인 요소들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 가운데 한국 현지인 리더들에게 리더십을 이양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현지인 리더들의 리더십이 개발되고, 토착화된 한국식 전도와 목회가 이루어졌습니다. 더 나아가 선교사들 없이도 오늘과 같은 성공적인 사역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UBF의 선교 사역도 1세대 역사로 그치지 않고, 궁극적으로 세대를 거듭하여 토착화 및 발전 계승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지인 리더들의 리더십을 개발하고, 그들에게 우리가 가진 리더십을 적극 이양해야 합니다. 50주년을 맞은 UBF가 현지인의 리더십을 개발하고 그들에게 리더십을 이양하는 문제에 대해서 힘써야 할 때입니다. 이 발표를 통해 현재 UBF 선교 현장의 리더십 계승 상황을 점검해 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 1) 선교현장의 리더십 계승 사례들

현재 UBF 선교현장에는 리더십계승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유형(type)이 있습니다.

### (1) A 유형

현지인 목자가 지부 책임목자(director)이며, 현지인 목자 가정과 한국 선교사가정이 동역하는 유형입니다. 이 경우 현지인 목자들이 역사에 주인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성장합니다. 현지인 지부 책임목자가 개척 선교사를 비롯한 다른 선교사들보다 신앙연륜이나 영성이 다소 낮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선교사들은 현지인 리더를 세우고자 하는 방향 가운데 직접적인 간섭을 배제하고,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지부장을 돕고 있습니다. 미국의 시카고 센터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 (2) B 유형

개척선교사가 현지인 목자에게 모든 권한과 책임과 함께 목장을 완전히 물려주고, 자신은 그곳을 떠나 다른 곳에서 사역을 하는 유형입니다. 개척 선교사는 그 나라의 다른 지역의 새로운 지부(캠퍼스)를 개척할 수도 있고, 아예 다른 나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개척 선교사가 책임을 물려준 현지인 목자와는 영적인 유대관계를 잘 갖고 있지만, 해당 지부의 리더십에 대해서는 일체 간섭을 하지 않습니다. 영국의 경우 개척 선교사가 불가피하게 귀국하여 현지 목자가 전권을 갖고 지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 밖의 다른 곳에서도 이런 사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3) C 유형

한 나라의 본부가 ‘파워 스테이션’(power station) 역할을 하며, 현지인 목자들을 세워 지부장으로 임명하여 개척을 보내는 유형입니다. 파송된 목자는 자기가 개척하는 캠퍼스에 대한 전권을 가집니다. 이러한 예는 여러 곳 있습니다. 터키를 개척하는 포인트 선교사의 경우가 아주 좋은 예입니다. 그 외에도 현지인의 제 3국 파송, 자국 내 다른 지부 개척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의 유니락 지부의 경우 제임스 목자를 라고스 의대에 파송하여 섬기게 하고 있습니다.

### (4) D 유형

한국의 선교사가 현지인 목자보다 월등히 수가 많은 지부의 유형입니다. 이 경우는 공동체가 한인교회 분위기를 이루어 현지인들이 소외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따라서 현지 학생 양들을 초청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국 2세선교사들이 있지만 현지인들의 눈에는 2세들도 한국문화를 가진 한국인으로 보이기 때문에 문화적 괴리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선교사들이 한 지부에 많이 모여 있을 경우, 개척 신앙을 잃고 선교 동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의 4가지 유형들 중에서 ‘D 유형’을 제외한 세 개의 유형들은 현지인 리더십 계승과 관련하여 추구할 만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B 유형’을 제외하고, ‘A’와 ‘C 유형’은 현지인 리더가 리더십의 전권을 행사하지는 못한다는 제약이 있습니다. ‘A 유형’의 경우 시니어 선교사들이 어느 정도 거리를 둔다고 해도 현지인 리더의 입장에서는 시니어 선교사들을 상대로 리더십을 행사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C 유형’도 자기 지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지만, 본부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완전한 리더십 이양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유형은 ‘B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B 유형’은 처음부터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먼저 ‘A 유형’의 단계를 거쳐야 하고, 이 단계가 어느 정도 지나면 ‘B 유형’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B 유형’과 같이 현지인들을 리더로 세우고, 그들에게 리더십을 완전히 이양하기 위해서는 선교사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먼저 선교사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선교만을 목적으로 하고, 선교에 도움이 된다면 어떠한 희생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끊임없는 영적 성숙을 통하여 자신을 비우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선교사들로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수백 년 동안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긴 역사적 안목 가운데 선교 역사를 섬겨야 합니다. 선교사님들은 선교지에서 그리스도의 몸 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청춘을 다 바쳐 개척 역사를 감당했고,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지인 지도자를 책임자로 세우고 모든 것을 내어주고자 할 때, 자기 상실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낮아짐과 비움을 생각하

며 선교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 주고 희생하는 정신을 가질 때 선교사로 끝까지 충성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 2) 선교사와 현지 리더와의 관계성의 단계

선교사는 현지 리더와의 관계성에서 다음과 같은 세 단계를 겪어야 합니다.

### (1) 부모의 단계입니다.

초기 개척기에 현지인은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고, 선교사는 영적 부모의 위치에 있는 상황입니다. 부모란 어린자녀에게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는 존재입니다. 전도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련하고, 메시지를 섬기고, 예배를 섬깁니다. 이런 중에도 선교사의 목표는 잠재적 현지인 지도자를 찾아내고 그들을 양육하는 것에 두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현지인 리더를 양성하여 세우고자 하는 그림을 갖고 선교 역사를 섬겨야 합니다. 선교지 교회의 지도자는 결국 현지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이런 그림을 가지고 선교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그림이 없이 선교를 한다면 그 지부는 토착 교회로서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 (2) 동역자의 단계입니다.

현지인 지도자가 성장하게 되면 적절한 시기에 선교사는 부모의 역할에서 동역자의 역할로 자신의 역할을 바꾸어야 합니다. 동역자의 단계란 현지인 지도자와 선교사가 모든 면에서 대등한 관계에 있는 상황입니다. 사역의 비중에서도 대등하도록 노력하고, 모든 의사결정에서도 서로 동등한 권한을 가져야 합니다. 이 시기는 ‘갈등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선교사는 부모의 단계에 있을 때가 더 힘들지만 가장 즐겁게 사역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선교사가 갈등을 두려워하여 계속 부모의 단계에 남아 있고자 한다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선교지에서 일생을 드러서 헌신했는데 현지인 리더나 양들과 불편한 관계가 된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에도 덕이 되지 않고 본인은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선교사는 고통이 따르더라도 이를 감수하며 현지인 지도자를 세워야 합니다.

### (3) 후원자의 단계입니다.

선교사가 현지인 지도자의 후원자로 한 걸음 더 물러나는 단계를 말합니다. 이 단계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특히 그 시기를 놓치면 안 됩니다. 선교사는 현지인 지도자를 자신이 키웠기 때문에 그의 영적 성장과정을 다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지인 지도자의 미숙함이 잘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기가 키운 현지인 지도자를 동역하고 후원하는 일은 상당한 영적, 인격적 성숙과 겸손 없이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선교사의 삶입니다. 선교사는 현지인들이 할 수 있는 사역을 최대한 물려주고 자신은 점차 물러나서 아직 현지인들이 할 수 없는 분야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상담, 순회심방, 성경가르침, 성경연구, 문서사역 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곳을 개척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곳을 개척하는 이 일이 가장 좋습니다. 같은 언어권에서 다른 지역을 개척하면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책임자로 계속 있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개척역사를 감당하였습니다. 이때 그는 에베소 교회에 안디옥 교회 사람을 데려와 리더로 앉힐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바울은 충성된 한 사람, 루스드라 출신의 현지인 디모테를 책임목자로 세웠습니다. 이로서 현지인 중심의 교회성장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선교사 생활 20여 년의 1-3차 선교 여행과 및 로마 체류 동안 소아시아 전역, 유럽 전역을 개척하여 현지인 리더들을 세우고 그 지역을 떠났습니다. 심지어 로마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도 복음전도로 로마개척의 기초를 놓고 순교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말년에 그의 손에 남은 것은 낡은 성경 두루마리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도 그는 할 수만 있으면 자비량을 하였습니다. 그의 선교의 모델은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까지 아무 조건 없이 죄인들을 위하여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는 일생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체험하고자 했습니다. 선교사는 목회자라기보다는 개척자입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현지인을 키우고 세워서 사역을 넘겨주고, 자신은 다시 개척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다시 개척하기 전에 국제 본부나 한국 본부에서 어느 정도 재충전 및 새로운 설계를 한다면 좋을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으려면 우리의 인생 목적이 순수해져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기도 제목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평생 첫째 기도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리더십을 이양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이양 자체만을 위해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키워야 합니다. 어느 정도 스스로 할 수 있는 수준이 되도록 제자양성에 힘써야 합니다. 마치 자전거를 타도록 뒤에서 잡아주고 나중에는 천천히 놓아주어 혼자 타게 하듯이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가운데 선부른 리더십 이양은 역사의 실패를 초래하고, 선교사는 리더십 이양을 위한 노력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점은 선교사와 현지 목자간의 신뢰입니다. 선교사와 현지 목자는 솔직하고 서로 신뢰하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 스승과 제자, 막역한 친구간의 신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세우고자 해야 합니다. 깊은 신뢰성이 있다면 계승 역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3) 영국 런던 UBF의 사례

제가 개척한 영국 런던 UBF의 사례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영국 런던 선교 역사를 감당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유들로 현지 목자들에게 리더십을 넘겨야함을 깨달았습니다.

#### (1) 문화차이

아무리 한국 사람이 영국문화를 수용하고 이해하려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 (2) 같은 민족이라는 사실에서 오는 후배들(양들)의 시니어 현지 목자들에 대한 순종심 형성

이것은 가족과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 민족이 다른 민족에 대한 어쩔 수 없는 거부감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며, 같은 족속의 리더에게 순종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선교사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 사람이 와서 자기들을 통제한다는 잠재의식이 있습니다. 또한 선교사도 순수하게 복음만을 가르치기가 어렵고 수용하기도 어렵습니다.

복음과 함께 한국문화가 심어지는 것이 불가피한데 현지인들 사이에서는 이 문화이식에 대한 거부감이 강합니다.

### (3) 언어의 한계

아무리 언어를 정복한다 해도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 (4) 주인의식

현지인들은 자기 나라에 대한 심정, 즉 애국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선교사들은 그들의 애국심에서 차이가 납니다.

이런 상황들 때문에 현지 목자들이 성장하기 시작한 지난 1999년부터 분명한 리더 양성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즉, 앞으로 영국 런던 역사의 실제적인 주인이 되고, 영국 전체를 향한 비전과 국가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고 섬기도록 했습니다. 지부장 선교사였던 저는 역사가 커지면 영국역사는 온전히 현지 목자에게 맡기고, 유럽 및 세계선교 지원에 힘쓰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 구체적인 실천 과정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① 2001년부터 현지 목자를 요회 목자로 세우고 실제적인 권한을 주었습니다. 즉, 요회 역사 내의 결정에 대한 전적인 자율권을 주고, 요회 내 그룹을 공부시키도록 했습니다. 이 그룹에는 선교사들도 포함됩니다. 이런 가운데 전체역사에 대한 활발한 의견 개진을 하게하고, 이를 수용하였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가 아니면 거의 다 수용하였습니다. 모임의 운영, 예배의 진행, 일반적인 분위기가 영국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양들의 입장에서 모임을 이끄는 사람, 앞에 나오는 사람이 거의 다 영국 사람이므로 영국 교회로 느끼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었습니다.

② 현지 목자를 주일예배 메신저로 세웠습니다. 처음에는 2명의 목자들이 번갈아 메시지를 전하게 하였습니다. 얼마 동안은 지부장 선교사가 초안을 써 주고 스스로 적용하여 전하도록 하였습니다. 지난 10년간 그와 같이 한 결과 현재는 대부분 자립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은 4명의 목자들이 메신저들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③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영국목자가 형제 선교사 그룹, 자매 선교사 그룹, 현지 목자 그룹의 말씀 공부를 섬기게 하였습니다.

④ 현지 형제목자 소감모임(약 8-10 명 참석)에는 현지 목자들만 참석합니다. 선교사는 참석하지 않고 현지 목자가 모든 것을 관할하도록 하였습니다.

⑤ 1년에 2회 현지 목자수양회 및 세미나를 갖습니다. 현지 목자들이 전체 프로그램을 인도하고 진행합니다. 이때에 선교사는 참석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방향은 새 양들이 모임에 헌신하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⑥ 재정 집행 및 감독에 관해서도 현지 목자에게 전권을 주었습니다. 지부장 선교사가 집행하는 것 등 센터 비용 관련 모든 지출에 대해 현지 목자가 실무자로부터 한 달에 한 번씩 보고를 받게 하였습니다. 선교사가 지출을 할 때도 사전에 승인을 받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지화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현지 목자들의 헌신이 뚜렷하게 증가하였습니다. 젊기 때문에 주인의식을 갖고 왕성하게 일하게 되었습니다.

② 현지 목자들과 선교사들 간의 사랑의 관계성이 증진 되었습니다. 현지 목자들이 선교사들의 순수성 인정함으로써 사랑의 관계성이 깊어졌습니다.

③ 제자 양성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선교사 20명이 영국 제자 양성의 열매 총 1-2명을 맺었습니다. 반면 현지 목자들 2-3명에 의한 제자 열매는 총 7-8명입니다.

④ 현지 목자들이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현지 목자들이 선교사들을 품고 섬기고 선교사들을 가정에 초청하여 공동 생활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⑤ 복음적이면서도 영국화 된 분위기가 확립되었습니다.

⑥ 현지 리더십의 확립으로 영국 양들도 리더로 성장하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 4) 나가는 말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들을 쓰셔서 이 땅에 캠퍼스 제자양성을 통한 세계 복음화를 섬기는 특수한 사명을 감당하는 UBF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이 역사에 무수한 주님의 백성들을 일으키시고, 우리의 공동체를 세계 구속사에 귀하게 사용하셨고, 사용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우리가 과거 잠깐 쓰임 받았던 학생선교 단체가 아니라, 수백 년 지속적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현지인 리더십 개발과 이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세계 캠퍼스 선교 제자양성을 섬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계승 역사는 예수님의 역사요 사도 바울의 역사입니다.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를 알고 성육신의 스피릿으로 자신을 끊임없이 비우며 장구한 역사의식 가운데, 현지 목자 리더십을 힘써서 세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 **2. The Development and Passing on of National Leaders**

“And the things you have heard me say in the presence of many witnesses entrust to reliable men who will also be qualified to teach others(2 Timothy 2:2).

In the history of the Korean church, western missionaries did not hold leadership for long periods of time. Exactly 17 years after the North Presbyterian Church of the United States began the Korean Protestant mission work in 1884, the Pyongyang School of Theology was built in 1901 in order to train native Korean leaders. Seven Koreans (Gil Sun-ju, Bang Gi-chang, Seo Kyong-Jo, Song In-seo, Lee Gi-poong, Yang Jun-back, and Han Suck-jin) were appointed as pastors, and were given full authority of leadership in 1907. This appointment developed the leadership of Korean native leaders such as Rev. Ju Gi-Cheol, and put natives in charge of the Korean mission. Initially, these native Koreans seemed to be not only spiritually young, but also superstitious and unbiblical. Nevertheless, when the western missionaries handed leadership over to them with hope for them, native leadership gradually matured and formed naturalized Korean propagation and ministry. Consequently, this mission work has continued over several generations in the absence of western missionaries, and has produced fruitful results in ministry, as we can see today.

I think the reason why Korean mission work succeeded is that western missionaries developed Korean leadership actively, positively and handed leadership over to them relatively early. UBF mission work should also raise native leaders and delegate our authority to them actively so that mission work will not cease with the first generation but will be naturalized, succeeded, and developed in the followour generationstive refore, in view of the 50th anniversary this year, what we should pray for and pursue is nandour less than the growth of native leadership and leadership succession. ve refore, through this prowoutation I would like view view the situation of leadership succession autprowout UBF mission sites, and discuss the direction we should take moving forward.

## **1) Examples of leadership succession on UBF mission sites**

Presently, there are four types of leadership succession in UBF.

### **(1) Type A**

A native shepherd is the director of the chapter, and native shepherds and Korean missionaries co-work. In this case, native shepherds feed students passionately and grow with a sense of ownership in the ministry. There is some difficulty stemming from the fact that the native director of the chapter is often spiritually younger in his or her life of faith than other, in particular, pioneering missionaries, but this is not a big problem. Missionaries do not interfere directly and help the national leader while keeping their distance each other. Chicago UBF is a good example for this case.

### **(2) Type B**

Missionary pioneers hand their spiritual farm and all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over to native shepherds, leave that chapter, and begin ministry in other place. The pioneering missionary may pioneer a new chapter (campus) in another area in the same country, or they may go to another country. They have spiritual ties with the native shepherds to whom they gave responsibility, but they do not interfere with leadership in the relevant chapter at all. In England, for example, the pioneering missionaries ultimately returned to their home countries, so native shepherds are now serving the chapter with full authority. There are other several chapters of this type, but no detailed research has been done yet. I would appreciate any information about other chapters like this in the following session of discussion.

### **(3) Type C**

The head chapter of a country plays the role of a power station, and raises and appoints a native shepherd as a chapter manager, and sends him/her out to pioneer. The pioneering shepherd has full authority over the campus ministry that he is pioneering. There are

several examples of this type: Msn. James Point who is pioneering Turkey is a good model. Outside of that, dispatching natives to a third country and pioneering another chapter in their home country are being done actively. The Univ. of Lagos Chapter in Nigeria sent Sh. James to Lagos to pioneer Medical College and let him serve with full authority and leadership there. At his chapter, other native leaders are growing now and many students took part in their Easter conference.

#### **(4) Type D**

Korean missionaries far outnumber native shepherds. Natives are likely to feel left out because the community has the atmosphere of a Korean church. As a result, it is difficult to invite new native students. Although there are more Korean second-gen missionaries at these chapters, natives still sense a cultural gap since second-gens look Korean and practice Korean culture at least, in the eyes of natives. In addition, when many Korean missionaries gather in one chapter, they are much likely to lose the pioneering spirit and passion for mission work.

Among the four types described above, all except 'Type D' are desirable directions, worth pursuing in consideration for native leadership succession. However, 'Type A' and 'C' have a limitation in that native leaders cannot exercise full authority. In a 'Type A' case, no matter how much senior missionaries keep their distance, it may not be easy for native leaders to exercise leadership over senior missionaries. In a 'Type C' case, though natives can exercise leadership over their own chapter to some degree, it is not a complete leadership succession in that they are ultimately controlled by a head chapter. Therefore, a 'Type B' succession is what we should ideally seek. However, this kind of succession is not accomplished easily. We can progress to 'Type B' after passing through 'Type A' for a while, meaning that a native shepherds established as a director, co-works with other missionaries including senior missionaries (Type A), and eventually these Korean missionaries leave that chapter to pioneer another place, leaving the native director to manage the chapter and thereby achieving a 'Type B' succession of leadership.

That being said, what attitude should pioneering missionaries have in order to raise natives as leaders, and completely hand leadership over to them? In my opinion, missionaries should first establish their identities as missionaries. That is, we should have the attitude that our one and only purpose is mission work and any sacrifice is welcome if it helps this purpose. We should deny ourselves through continuous denial of growth, and become missionaries who seek only God's glory. By extension, one should serve mission work, not adopt as a long-term view of history from one's perspective on the future with a view through God's work as it is completed over centuries to come. Our missionaries have led the way.

We should work, devoting their entire youth, to ungodly communities that are a body of Christ in our hearts, and are still doing so now. Because of this, we may feel a sense of loss and unwillingness to raise a native leader as a person in charge and consequently, give him everything. However, we can handle God's mission work faithfully as missionaries until the end only by having a spirit of giving and sacrifice for mission work, while remembering how Jesus lowered and denied himself.

## **2) The stage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missionaries and native leaders**

Missionaries go through three following stages in their relationship with native leaders:

### **(1) The parental stage**

In the early period of pioneering, natives are like spiritual children, and missionaries are in the position of spiritual parents. Parents provide everything necessary for their children. Missionaries go out to reach, preach the gospel, teach the Bible, nurture and train students, deliver messages, and serve in worship service. In the midst of busy work, the aim of missionaries should be to find potential native leaders and nurture them. We should serve mission work with the intention of training and raising native leaders from the beginning, because a native should eventually become a leader in the church. Whether we begin



mission work with this aim or not makes a big difference, because without this underlying goal, it is difficult for a church to succeed as a naturalized church.

### **(2) The co-working stage**

If and when a native matures into a leader, missionaries should change their role from that of a parent's to that of a coworker's at the proper time. The stage of coworker is the state in which native leaders and missionaries have an equal relationship in every respect. They should try to contribute equal propositions to mission work, and have equal decision-making power. This period is also 'the period of conflict'. The parental stage is harder, but more enjoyable to missionaries. If a missionary tries to remain in the parental role, fearing the conflict of the second stage, problems arise. If he has an uncomfortable relationship with native leaders or students after devoting his whole life to the ministry, he cannot glorify God or practice virtue in church, and also may hurt himself. Missionaries should raise native leaders through self denial.

### **(3) The sponsor stage**

In this stage, missionaries take another step back as sponsors for native leaders. The sooner, the better. It's especially important this has to be done at the right time. Missionaries know native leaders' spiritual growth process because they nurtured the natives, which means that they can also see a native leader's weaknesses. Because of this, it is difficult to co-work and support native leaders without considerable spiritual, moral maturity and humility. However, this is the life of a missionary: one who hands over work that natives are able to do, and steps back and handles work in the field that natives are not able to do. They can give counseling, give guides for visitors, study and teach the Bible, support lettering ministry, etc., and they can also pioneer other place like Apostle Paul, which is the best thing to do. It is not that difficult to pioneer another place that speaks the same language.

Apostle Paul pioneered the church of Ephesus but did not remain as the person in charge. He moved to other places endlessly and worked as a pioneer. At that time, he could have brought an already spiritually mature person from the church of Antioch to lead the Church of Ephesus, but he did not, instead he appointed Timothy, a faithful man from Lystra, as the shepherd in charge. Because he did that, the Church of Ephesus grew with native leadership. Paul pioneered the entire region of Asia Minor and Europe, raised native leaders, and left those areas. Through his 3 times of missionary journey, he laid the foundation of Rome pioneering. He pioneered Rome by preaching the Gospel even in prison. He entered the kingdom of God as a martyr. The only thing left in his possession in his later years was a worn-out scroll of the Bible. In the meantime, he financially supported himself whenever possible. Paul's life of faith was for our Lord Jesus Christ, who gave even his life for sinners on the cross, and he sought to know, learn, and experience Jesus Christ in his life. Missionaries are pioneers rather than ministers. They must repeat the process of pioneering a church, raising natives and handing over ministry, and pioneering again. It is also good to get recharged or make new plans at the international headquarters or at the Korea headquarters before going out to pioneer again. In order to handle all of this work, our purpose in life should be pure: Our primary prayer topic for our lives should be to glorify God, which was also the overriding prayer topic of our Lord Jesus.

One thing to be cautious, however, about when handing over leadership is not to rush and do it for its own sake. You should raise leaders up and strive to train them until they reach the level at which they can manage the ministry independently to some degree. Just as when teaching someone to ride a bike, you should guide and hold them at first, and slowly leave later so that he or she can ride independently. A rash leadership handover causes failures in ministry, and missionaries give up in their efforts to transfer leadership. Of course he does not mean to encourage to postpone passing over the leadership. The most important point of all is 'trust between missionaries and native shepherds'. They should have an honest, trusting, and faithful relationship with each other. You should try

to build the work of God through trust between like father and son, teacher and pupil, and close friends. With deep trust, succession work can be achieved smoothly.

### **3) The example of London UBF, England**

Although I feel inadequate, I want to share the example of London UBF, England, which I was used to pioneer. I did not research other chapter examples sufficiently because of the limited time and preparation, so I would appreciate it if you present other examples at the session to be followed.

While handling the mission work in London, England, I recognized the need to hand leadership over to native shepherds for the following reasons:

#### **(1) Difference of culture**

However hard Koreans try to accept and understand British culture, there is a limit.

**(2) Formation of obedience to senior native shepherds from sheep, coming from the fact that they are from the same ethnic group.**

You can think about this as one thinks about the same family or the same center. It is a true that nationals have an unwillingness against foreigners, and people are more likely to be obedient to leaders of the same nation. Subconsciously, natives may think that foreigners (such as missionaries) control them. In addition, missionaries inevitably plant Korean culture along with the Gospel. Natives resist such cultural transplant.

#### **(3) Language**

No matter how well you master the language, it cannot be perfect.

#### **(4) Ownership**

Native shepherds have heart for their own nation, they love their country.

These are the reasons why I took the clear direction of leader-training in 1999 when native shepherds began to stabilize. That is, I encouraged them to be practical owners of the London ministry and to serve it with vision for all England and with the spirit of ownership for the nation. As the head missionary of the chapter, I decided that if the ministry grew, I would entrust it to native shepherds entirely and strive to support Europe and World mission.

The process of fulfilling the direction was as follows:

① I appointed native shepherds as the head shepherds of fellowships and gave them practical authority since 2001. That is, I empowered them and let them, as much as possible, lead in fellowship and in studies. Missionaries were in the field as well. I encouraged native shepherds express their opinions in their ministry and I accepted them. I accepted almost all of them except on some critical issues. The operation of the community, progress of the worship service. The atmosphere were shaped with English culture. The worship service community and people visible on stage are almost the British so that students feel that they are in a British church.

② I established native shepherds as messengers for the Sunday worship service. At first, two shepherds delivered messages alternately. They wrote the first draft and delivered with their own application. The result of doing that for the last 10 years is that now native shepherds independently write messages for most occasions. Presently, four national leaders have become self-reliant messengers.

③ Native leaders delivered messages and served Bible study for a men missionary group, woman missionary group, and a native shepherd group.

④ Testimony sharing meeting for native shepherds: In the testimony sharing meeting for male shepherds on Saturdays (about 8-10 participants), only native shepherds attend, and a native shepherd hosts, announces, and comments; missionaries do not attend.

⑤ Conferences and seminars for native shepherds are held twice a year. Native shepherds lead and host the whole program. This played a critical role in helping new sheep to commit to the community.

The results of the naturalization are the following:

① The dedication of native shepherds significantly increased. They gained a sense of ownership in ministry and worked actively because they know that they are the leaders of the ministry.

② The love between native shepherds and missionaries grew. (Native shepherds acknowledged the pure heart of missionaries. A relationship of love was formed.)

③ Steady increase of disciples: In the last 10 years, in London, twenty missionaries have raised a total 1-2 disciples. On the other hand, two to three native shepherds have raised more disciples.

④ Spiritual growth of native shepherds: A phenomenon occurred in that native shepherds embrace and serve missionaries, and invite to live a common life.

⑤ An evangelical and British atmosphere is established.

⑥ With the establishment of native leadership, British students also wish to grow as leaders.

#### **4) Closing remarks**

Through the faith of our ancestors, God established UBF, a community that handles a special mission of world evangelization through campus disciple-making. He has raised countless people of the Lord and has used our community for the history of World salvation and is still doing so. If we do not want UBF to die out and remain as a history, and if we want to be used continuously for centuries to come, the development of and handover of native leadership are very important. I believe that we can serve world campus mission and disciple-making continuously in this direction. The history of succession is Jesus' history and Apostle Paul's history. It is the history of Christianity. I pray that we may know and accept this, deny ourselves with the spirit of incarnation, and strive to set up native leadership with a long-term historical awareness.

### 3. 선교사 계속 교육

#### CME(Continuing Missionary Education)의 필요성과 운용 방안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딤후 3:15-17).

##### 1) 사역을 지원하는 통합된 교육 기관의 필요성

지난 50년 동안 하나님께서 UBF의 사역을 크게 축복하셔서 93개국에 1800여명의 선교사를 파송하셨습니다. UBF가 지향하는 기본 사역 방향은 사도 바울이 감당한 전문인 자비량 사역입니다. 이 사역은 타 문화권에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도할 수 있는 강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반면 전문인 자비량 선교는 한계도 지니고 있습니다. 가장 큰 한계는 대부분의 시간을 삶의 현장에서 보내야 하기 때문에 복음 사역에 전념하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전문성을 발전시키고 이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기가 힘듭니다. 특히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전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또한 자립과 자녀교육, 제자양성의 사역을 지속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충전이 필요한데 충전할 시간과 여유를 갖기가 힘듭니다. 이로 인해 스트레스가 쌓여 탈진 상태가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장하는 제자들을 도울 수 있는 영력이 부족하여 제자들과의 사이에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UBF의 특징은 다양성입니다. 현재 UBF는 93개 나라에서 선교사들이 현지 대학생들을 제자로 삼는 역사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다양성이 존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다양성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각 나라와 지역의 독특한 문화적 특성으로 인해 상황화(contextualization)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각 나라의

문화적 특성으로 인한 것뿐만 아니라, 세대 차이로 인해서도 상황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화가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문제는 2세대와 3세대를 거치면서 1세대가 지녔던 복음신앙과 복음정신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개척 1세대가 지녔던 복음신앙과 복음정신을 상실하고 이질적으로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개척 조상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복음신앙과 복음정신은 문화와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가 간직해야 할 소중한 영적 유산입니다. 이 영적 유산은 다양성 중에서도 통일성을 갖게 하는 끈입니다. 우리에게서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아름다운 영적 유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말씀 중심의 신앙은 가장 소중한 영적 유산입니다.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 말씀을 단순히 믿고 순종하며,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이 시대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귀한 영적 유산입니다. 또한 캠퍼스 선교를 통해 제자도를 실천하는 헌신된 제자양성을 함으로써 미래의 영적 지도자를 키우는 것, 사랑의 공동체, 개척정신, 구유정신, 주는 정신은 참으로 아름다운 영적 유산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영적 유산들을 지킬 뿐만 아니라 대대로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를 지키고 우리의 후세들에게 물려 줄 수 있을까요? 성경은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창 18:19, 신 6:1-9, 마 28:20a, 딤후 3:14-17). 우리에게서 다양한 사람들이 공통 분모를 가지고 함께 일할 수 있는 통합된 교육기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UBF에는 다양한 재능을 가진 성숙하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전문성이 적재적소에 잘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문성을 가진 전 세계 UBF 구성원들이 참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 일할 수 있는 통합된 교육기관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고전 12:27-28).

UBF 교육기관은 크게 3가지 분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선교사들의 지속적인 교육(CME: Continuing Missionary Education), 둘째, 지도자 양성 교육(LDE: Leadership Development Education), 셋째, 차세대 양성 교육(NGE: New Generation Education)입니다. 이 시간에는 CME의 필요성과 그 운용 방안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 2) CME의 필요성

### (1) 개인적인 필요성

많은 선교사들이 10년 내지 20년 선교 사역을 감당하다가 탈진 상태에 빠진 경우가 많습니다. ‘어디엔가 가서 무조건 쉬고 싶다’고 호소를 하는 선교사들이 많습니다. 이들에게 조용한 가운데서 개인적으로 기도와 성경공부를 하며,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장소와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할 절실한 필요성이 있습니다.

① 많은 선교사들과 현지 목자들이 결혼 한 이후에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② 자녀들을 어떻게 영적으로 양육할 것인가에 대한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③ 전문인 자비량에 대한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전문인 자비량을 성공적으로 하지 못할 때 복음 사역도 성공적으로 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2) 사역적인 측면에서의 필요성

① 대부분의 경우 가정을 중심으로 복음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House church ministry’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이나 방향이 없어 이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② 많은 분들이 어떻게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자립적으로 공부할 수 있으며, 또한 성경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가르칠 것인가를 배우고자 하는 갈망이 있습니다.

③ 물질 뿐만 아니라 사람을 관리하는 성경적인 청지기에 대해 배우기를 원합니다.

④ 젊은 대학생들과 동역자들을 어떻게 카운슬링하며, 지역사회와 어떻게 관계성을 가질 것인가에 대해 배우기를 원합니다.

⑤ 현지 언어와 문화, 역사 그리고 문화 간의 소통의 기술에 대해 배우기를 원합니다.

⑥ 어떻게 현지인들을 제자양성하며, 이들을 어떻게 리더로 양성할 것인가? 또한 성장하는 현지 리더들과 어떻게 동역하며, 또 리더들이 한 모임을 책임지고 감당할만한

정도로 성장했을 경우는 리더십을 어떻게 이양할 것인가? 리더십을 이양한 후에는 그들을 어떻게 지원하고 그들과 어떻게 동역할 것인가에 대해 배울 필요성을 절실히 느낍니다.

### 3) 운영 방안

(1) 전문인 자비량 선교사는 정기적으로 안식년을 갖기도 힘들고 장기간 휴가를 얻기도 쉽지 않습니다.

사업을 하는 경우는 하루도 자리를 비우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들을 섬기기 위해서는 선교지를 심방하거나 아니면 온 라인으로 교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지금까지 개인이나 팀이 선교지를 심방하거나 지역 수양회, 지부장 수양회, 그리고 전체 수양회를 통해서 교육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또한 시카고 본부에 찾아가서 말씀공부를 하거나 한국에서 목자님들을 통해 말씀공부를 하여 왔습니다. 대부분 필요에 따라 산발적이고 단기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3) 많은 사람들이 깊이 있고 조직적인 커리큘럼과 자료들을 개발해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 ① 과목

##### A. 성경 공부

필요에 따라 이때까지 공부하지 아니한 새로운 성경을 공부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갈라디아서), ‘기독론’(골로새서), ‘교회론’(에베소서), ‘목자론’(딤후, 디도서), 사 무엘서에 나타난 인물 연구

##### B. 주제 공부

a) 어떻게 자립적으로 성경공부를 할 수 있으며,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 또 어떻게 성경을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가?

b) 결혼생활을 어떻게 영위할 것인가?

- c) 자녀들을 어떻게 영적으로 양육할 것인가?
- d) 가정교회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
- e)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 f) 어떻게 제자양성을 할 것인가?
- g) 메시지를 어떻게 작성하고 전달할 것인가?
- h) 물질과 사람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성경적인 청지기 직분)
- i) 어떻게 동역할 것인가? (선교사들, 현지 목자들, 타 선교기관, 지역사회)
- j) 젊은이들을 어떻게 카운슬링 할 것인가?
- k) 어떻게 자비량에서 성공할 수 있는가?
- l) 예배와 찬양
- m) 세례, 성찬, 결혼, 장례식

#### C. 역사 공부

- a) UBF 역사
- b) 선교지 역사 및 세계사
- c) 교회사

#### D. 언어와 문화 공부

- a) 현지어: 현지 대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수준 높은 현지어를 끊임없이 배운다.
- b) 읽고 사전을 찾아 볼 수 있는 정도로 성경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공부한다.
- c) 현지인들과 내면의 문제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그들의 문화를 공부한다.

#### ② 교육 방법

- a) UBF official website에서 온 라인으로 교육한다.
- b) 세계 본부와 한국 본부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짜서 교육한다.
- c) 한국의 전임 목자 및 원로 목자들, 미국, 유럽, 중남미, 아시아, 아프리카 등 각 곳의 시니어 선교사들이 선교지를 방문하여 말씀을 나눈다.

#### ③ 시행 방법과 시기

- a) 큰 그림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 b) 공동추진 위원회를 구성한다.
- c) 공동추진 위원회에서 결정하여 빠른 시일 내에 이를 시작한다.

### **3. Necessity and Management of CME(Continuing Missionary Education)**

“...and how from infancy you have known the holy Scriptures, which are able to make you wise for salvation through faith in Christ Jesus. All Scripture is God-breathed and is useful for teaching, rebuking, correcting and training in righteousness, so that the man of God may be thoroughly equipped for every good work”(2Ti. 3:15-17).

#### **1. Necessity of a coordinated education system to support UBF ministry**

For the last 50 years God has blessed UBF ministry greatly we have over 1,800 missionaries in 93 nations. UBF is predominantly a self-supporting ministry according to Apostle Paul's example. This type of ministry has its strengths to bring the gospel message effectively to countries of different cultures.

However, self-supporting ministry also has its limitations. The greatest limitation is to spend most of the time in their jobs. Therefore it is hard for them to devote themselves to the work of God. Because of this, it is not easy for them to develop professional career as minister. Especially, they do not have enough time to meditate on the word of God and deliver the gospel message effectively. They need recharging time in order to raise children, support themselves financially, and raise disciples of Jesus. However, they do not have time to take proper rest and revitalize themselves when they need it. Sometimes they are exhausted and burned out. Furthermore, conflict arises between them and native growing disciples due to their lack of spiritual strength.

The character of UBF ministry is variety. UBF has ministries in 93 nations, raising disciples from college students. There are many varieties in UBF ministry because each country has its own culture. In addition, there is also contextualization due to the unique

character of each culture. Contextualization happens not only because of different cultures but also because of different generation gaps. Conflict arises because of lack of understanding between the first generation of missionaries and their children who were born in the native lands. It is natural to have such conflict. However, the real problem is that the gospel spirit is becoming weaker as the time goes by. The second and third generation may lose the gospel faith and spirit and become worldly.

The gospel faith and spirit which we have inherited from our spiritual forefathers are our spiritual treasures. They are precious beyond time and space. Our inheritance is the bond that brings unity among variety of UBF ministry. There are many beautiful spiritual inheritances. One of the most precious spiritual inheritances is Bible-centered faith. To believe the Bible and obey it and hold onto the word of God and live by faith is our treasured spiritual inheritance. We have other inheritances such as raising Jesus'disciples and future leaders from college students, community of love, pioneering spirit, manger spirit, and giving spirit. We need to keep them, and we have an obligation to pass them on to the coming generations.

In this situation we need to somehow build unity in order to keep spiritual legacies and pass on them to the coming generations. How can we do that? The Bible teaches us the importance of education(Ge 18:19, Dt 6:1-9, Mt 28:20a, 2Ti 3:14-17). We need a coordinated educational program where all of different people can work together allUBF there are many talented, mature and experienced people around the world, but their expertise is not being well utilized at the present for this purpose. It seems prudent for us as a ministry to develop a well-planned and coordinated educational system for our UBF members worldwide(1Co 12:27-28).

We may think about three main works in the UBF education system. First, Continuing Missionary Education(CME). Second, Leadership Development Education(LDE). Thirdly, New Generation Education(NGE). Now I want to focus on CME.

## **2) Necessity of CME**

### **(1) Personal needs**

Many of our missionaries are personally exhausted and ‘burned out’ after 10 or 20 years of service in the mission fields. There are many missionaries who want to go to some place and take rest. We would like to offer them a place to withdraw for Bible study, prayer and fellowship with God’s people.

- ① Many missionaries’ and native leaders’ marriage are in need of help.
- ② Many need help in educating their children spiritually.
- ③ Many need help in being successful to support themselves. If they are not successful in financial life they cannot be successful for their spiritual mission life.

### **(2) Ministry Needs**

① In most cases we start our ministry from our home. Many of our missionaries feel inadequate to carry out their house church ministry and are longing for help.

② Many eagerly want to further develop their understanding of the Bible as whole, and their ability to teach the Bible effectively.

③ Messengers want to know how to prepare the messages and how to deliver them.

④ Some need to learn Biblical principles of stewardship (both of finances and human resources).

⑤ Many want to learn how to counsel young people and co-workers, and how to integrate into their community.

⑥ Many desperately need to learn their local language, culture, history, and cross-cultural communication skills. Many want to learn how to successfully raise native leaders, including how to identify those qualified to be leaders and how specifically to

entrust leadership to them, as well as how to continue to work with, support and mentor them after they assume leadership.

### **3) Management**

**(1) Generally, missionaries who are self-supporting cannot easily leave their mission fields.**

They cannot have regular sabbatical years or long term vacations. If they are business men they cannot leave their business even one day. In order to serve them we need to visit them or serve them through 'on line' system.

**(2) Until now, we had to go in person to meet them, at conferences such as directors' conference, regional conference, or international conference;** the help was sporadic, not systematic or with any long-term direction. Sometimes missionaries visit Chicago Headquarters and study the word of God. Other times they go to Korea and study the word of God in Korean.

**(3) Many people feel that we need to develop in-depth and systematic curriculum and materials.**

#### **① Subjects**

##### **A. Bible studies**

We can study the Bible according to one's need such as books which they did not study in the past. For example, Christian freedom(Galatians), Christology(Colossians), the universal church(Ephesians), Shepherdology(1 and 2 Timothy, Titus), and Character study revealed in 1 and 2 Samuel.

##### **B. Topical Bible Studies**



a) How to self-study the Bible understanding the Bible as a whole; how to teach the Bible effectively?

b) How to manage marriage?

c) How to raise children spiritually?

d) How to manage house church?

e) How to reach out?

f) How to raise native disciples?

g) How to write messages and deliver them?

h) How to manage finances and human resources? (Biblical principles of stewardship)

i) How to co-work with missionaries, native leaders, other mission organizations and local communities?

j) How to counsel young people?

k) How to be successful in self supporting?

l) How to worship and praise?

m) How to practice baptism, communion, marriage and funeral services?

#### C. History studies

a) UBF history

b) Mission field history and world history

c) Church history

#### D. Language and culture

a) Local languages: to learn local languages enough to teach local college students.

b) To study Hebrew and Greek for Bible study enough to read and look up a dictionary.

c) To study local cultures to have deep fellowship with native students.

#### ② Education methods

a) On line education through the UBF official website.

- b) By programs from the international headquarters or Korean headquarters.
- c) Korean staff shepherds and senior missionaries from all over the world visit local missionaries and share the word of God.

③ How to start and when to start

- a) To start from small things with a big picture
- b) To form a committee
- c) To start as early as possible according to the decision of the committee.

## 4. 차세대 동력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베드로전서 2:9).

### 1) 서론

(1) 동력화(Empowerment)의 개념

(2) 차세대(Next Generation)의 개념

### 2) 차세대 동력화

(1) UBF 차세대 동력화의 필요성

- ① 예수님의 절대 지상명령
- ② 백년대계의 선교역사 준비와 신앙유산의 계승
- ③ 다음세대의 영적리더 양성과 차세대들의 잠재력 개발
- ④ 사역의 세계화
- ⑤ 다원주의와 인본주의 그리고 세속주의로부터의 보호
- ⑥ 선교사들과 학사목자들의 특별한 관심과 이슈

(2) 차세대 동력화에 나타난 성경의 예

- ① 아브라함을 통한 이삭의 동력화
- ② 이삭과 레베카를 통한 야곱의 동력화
- ③ 차세대 요셉의 동력화
- ④ 차세대 모세의 동력화
- ⑤ 모세를 통한 여호수아의 동력화
- ⑥ 한나를 통한 사무엘의 동력화

- ⑦ 부모를 통한 에스라의 동력화
- ⑧ 사가랴와 엘리자벳을 통한 차세대 세례요한의 동력화

### **(3) 교회사와 인류사에서 차세대 동력화의 성공 사례들**

- ① 모니카를 통한 어거스틴의 동력화
- ② 수산나를 통한 존 웨슬리의 동력화
- ③ 벤 카슨(Ben Carson, 1951년- , 미국)의 동력화
- ④ 허드슨 테일러 (1832년- 1905년, 영국)의 동력화
- ⑤ 아브라함 링컨 (1809년-1865년, 미국켄터키)의 동력화
- ⑥ 전해성 씨 (1934년- , 한국)의 차세대 동력화
- ⑦ 강영우 박사 (1944년- , 한국)의 동력화
- ⑧ 에이미 추아 (1962년- )의 차세대 동력화

### **(4) 유대인의 차세대 동력화**

- ① 쉘마(Shema) 교육: 토라암송과 탈무드 가르침을 통한 신앙, 신성 교육
- ② 직업교육과 인성교육: 공동체 교육과 세계화 교육
- ③ 유대인 차세대 동력화의 열매
- ④ 유대인의 차세대 동력화가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주는 교훈

### **(5) UBF 차세대 동력화**

- ① Samuel Lee 선교사의 차세대 동력화
- ② Mother Sarah Barry 선교사의 차세대 동력화
- ③ John Jun 선교사의 차세대 동력화
- ④ UBF의 일반적인 차세대 동력화와 리더쉽 양성
- ⑤ 차세대 동력화를 위한 효과적인 영적 환경

## **3) 패널 발표**

## **4) 토의**

I. 차세대 동력화를 위해 UBF가 해온 것	지금까지의 사역	1. 차세대 동력화를 위해서 UBF는 그동안 어떠한 수고를 하였는가?
	UBF 장점	2. 차세대 동력화에 있어서 UBF의 장점은 무엇인가?
	UBF 단점	3. 차세대 동력화에 있어서 UBF의 단점과 장애물을 무엇인가?
II. 차세대 동력화의 주체	부모	4. 차세대 동력화를 위한 부모의 역할은 무엇인가?
	교회	5. 차세대 동력화를 위한 UBF 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부모와 교회의 협력	6. 부모와 교회가 차세대 동력화를 위해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III. 균형	사명과 자녀교육	7. 사명을 감당하면서 어떻게 자녀교육을 할 수 있는가?
	제자양성	8. 양도 제자를 세우고 자녀들도 제자들로 세울 수 있는가?
	세계선교	9. 세계선교와 차세대 동력화를 어떻게 균형있게 섬길 수 있는가?
IV. 가정교회 (전체 역사에 90%)	장애물	10. 가정교회로서 차세대 동력화를 하고자 할 때 어떤 장애물이 있는가?
	가능성과 방법	11. 어떤 가능성과 방법이 있는가?
V. 앞으로의 철학과 전략	철학과 전략	12. 차세대 동력화를 위해서 어떠한 영적인 철학과 전략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

## 5) 결론

### (1) 차세대 동력화를 위한 제안

- ① 유대인들의 차세대 동력화 모델
- ② 교회와 교회, 교회와 가정, 각 가정교회와 가정교회가 연계, 서로 협력
- ③ 차세대들의 철저한 영적무장을 위해 힘쓰는 영적인 환경

- ④ 교회와 가정에서 성경이 가르치는 영적인 가치관과 원칙에 따라서 사는 것이 가장 축복되고 영광된 삶으로 인식, 인정되는 영적 환경
- ⑤ 차세대 정체성교육: 다음 세대의 주인공
- ⑥ 사역의 철학과 방향, 전략 및 방법 등, 사역에 관련된 지속적인 내부교육과 홍보
- ⑦ 1세대들이 차세대들을 하나님의 역사에 ‘나실인’으로 헌신하는 신앙 교육
- ⑧ 1세대 선교사들을 위한 특강이나 세미나를 통한 보충교육
- ⑨ 본부와 대륙 차원에서 단기적, 중기적, 장기적인 차세대 동력화 프로그램
- ⑩ 차세대 교육과 동력화를 위한 성경공부 자료개발
- ⑪ 본부와 대륙별로 차세대 동력화를 위한 차세대 동력화의 이론을 뒷받침해 줄 전문인력과 사역자 양성
- ⑫ 다른 선교단체와의 협력과 협력선교
- ⑬ 전체 차원에서 차세대들의 네트워크 강화, Global Leaderships 비전 제시
- ⑭ 차세대 동력화 역사를 위한 각 대륙별 거점이나 상호협력체제 조성
- ⑮ 차세대 동력화의 홈페이지 관리

## (2) 차세대 동력화를 위한 기도제목

- ① 사역의 철학과 방향에 기초한 지속적인 정체성교육과 내부홍보
- ② 차세대 동력화를 위한 성경교재 개발
- ③ 사역의 제자양성전략에 기초한 리더쉽 프로그램 개발과 훈련
- ④ 차세대 동력화를 위한 전임 사역자 양성
- ⑤ 차세대 동력화를 실천하기 위한 후속 조치
- ⑥ 차세대 동력화를 위한 본부 및 시온성 기능강화
- ⑦ 네트워크 및 외부 단체와의 협력

## **4. Empowering the UBF's Next Generation**

“But you are a chosen people, a royal priesthood, a holy nation, a people belonging to God, that you may declare the praises of him who called you out of darkness into his wonderful light”(1 Peter 2:9).

### **1) Introduction**

(1) Defining the term, ‘empowerment’

(2) Defining the ‘next generation’

### **2) Empowering the Next Generation**

(1) Empowering UBF's Next Generation; Why?

- ① Empowering the next generation is Jesus' great commission
- ② We are to look ahead 50 and 100 years of UBF ministry and succeed the UBF spiritual legacy.
- ③ We are to raise leaders among the next generation and develop their potential.
- ④ It enables globalization of UBF ministry.
- ⑤ It is a great interest of UBF missionaries and shepherds.

(2) Biblical Examples of Empowering the Next Generation

- ① Abraham empowering Isaac
- ② Isaac and Rebecca empowering Jacob
- ③ Joseph
- ④ Moses
- ⑤ Moses empowering Joshua

- ⑥ Hannah empowering Samuel
- ⑦ Ezra's parents empowering Ezra
- ⑧ Zachariah and Elizabeth empowering John the Baptist

**(3) Successful cases of empowerment of the next generation in church history and in today's society**

- ① Augustine's mother, Monica
- ② John Wesley mother Susannah
- ③ Ben Carson's (1951-, USA) mother
- ④ Hudson Taylor's (1832-1905, UK) parents
- ⑤ Abraham Lincoln's (1809-1865, Kentucky, USA) two mothers
- ⑥ Hye Seong Jeon (1934- USA), an immigrant mother
- ⑦ Dr. Young Woo Kang (1944-, Korea), a blind man's empowering
- ⑧ Amy Chua (1962-, USA), a tiger mother - Passion, Vision, Faith

**(4) Empowering the Next Generation; the Jewish way**

- ① Shema: the emphasis on the spiritual education through the memorization of the Torah and the Talmud teachings.
- ② Professional education and building character: community and globalization.
- ③ Fruits of Jews' empowering the next generation.
- ④ What Christian leaders can learn from Jews' empowerment of the next generation.

**(5) UBF's Empowering the Next Generation**

- ① The late Dr. Samuel Lee's empowerment of the next generation.
- ② Mother Sarah Barry's empowerment of the next generation.
- ③ Missionary John Jun's fostering of the next generation leaders.
- ④ UBF's empowerment and fostering leadership.



⑤ Creating an effective spiritual environment for the empowerment of the next generation.

### 3) Panel Presentation

### 4) Discussion

<b>I.</b> What UBF has been doing until now to empower the next generation	UBF's new generation ministry until now	<b>1. What has UBF done so far to empower the new generation?</b>
	UBF's strengths	2. What are UBF's strengths in empowering the next generation?
	UBF's weaknesses	3. What are UBF's weaknesses and hindrances in empowering the next generation?
<b>II.</b> Main source of empowerment	Parents	4. What is the role of the parents in empowering the next generation?
	Church	5. What is the role of the UBF Church in empowering the next generation?
	The cooperation between the parents and the church	<b>6. How can the parents and the church effectively cooperate to empower of the next generation?</b>
<b>III.</b> Balance	Mission and child education	<b>7. How can we raise our children and serve the ministry at the same time?</b>
	Disciple-making	8. Can we raise our Bible students as disciples as well as our own children?
	World mission	9. How do we balance between serving the world mission and empowering the next generation?

<b>IV. House churches (90% of our ministry)</b>	Hindrances	10. What are some hindrances in empowering the next generation in house churches?
	Possibilities and Methods	11. What are some possibilities and methods?
<b>V. Philosophy and strategies for the future</b>	Philosophy and strategy	12. What kind of spiritual philosophy should we pursue and what kind of strategies could we use to empower the next generation?

## **5) Conclusion**

### **(1) Proposal for empowering UBF's next generation**

- ① Aim like the Jews in empowering the next generation
- ② Create a spiritual environment by establishing a close connection between the churches and the families
- ③ Cooperate to spiritually equip the next generation.
- ④ Creating an environment in the church and family, in which having a spiritual value system and living by the principles is acknowledged as a blessed and an honorable life.
- ⑤ Providing identity education to strengthen the next generation's identity as UBF's future leaders.
- ⑥ Public relations and internal education on UBF ministry's philosophy, direction, strategies and methods.
- ⑦ Spiritual education for UBF missionaries to help their children to commit as fulltime staffs.
- ⑧ Supplementary education through seminars and special lectures for the first generation missionaries, for them be able to empower the next generation.
- ⑨ Developing short-term, mid-term, and long-term programs to empower the next

generation at a global and continental level.

⑩ Developing Bible study materials for educating and empowering the next generation.

⑪ Fostering professional ministers in UBF, in a global and local scale, who can support and explain empowering the next generation on a theological ground.

⑫ Cooperation with external organizations and cooperative mission.

⑬ Strengthening UBF new generation network and presenting global leadership vision.

⑭ Creating continental base camps and raising coordinators to continuously empower the next generation.

⑮ Maintaining the websites.

## **(2) Prayer topics in empowering the next generation**

① Identity education based on UBF's ministry philosophy and orientation.

② Developing Bible study materials specifically for the purpose of empowering UBF's next generation.

③ Developing leadership-focused programs based on UBF's disciple-making strategies.

④ Fostering professional missionaries to empower UBF's next generation.

⑤ 'After Work' to empower UBF's next generation.

⑥ Strengthening the function of the UBF headquarters and Korea UBF.

⑦ Cooperation between the UBF Networks and external organizations.

## 5. 자녀교육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와 의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창세기 18:19).

교육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는 탄탄한 2세 교육 체계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공교육이 기독교 사상에 대해 적대적이 되어가면서 우리 사회의 가족 가치체계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많은 2세들이 대학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의 부모의 교회를 더 이상 참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복음전파에 대한 사명을 가진 부모들의 자녀들 가운데 그 신앙을 유지하는 비율은 10% 이하입니다. 이런 도전적인 상황에서 기독교교육은 2세들이 그들의 부모들의 신앙 유산을 계승하고, 동시에 성장하는 UBF 사역에 필요를 채우며, 우리의 사역을 힘 있게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기독교교육은 또한 각각의 ‘센터’사역을 섬기며, 2세들의 건강한 영적성장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50년 동안 UBF 역사와 함께하셨습니다. 우리가 또 다른 사명과 비전의 50년을 바라보며, 지금은 초등교육부터 대학교육까지 기독교교육관을 정립하며 장기적인 역사계획을 세울 때입니다. 이것이 꿈같은 소리처럼 들릴 수 있지만, 우리 사역의 존립과 다가오는 세대를 위하여 세계선교비전의 확장을 위해서 체계적인 교육계획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향후 50년에 대한 2세 사역의 전망은 처음 개척 세대의 것과는 매우 다를 것입니다. 우리가 현 세대를 뛰어넘어 캠퍼스 선교의 미래를 볼 수 있도록, 주님을 섬기는 젊은이들을 훈련할 수 있는 기독교교육관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1) UBF 학교의 목적

왜 우리에게 ‘UBF 학교’ 체계가 필요할까요? 왜 우리자녀들을 공립학교에 보내지 말아야 할까요? 자녀들을 공립학교에 보내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공립학교에 대한 대안책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대학까지 UBF 기독교학교를 세울 수 있습니다. UBF 학교시스템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수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UBF 사역의 정체성과 영적 유산을 전수하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효과적으로 섬길 수 있도록 준비시킬 것입니다. UBF 학교는 자녀들이 세속적인 사회의 압력을 이겨낼 수 있도록 교육시켜서 그들이 흔들리지 않는 성경진리에 굳게 서도록 할 것입니다. UBF 학교는 학생들이 성경적 진리에 굳게 서고 매일매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도록 도울 것입니다. 또한, 높은 수준의 교과과정을 준수하여 모든 학생들이 그들의 선택에 따라 어떤 대학이든지 입학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준비시킬 것입니다. UBF 학교의 전반적인 목표는 모든 학생들에게 성경적 기본진리를 공하여 그들이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전문적인 자립 사역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UBF 학교는 예수님의 재림까지 우리의 자녀들이 미래의 크리스천 지도자로 성장하도록 돕고 모든 학생들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성을 맺도록 도울 것입니다.

## 2) 현대 미국 교회의 예

The Synod of Slovak Evangelical Lutheran Churches와 the Lutheran Church-Missouri Synod는 루터파의 교회입니다. The Synod of Slovak Evangelical Lutheran Churches는 1902년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다 1971년에 교회의 문을 닫고 Missouri Synod와 합쳤습니다. The Missouri Synod는 미국에서 루터파입니다. 240만의 성도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에서 여덟 번째로 큰 개신교도입니다. 왜 Slovak 교단은 사라지고 Missouri 교단은 계속 유지되고 있을까요? 이것은 그들이 어떤 학교 체계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Missouri Synod는 Concordia 대학과 Concordia 신학교를 포함하여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활발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학교 체계는 교인들의 자녀들을 훈련하고 학생, 교직원, 교수, 부모님들 가운데 새로운 교인들을 모집하는데 중요한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학교 체계는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교회의 정체성을 부호하는 신학적 기초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 연구 UBF의 미래의 교인들을 위해서 교육 시스템을 정립하는데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 3) 2세 기독교교육

### (1) 부모들의 교육

아이들의 영아기부터 부모들은 아이들의 가장 좋은 선생님입니다. 가정은 처음이자 최고의 교육장소입니다. 부모로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의 리더들이 성경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2세 교육을 논의함에 있어서 우리는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봐야 합니다. 부모의 관점, 교회 프로그램의 관점, 그리고 사교육 시스템의 관점입니다.

자녀들의 믿음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부모들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부모들의 역할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가정에서의 자녀교육을 세 단계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한 살 때부터 열 두 살 까지는 발달 단계 혹은 믿음의 형성 단계, 열세 살부터 열 아홉 살까지는 성장 단계 혹은 신뢰형성 단계, 그리고 스무 살부터 스물 아홉 살까지는 성숙 단계 혹은 협력관계 형성 단계입니다.

발달단계, 소위 CBF 기간 동안에는 영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잠언 19:18은 말씀합니다. “네가 네 아들에게 소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고 죽일 마음은 두지 말찌니라.” 훈련의 도구는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훈련시켜야 합니다. 왜 그러합니까? 디모데후서 3:15-16은 말씀합니다.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성경을 공부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기 모세의 어머니는 그를 젖먹이면서 그의 영적인 정체성을 심어주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였습니다. 자녀들이 CBF에 참석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섬기니, 하나님께서 나의 아이들을 책임져주시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은 옳지 않습니다. 자녀들의 영적 성장의 기본책임은 부모들에게 달려있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들과 양질의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의 2세 교육을 무시하고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양이나 역사를 핑계로 부모로서의 역할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 성장 단계는 10대, JBF/HBF 시기입니다. 아이들에게 귀를 기울여줌으로서 그들과의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성육신’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기에 아이들에게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이 시기는 과도기로서, 부모들에게 가장 어려운 시기입니다. 십대들은 더 이상 그들의 부모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따르던 어린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기에 대한 성경적 뒷받침을 빌립보서에서 찾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로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 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빌립보서 2:5-7). 이 시기 동안에 부모들은 종이나 친구로서 자녀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십대들은 권위에 대해서 의문시하며 주로 친구들에게서 정체성을 찾고자 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포스트모던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공립학교와 친구들로부터 자유적인 생각들을 듣고 보게 됩니다. 그들은 또래 친구들로부터 압력을 받습니다. 그들이 UBF의 높은 수준을 따라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러한 십대들을 다루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비결은 의사소통입니다. 십대자녀들과 좋은 관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들과의 공통점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의 수준에서 접근해야 하며 그들이 관심 있어 하는 것들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부모의 권위는 그들의 반항심을 유도하며 깨어진 관계가 초래될 것입니다. 존중과 자유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2세들을 성장시킬 것입니다. 2세들의 교육은 장기간의 과제이며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영적인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자본들을 투자해야 합니다. 성육신 교육은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사회와 나라의 지도자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세 번째 성장 단계는 대학 생활을 통한 성숙과정입니다. 이 단계 동안, 우리는 우리의 2세 자녀들을 우리의 동역자로 이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단계를 ‘동역’(partnership)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단계의 대부분은 2세들은 유능하고 그들의 부모들을 돕고자 합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들은 그들이 도움을 부탁받는다면 얼마든지 그들의 부모들의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들을 신뢰하고 그들이 사역의 주인이 되도록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15은 말씀합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좋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하는 것은 부모와의 관계성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할 때 부모와 자녀들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모들이 자녀들이 어려서는 성경을 가르치고, 자녀들 성장함에 따라 그들에 대한 태도를 바꾸기를 권면합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의 말을 잘 듣고 그들의 결정을 존중해주어야 합니다. 그들이 대학생이 되면, 하나님 안에서 그들을 동역자로 영접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다음 세대의 지도자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권한을 줄 수 있습니다. 성경공부와 특별 훈련 통해서 다음 세대 지도자들을 양성하고 그들이 세계 선교 사명을 이어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 **(2) 홈스쿨링(Home Schooling)**

공립학교가 세속의 영향이 점점 커지면서 홈스쿨링이 몇몇의 크리스천 부모들에게 인기 있는 교육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많은 자료와 에너지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UBF는 집에서 자녀들을 교육시키기 원하는 부모들을 위해서 교육과정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여름 캠프를 통해서 교육 자료를 교류하고 교실수업을 이끌 수 있는 그룹 강의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3) 여름 캠프(Summer Camp)**

중고등학생을 위한 6-8주간의 여름 캠프를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때는 신구약에서부터 SAT와 대학준비과정까지의 과목들에 대한 강도 높은 수업을 통해서 모든 참가자들에게 영적, 지적인 훈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4) 스포츠(Sports based education)**

운동은 중고등부와 UBF의 또 다른 연결고리입니다. 스포츠를 통해서 서로에게 소속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경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써 함께 성장하고 우정을 쌓아갈 수 있습니다.



#### (5) 학생 수양회(Young Disciple Conferences)

자라나는 젊은이들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몇몇의 수양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젊은이들 간에 교류를 활발히 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 3) UBF 교육과정(private schools(K-12))

UBF는 성경공부에 강조점을 둔 초중고등학교 교과과정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자원의 유용도에 따라서 단일 지부 수준이 될 수도 있고, 지역 수준, 혹은 국가 수준의 UBF 학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배와 기독교 역사는 모든 학교의 의무과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학교는 학생들을 모집하는데 있어서 UBF 구성원들에게 우선권을 주지만, 빈자리가 있는 한 UBF 가족이 아닌 일반인에게도 개방할 수 있습니다.

UBF의 본부가 교사 모집과 훈련, 행정관리 지원을 할 것입니다. 교과서는 모든 학생들의 학문적 영적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합니다. UBF 학교는 성경적 기본진리를 따르며 초기 개척자들의 정신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 4) UBF 대학교

UBF의 세계선교 사명의 단일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UBF의 전체 대표와 특별 자문 위원회에 의해서 지정된 위치에 오직 하나의 UBF 대학이 세워져야 합니다. UBF가 대학의 설립과 행정을 유지할 수 있는 자원을 공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상세 사항들은 이후에 계속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 **5. 2<sup>ND</sup> Generation Education Ministry**

“For I have chosen him, so that he will direct his children and his household after him to keep the way of the LORD by doing what is right and just, so that the LORD will bring about for Abraham what he has promised him”(Genesis 18:19).

Education is our future. Our UBF church will survive next generation through solid 2<sup>nd</sup> generation education system. The basic core family value system in our society has eroded as the public school system becomes hostile towards the Christian value system. Many 2<sup>nd</sup> generation children leave churches of their parents before entering into college life. The retention rate for the children of evangelical Christian parents is below 10% in the USA. In this challenging environment Christian education will play a significant role in retaining 2<sup>nd</sup> gen children to follow their parents’ spiritual heritage and at the same time empower our ministry with resources that matches the needs of the growing UBF members worldwide. Of course, Christian education will serve the ministry of each local chapter and the healthy spiritual growth of our 2<sup>nd</sup> gen children will be secured.

God has been with UBF for last 50 years. As we enter into another 50 years of mission and vision, it is time to lay out our long term ministry plan by establishing a Christian education system from K through 12, to University. It may be just a lifetime dream but it is critical to have a comprehensive educational plan for the survival of our ministry and the expansion of our world mission vision for generations to come. The prospects of the second generation ministry in the next 50 years will be quite different than the first pioneering generation. May God bless us to see the future of our world campus mission beyond the current generation and prepare the Christian education system to train young men and women who will serve the Lord in this millennium!

### **1) PURPOSE OF UBF CHRISTIAN SCHOOLS**

Why do we need a UBF school system? Why not send our children to the public schools? Yes, it is okay for us to send our children to public schools. But is there any alternative to the public schools? Yes, there is. We can build UBF Christian schools starting from the elementary schools to University. A UBF school system would provide an excellent education for our children and passes on the UBF identity and spiritual inheritance to the next generation and equips them to serve the Great Commission of Jesus Christ effectively. UBF schools will teach children to withstand the pressure of an ever-increasing secular society so that they may stand firm on unwavering biblical truth. UBF schools will help all students to hold on the Biblical truth and follow the teachings of Jesus in their daily lives. UBF schools will maintain the highest standards of academic curriculum so that all students can enter any university of their choice. The overall goal of UBF schools is to provide Biblical principles to all students so that they can be prepared to serve the ministry of Jesus Christ in every aspect of society as professional tent-maker Christians. UBF schools will help raise our children to become future Christian leaders until Christ comes again to establish his eternal Kingdom and encourage all students in a learning environment to gain a personal relationship with God.

## **2) MODERN DAY DENOMINATIONAL CASE**

The Synod of Slovak Evangelical Lutheran Churches and the Lutheran Church–Missouri Synod were members of the Lutheran churches. The Slovak Evangelical Lutheran Churches were founded in 1902. But in 1971 it folded its church doors and merged with the Missouri Synod. The Missouri Synod is a Lutheran denomination in the United States. With 2.4 million members, it is both the eighth largest Protestant denomination and the second-largest Lutheran body in the U.S. It was founded at Chicago in 1847 by German-American immigrants. It is headquartered in St. Louis, Missouri. Why did the Slovak denomination disappear and the Missouri denomination succeed? The Slovak lasted 70 years and closed their denomination because they did not have any school system. However, the Missouri Synod runs school systems including Concordia University and

Concordia Theological seminary. They are active and growing. Their education system has become a major tool to train members' children and recruit new members among students, faculty, staff, and parents. The school system equipped church leaders to do the work of God in the mission fields and provide a theological foundation to protect the identity of the church. This case study gives us ample reason to establish a UBF educational system for the future members of UBF.

### **3) TYPES OF 2<sup>ND</sup> GENERATION CHRISTIAN EDUCATION**

#### **(1) PARENTAL EDUCATION**

From a child's infancy, parents are the best teachers. Home is the first and best place of education. Our most important responsibility as parents is to direct our children and the next generation leaders to keep the way of the Lord based on biblical principles. In discussing 2<sup>nd</sup> gen education, we ought to consider three perspectives. They are the parental perspective, the church program perspective, and private school system perspective. What is the role of parents in the faith formation of children? Their role is very vital for faith formation. We can divide children's education at home into three stages: age 1 to 12 is the developmental stage or faith foundation period, 13-19 is the growing stage or trust foundation period, and 20-29 is the maturing stage or partnership foundation period.

During the developmental stage, the so-called CBF period, children need spiritual discipline. Proverbs 19:18 says, "Discipline your son, for in that there is hope; do not be a willing party to his death." The instrument of discipline is the Scripture. As God's people we must discipline our children by teaching them the Bible. Why? 2 Timothy 3:15-16 says, "And how from infancy you have known the Holy Scriptures, which are able to make you wise for salvation through faith in Christ Jesus. All Scripture is God-breathed and is useful for teaching, rebuking, correcting and training in righteousness." Timothy learned the Holy Scripture from infancy through his mother Eunice and grandmother Lois. They used Scripture to train baby Timothy in righteousness. It is never too early to start

Bible study. The mother of baby Moses nursed him and formed his spiritual identity. By faith Moses, when he had grown up, identified himself with the people of God. Early childhood is when the foundation of their faith is laid. I urge young parents not to miss this golden opportunity to establish daily Bible study with their children. Please don't assume that children will grow in the way of the Lord if they simply go to CBF. It is easy to think, "If I serve God's mission, God will take care of my children." This assumption is wrong. Primary responsibility for children's spiritual development lies with parents. Parents need to spend quality time with their children. We should not neglect our 2<sup>nd</sup> gens education during this important developmental stage of their life. We cannot excuse our parental responsibilities because of our sheep or mission. We need a progressive approach for dealing with children of different ages.

The next stage of growth is the teenage years, the JBF/HBF period. I think of this stage as the incarnational period which forms trust foundation by listening. Big changes are happening in their lives. This is a time of transition. This is the most difficult period for parents. Teenagers are no longer kids who love to follow their parents wherever they go. My Scriptural support comes from Phil. 2:5-7. "Your attitude should be the same as that of Christ Jesus: Who, being in very nature God, did not consider equality with God something to be grasped, but made himself nothing, taking the very nature of a servant, being made in human likeness." During this stage, parents should approach their children as servants or friends. Teenagers question authority and derive their identity mainly from friends. Our children are living in the post-modern reality. They are encountering liberal ideas from public school education and their friends. They experience peer pressure. It is difficult for them to conform to UBF high standards. The best way to deal with teenage children is to listen to what they say. The key is communication. To maintain good relationships with teenage children, we need to find some common ground. We should approach them on their level and start with something that interests them. Relying on parental authority will lead to rebellion and broken relationships. Respect and freedom can nurture 2<sup>nd</sup> gens to grow in the love of God. Educating our 2<sup>nd</sup> gens is a long term

project and a lifelong mission; we need to invest our time and resources to win them to the Lord so that they may become Godly offspring. Incarnational education will transform them to become future leaders in our society and nation in due time.

The third stage of growth is maturing through college life. During this stage, we can win our 2<sup>nd</sup> gens as our partners. I think of this stage as ownership or partnership education. Most 2<sup>nd</sup> gens are very able and willing to help their parents at this stage, and parents need to ask their help. Children love to become part of their parent's ministry if they are asked to participate. Parents must trust their children and give them opportunities for ownership of the ministry. John 15:15 says, "I no longer call you servants, because a servant does not know his master's business. Instead, I have called you friends, for everything that I learned from my Father I have made known to you." Sharing the work of God together will strengthen their relationship with parents. Parents and children become friends when they do God's work together. In conclusion, my suggestion for parents is to teach children the Bible when they are young, and change your attitude toward them as they grow older. Parents must listen to their children and respect their decisions. When they become college students, we need to regard them as partners in God's work. In this way we can empower them to become the next generation leaders. It is our mission to raise up the next generation leaders through Bible study and special training so that they can carry the world mission vision to the next world.

## **(2) HOME SCHOOLING**

As the secular influence is growing strong in the public schools, home schooling is a popular way of education to some Christian parents. But it requires a lot of resources and energy and time to achieve this goal. UBF can develop curriculum from the headquarter level for parents who want to teach their children at home. It would be desirable to run summer camps to provide group lectures to share educational resources and conduct classroom learning during the summer months.

### **(3) SUMMER CAMPS**

It will be good to run a 6-8 week summer camp for the youth groups. The summer camp can provide spiritual and academic discipline for all participants through intensive trainings ranging subjects from the Old Testament and the New Testament to SAT and College Prep courses.

### **(4) SPORTS-BASED EDUCATION**

Sport is another vehicle to connect Youth to UBF. It promotes unity among UBF youth groups to identify with each other by playing sports between regions and nations. Through competition they can grow together and form friendships as the world mission families of God.

### **(5) YOUNG DISCIPLE CONFERENCES**

There may be several conferences to educate and train young growing leaders. This will be a good opportunity to identify and network young leaders to grow in God.

## **3) UBF PRIVATE SCHOOLS (K-12)**

UBF can develop a K-12 curriculum from the headquarter level with a strong emphasis on Bible study. Based on the availability of resources, there could be local church level, regional level, and/or national level UBF schools. Chapel services and Christian history would be mandatory for all schools. The school will be open to all non-UBF members as long as there are vacant spots but UBF members will have priority ipeneng aion. UBF headquarters would provide for teacher recruitment and training and administrative support for UBF schools. Textbooks can be developed to meet both academic and spiritual needs for all students. UBF schools must follow the Biblical principles and reflect the spirit of the early pioneers.

## **4) UBF UNIVERSITY**

There should be only one UBF University at the location designated by the General Director and special advisory board members to support the unity of UBF world mission goals. UBF may provide funding to build the university and maintain the University administration. All the details would have to be worked out later.



## 6. 동역과 소통

본 문서는 ‘동역과 소통’의 토의를 활성화하고자 작성한 것입니다. 여기에 언급된 모든 동역자들의 이름은 이것을 목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2011년 5월 첫째 주 기준). 모든 리더들- 20대 학생들을 포함하여- 의 폭넓은 참여를 염두에 두지 않았음을 확실히 해 두고자 합니다. 현재로서는 관련 의견들이 개정과 수정을 위해 공유 중이며 폴홍(톨리도 UBF)은 본 트랙세션의 발제자로서 해당 내용(모형 및 세부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집니다.

본 세션은 우리 공동체가 직면하고 있는 기회와 도전들을 다루는데 있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동역하고 소통 할 것인가를 서로 심도 있게 토의하기 위하여 마련했습니다. 본 주제에 대해서 실제적인 삶의 지혜와 견해를 허심탄회하게 나누었으면 합니다.

UBF는 50년간 캠퍼스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1961년부터, 그리고 한국에서 부터 78개국이 넘는 열방에 이르기까지 성장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약 1,800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UBF의 역사가 한국이라는 울타리를 넘어 성장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직면하고 있습니다. 본 동역과 소통이라는 주제의 토론은 지금까지의 복음 사역이 동역과 소통의 열매라는 인식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전 세계 UBF의 사역에 있어서 동역과 소통의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어떠한 지부에서는 동역과 소통이 원활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분열이 있기도 합니다. 반면 다른 지부에서는 이 문제를 성공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사역이 타문화권으로 확장되고 계승의 역사가 1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것은 우리 안에서 더욱더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세션에서 우리는 먼저, 동역과 소통의 절대적인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공동체가 직면한 실제적인 문제들을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동역과 소통’의 목적은 세 가지 입니다. 첫째, 각 지체들을 나누기도 하고 연합하기도 하는 동역과 소통과 관련하여 우리가 실제로 마주치는 실제적인 이슈들을 토

의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각자의 의견을 듣고 동역과 소통의 필요성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둘째, 세계선교를 감당하기 위한 동역과 소통에 있어서 성경적인 모델을 찾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동역과 소통을 확립하고 풍성하게 위한 현실적인 방안과 통찰력을 얻고자 합니다.

셋째, 지속적인 논의와 성숙을 위해 지도자들 간의 교제권을 형성하고자 합니다. 보다 깊이 이 문제를 다루고 지혜를 얻기 위한 참고자료들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동역과 소통’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핵심 현안들을 선정하고 자문 그룹을 형성하였습니다. 자문 그룹 구성원들은 동역과 소통의 특정 분야에 관해 나눌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참여자들은 질의 형식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그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동역과 소통의 모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토론의 본질과 주제의 범위를 분명히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주요 쟁점들을 나열하겠습니다. 셋째, 우리 모임에 있어서 실제적인 세부사항들을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이를 나눌 때 UBF 동역자들의 다양성을 대표하는 참석자 분들께서 참여해 주시겠습니까. 넷째, 추후 참고를 위한 관련 성경 구절과 참고 문헌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 1) 동역이란 무엇인가? 왜 동역해야 하는가?

### (1) 동역의 성경적 모델들

성경에는 동역에 관한 수많은 훌륭한 모델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부/성자/성령 간의 동역(창 1장, 막 1장, 마 28:18-20)

하나님과 그분의 종들 간의 동역- 신·구약에 걸친 믿음의 선진들은 모두 하나님의 뛰어난 동역자였습니다.

지도자와 참모들 사이의 동역- 지도자와 참모들 사이의 탁월한 동역은 성경 전반에 나타납니다.

### (2) 동역과 관련한 특정 논제들

사역의 성장과 몰락은 동역에 달려 있습니다. 영적이고, 건전하며, 영향력 있게 성장하는 역사는 동역에 관하여 건설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센터 단위 동역- 남편과 아내, 지부장과 핵심 리더, 선교사와 현지인 리더들 간의 동역

국가단위·대륙별 전체사역- 지구별 코디네이터 (국가별 대표와 전임 목자 간), 대륙 수준 동역 (대륙별 대표와 해당 대륙 국가 전임 목자 간), 전체사역 (전체대표와 시니어 리더, 그 밖의 리더들 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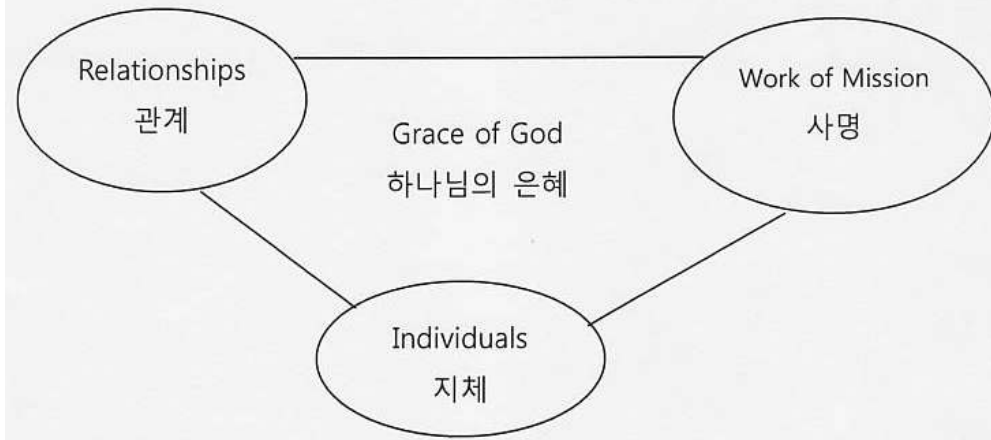
그 외의 모임과 사회적인 차원- UBF를 벗어난 직장이나 사회적인 차원, 그 밖의 보다 광범위한 차원에서의 동역

## 2)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동역과 소통의 모델

동역과 소통은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에 있어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제자양성, 리더십 계발, 타문화권 선교, 섬김의 역사, 계승의 역사).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동역과 소통이 어떤 상황에서 성공하며, 또 어떤 조건하에서 실패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동역은 동역자 간의 성품과 인격을 바탕으로 한 인간관계와 사역을 포함합니다. 동역은 모임 내의 지체 개개인이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또 관계성과 성공적인 사역은 지체 개개인의 성품과 개성의 성숙함에 달려있습니다. 관계성은 지체 간의 교류 및 상호작용입니다. 사역은 우리가 함께 감당하는 과업입니다. 그러나 성품과 개성(우리가 누구인가?)이든, 사역이든(우리는 무엇을 하는가?) 모두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림 1은 지체, 지체 간 관계와 사명을 연합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림 1: 은혜기반 지체/관계/사명 통합모델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위의 표에 나타난 어떤 것도 견고히 서지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갖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지체가 되지 못합니다(로 3:23). 지체들과 교제는 하겠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합니다. 사명은 감당하겠지만 수고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 맺는 삶을 살기는 어렵습니다(창 3장).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지체, 관계, 사명이 모임 안에 건강하게 서도록 합니다. 개인과 다른 지체들 간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는 비결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실천하셨던 성육신적인 교제- 함께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겸손과 존중, 양육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초기에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제자라고 부르셨습니다(막 1:15). 당시 그들은 연약한 양들이요, 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을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요 15:15).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상호 존중과 사랑(요 13:34)을 기초하여 동역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타문화권 선교의 관점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적으로 건강하며 영향력 있는 지체와 모임을 세우기 위해서는 성육신적인 교제가 필수적입니다.

사역/사명은 주로 리더들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친히 본을 보이심으로 그들을 감화시키셨습니다(요 13:15). 예수님께서서는 당신

의 제자들이 따를만한 모범을 세워주셨습니다(막 1:14-16).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의 실제적인 필요를 돌보는 영적인 리더십을 갖춘 사람은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줌으로써 의사소통으로 많은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 3) 소통이란 무엇인가? 왜 소통이 필요한가?

소통은 동역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소통을 저해하는 실제적인 장애물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 (1) 소통에 관한 성경적인 예들

성경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하시는 대화의 기록입니다. 성경에는 관계와 사역에 있어 필수적인 의사소통에 관한 이야기가 풍성하게 나와 있습니다.

##### ①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소통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명확성과 권세, 그리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시고 크고 작은 심판을 행하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당신의 백성에게 세미한 음성이나 중개자 혹은 서문을 통해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로 필요 이상의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동시에 그분께서는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백성의 간구를 경청하셨습니다.

##### ② 말씀을 섬기는 종의 소통

‘메신저’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택하신 백성들을 향한 말씀을 받습니다. 능력 있는 ‘메신저’들(모세,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바울)은 하나님과 그 백성을 위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명확하고 힘 있고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 ③ 지체 상호간의 소통

사람들은 자신들의 간구들을 가지고 하나님과 메신저에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메신저는 사람들의 절박한 필요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메시지에 반영하고 그들을 섬겨 주어야 합니다.

## (2) 사명의 삶에 있어서 소통과 관련된 실제적인 어려움들

### ① 언어 장벽

현지어를 정복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지만 많은 수의 선교사들이 현지어에 능통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떠한 나라에 20년 이상을 체류했지만 여전히 능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어떠한 리더들은 언어를 훌륭히 정복하기도 합니다.

### ② 마음가짐/ 처신/ 성품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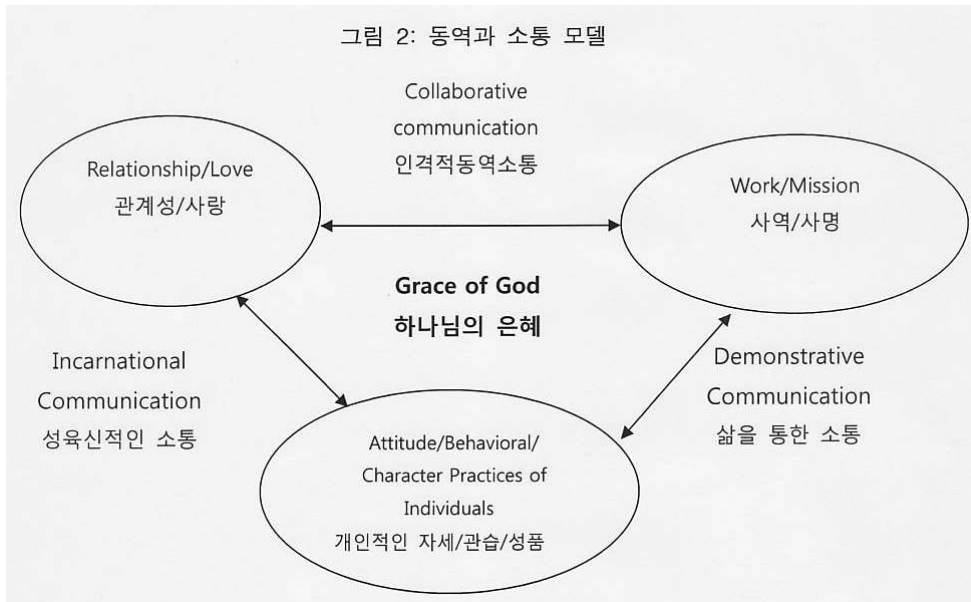
언어만 정복했다고 해서 효과적인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능통하게 표현하는 것보다 경청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세와 처신은 효과적인 소통을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현지의 문화와 삶의 양식을 배우고자 하는 겸손함과 선교사와 리더들이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진지한 관심을 필요로 합니다.

### ③ 단기/ 장기적인 목적

소통은 목적성을 띄는 동시에 관계성이 기반 되어야 합니다. 소통은 단순히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함 뿐 아니라 공동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격려하고 유기적으로 연합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장·단기적으로 활발한 소통 과정에 참여한 사람들이 사명을 위해 헌신하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림 2는 동역과 소통에 관한 모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요소의 중심축이라면 소통은 세 요소의 연결고리 역할을 합니다.

그림 2: 동역과 소통 모델



위의 모델들은 다음과 같은 논점들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① 하나님의 은혜는 중심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개인의 삶과 눈에 보이는 모임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 자체와 그것을 감당하는 과정 중에 우리의 존재와 행위의 한계를 초월하여 역사하는 놀라운 사랑과 능력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개인의 인격/마음가짐/처신에 실제적이고 본질적으로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존재와 행위의 한계를 초월하여 역사하는- 는 사람들 간의 관계성에 실제적이고 본질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명을 담당하는 과정과 그 결과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토의: 당신의 존재와 행위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보십시오.

② 지체들은 이웃들과의 관계성의 질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혹은 이웃들과의 관계성의 질적인 변화는 한 지체를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한 지체의 특정 인격/마음가짐/처신과 행동은 다른 지체와 사랑의 관계성을 맺는데 있어서 덕이 되기도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모임 내에서 관계성과 사랑은 한 지체의 인격/마음가짐/처신에 있어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토의: 당신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어떠한 행동 양식이 관계성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사례가 있습니까? 혹은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관계성이 당신의 행동양식에 영향을 끼친 적이 있습니까?

③ 지체들(리더들)은 사명과 역사의 수준과 본질의 변화시키기도 하고, 반대로 사역을 통해 변화받기도 합니다.

한 지체의 특정 인격/마음가짐/처신(단순한 인격적 특성 이상의)은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사명 역사의 본질은 한 지체의 인격/마음가짐/처신에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토의: 당신의 삶에 비추어 볼 때, 어떠한 인격/마음가짐/처신이 사명의 본질과 수준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쳤습니까? 혹은 사명의 본질과 수준이 당신의 인격/마음가짐/처신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습니까?

④ 관계성의 수준과 본질이 사명을 감당하는가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혹은 사명이 관계성에 변화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모임 내의 사랑의 관계성은 사명의 질적 수준과 성과를 좌우합니다.

사명의 본질과 성과는 지체들 간의 교제에 지대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토의: 지체들 간의 관계성과 사명의 연관 관계에 대해 당신은 어떠한 경험을 나누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신학적이고 학문적인 접근만을 지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단순히 다음 사항들의 연관 관계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을 고찰하고 교환해 보기를 원합니다.

① 하나님의 은혜, ② 신자들 간 사랑의 관계성의 질적인 측면과 건전성, ③ 사명의 역동성과 열매,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 ④ 마음가짐/처신/성품

#### 4) 심층 토의

본 세션과 별도로 참석자 분들께서는 아래의 질문을 포함한 다양한 내용을 나누고 토론해 보시기 바랍니다.

① 타문화권 선교에서 선교사들은 현지 리더들과 성공적으로 관계성을 맺고 함께 동역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합니다. 타문화권 선교 역사에 있어 동역과 소통의 성경적이고 효과적인 모델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② 어떠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우리는 동역과 소통을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UBF 전세계 지부들에서 열매 맺는 동역과 소통이 장려되고 성숙될 수 있겠습니까?

③ 건전한 자기 정체성에 뿌리를 두고, 서로 간에 깊이 있는 관계성을 세우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명인의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성육신적이고, 건설적이고, 술선수범하는 소통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④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점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섬기는 데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장애물이 되기도 하는 동역과 소통이라는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효과적입니까?

⑤ 열매 맺는 동역과 효과적인 소통을 위해 우리가 배운 실제적인 교훈-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은 무엇일까요?

⑥ 우리가 서로 나눌만한 열매 맺는 동역과 효과적인 소통에 관한 긍정적, 부정적인 실제적 교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 **6. Co-Working and Communication**

This is prepared for "Co-work and Communication" track session in Mission Conference that will be held in May 31, 2011. The purpose is to facilitate constructive discussions. All the names mentioned here are for planning purpose at this time. This preparation does not involve broad participation of leaders in UBF but adequate representation of leaders in the mission fields including those who in their 20s and 30s. At this time Paul Hong as initial planner of this session is solely responsible for this content (models and other details). Your comments and suggestions are welcome.

This session is to be organized in ways that those who participate understand what this is about and thus they are invited for active discussion and sharing experiences in regard to effective co-working and communication for the common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ahead of us.

UBF ministry has history of campus mission for 50 years. Since 1961, the ministry that started from Korea expanded to more than 78 countries of the world. More than 1,800 missionaries are listed as those sent out from UBF. As UBF ministry is expanded beyond the national border of Korea, wonderful work of God is displayed and at the same time various challenges occur. This co-working and communication session recognizes that wonderful work of God thus far is the result of co-working and communication. In UBF worldwide, the issues of co-working and communication are quite serious. In some communities they are in breaking-points. Others are handling better. As the ministry expands inter-culturally and the succession has to take place from the first generation of leaders to next ones, this is all the more critical among us. In this session we consider the vital importance of co-working and communication and examine these real issues among us.

The aim of this session is threefold: ① discuss real issues among us in relation to co-working and communication issues that are either breaking or building us. We listen to one another and discuss the needs among us first; ② examine co-working and communication aspects of biblical models for global mission for finding possible resolution and helpful insights; ③ forming fellowship of leaders for continuous discussion and growth and compiling a list of reference materials for further reflection and continuous learning.

Key issues are identified first and the related panel members are introduced. These panel members will have chances to share special aspect of co-working and communication issues. Participants will have chances to interact in the form of questions and discussions. This overview is organized as follows: ① a model of co-work and communication is presented. This is to clarify the nature of discussion and the scope of this topic ② some questions to be considered for this session are listed ③ Organizational details are briefly mentioned which includes potential participants. The purpose is to include a broad section of leaders that represent the people in UBF; ④ Biblical references and helpful literature are listed for information purpose.

## **1) What is Co-working? Why?**

### **(1) Biblical models of co-working.**

Wonderful models of co-working are abundant throughout the Bible.

Co-work between the Father-Son-Spirit(Gen 1; Mk 1; Mathew 28:18-20).

Co-work between God and his servants. The prominent figures in Old and New Testament are all wonderful co-workers with God.

Co-work between leaders and followers. Outstanding co-work with leaders and followers are numerous in the Bible.

### **(2) Specific Issues related to Co-working.**

Ministries rise and fall through co-working. Ministries that grow in godly, healthy and influential ways reflect constructive approach toward co-work.

Local level. The local level co-work involves with co-work ① between husbands and wives ② director and key leaders; ③ missionaries and native leaders

Regional, continental and international level. Regional level involves co-work between ① regional coordinator (e.g., National director and chapter directors) and ② continental level (e.g., continental director and national directors) ③ international level (general director, senior leadership and other leaders).

Community and society at large. Co-work that involves in the larger work including work, community and larger world.

## **2) Model of Co-work and Communication for the Glory of G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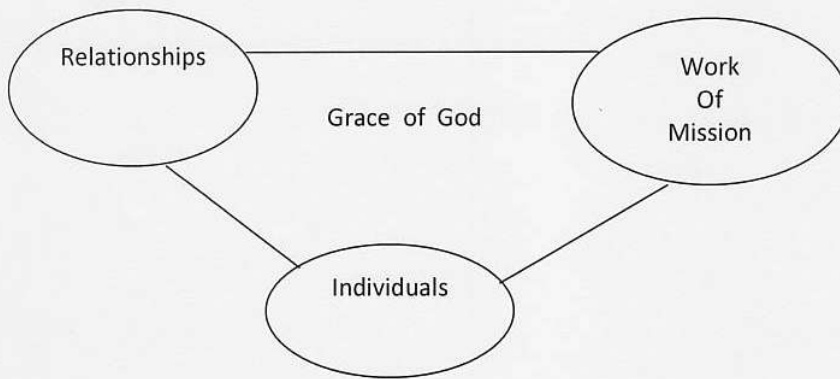
This session is about co-working and communication. Both co-working and communication are vital process tools for all we do (e.g., disciple-making, leadership development, cross-cultural mission, stewardship, succession). Thus, it is critical for us to understand how these work and do not work.

Co-work involves both relationship and work based on one's character and personality. Co-work requires clear identity of an individual (i.e., character and personality). It is individual's maturity in character/personality that affects quality relationship and effective work. Relationship is about the interactions between/among individuals(we). Work is about what we do. The basis of who we are (identity and relationship) and what we do (work/mission) is the grace of God (1Cor 15:10).

Figure 1 below shows the grace of God that unites individuals, relationships and the work of mission.

Figure 1: Model of Grace of God for Individuals, Relationships and Work

**Figure 1: Model of Grace of God for Individuals, Relationships and Work**



Apart from the grace of God, all the above will be fragmented. People with broken relationship with God do not necessarily become individuals for God's glory(Rom 3:23). Relationships may be formed but they are not intended for God's honor. Work may be done and yet it is sweat for living, not necessarily for meaningful work that pleases God(Gen 3).

By the grace of God all these come together in unity. What sustains vital connection between an individual and others is incarnational communication which our Lord Jesus practiced as he related with his disciples in particular and people in general. He demonstrated humility, respect and care of others. Initially, Jesus called them as his disciples(Mark 1:15). They were initially his sheep and servants. But Jesus made them his friends(John 15:15). Mature relationships need to grow in the level of partnership(Phil 1:5) based on mutual respect and deep commitment to love(John 13:34). In the inter-cultural mission contexts, incarnational communication is essential for building godly, healthy and influential individuals and communities for God's glory.

Work /mission involve vibrant examples of individuals who are often leaders. Our Lord Jesus inspired his disciples through his examples(John 13:15). Jesus set examples for his disciples to follow(Mk 1:14-16). Thus, much work is done through demonstrative

communication by individuals with godly leadership that honors God and serves the real needs of people.

Work/mission is more than individual work. It is work for the glory of God. It is extensive scope of work that is moving toward the completion of God's salvation in this world(Mt 28:18-20). Thus, such work requires not only individual's effort but also relational joint endeavors. What connects relationship/love(i.e., we) and work/mission is collaborative communication. This collaborative communication involves shared vision and interactive mindset that integrates the strengths, talents and capabilities of all people involved. This is what defines collaborative communication.

### **3) What is Communication? Why?**

Communication is an essential aspect of co-working. Specific communication challenges are discussed here.

#### **(1) Biblical models of communication**

The Bible is primarily records God's communication to his people. The Bible is rich in rich aspects of communication that are essential to all aspects of relationships and meaningful work.

##### **① God's communication to the people.**

Almighty God communicates to the people with clarity, power and purpose. God performs miracles, execute his judgment in small and large scale, whispers to the people as well as speak through intermediaries and written words. God usually speaks less than necessary. God hears as much as he speaks.

##### **② Messenger's communication to the listeners.**

Messengers first listen to God and receive God's message for the people. Effective messengers (e.g., Moses, Elijah, Elisha, Isaiah, Paul) deliver messages with passion for God and love for his people. Their messages are clear, powerful and impactful.

##### **③ Mutual communication among people.**

People come to God and the messengers with their needs in the form of prayers and requests. God hears their prayers. Messengers pay attention to their crying needs and reflect in their messages and service to the people.

## **(2) Practical issue of communication in life of mission**

### **① Language issues**

Command of local language is quite critical; yet, not all missionaries are proficient in local languages. Even those who have stayed in a particular country for more than 20 years or so are still not so excellent in this communication. Some leaders are excellent in mastering this language.

### **② Attitude/behavioral/character issues.**

Good command of local language is not sufficient to effective communication. Too often listening is as much an issue as speaking. Attitude and behavioral patterns are important for effective communication. This requires humility to learn about local culture, life issues and genuine interest in people that missionaries/leaders intend to serve.

### **③ Short-term goals and long-term vi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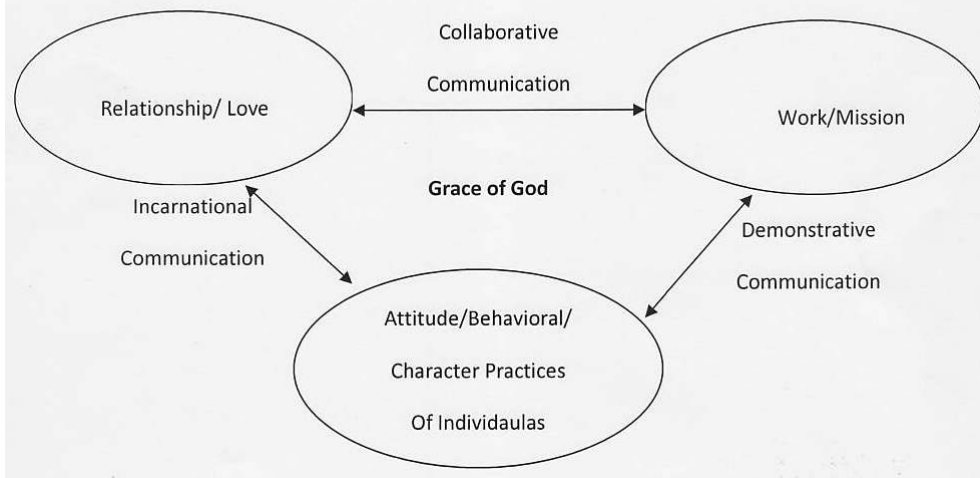
Communication is relational as well as purposeful. Communication is not only to enhance mutual understanding but to motivate and mobilize people toward common mission. Thus, effective communication of short-term goals and long-term vision result in commitment of people involved in the vital communication processes.

Figure 2 presents a model of co-work and communication. If the grace of God is ten center of all, then communication is what connect each of the three.

Figure 2: Model of Co-work and Communication



**Figure 2: Model of Co-work and Communication**



The above model further suggests the following:

**(1) The grace of God is the center of all.**

The grace of God is his amazing love and power that operate in spite of who we are and what we do in all—in the lives of individuals, among people in visible communities and the nature and process of work of mission.

- ① The grace of God impacts personality/attitude/behavior of an individual in real/profound ways.
- ② The grace of God (i.e., God's amazing love and power that operate in spite of who we are and what we do) affects the nature of relationship among people in real/profound ways.
- ③ The grace of God (i.e., God's amazing love and power that operate in spite of who we are and what we do) influences the process and outcomes of work of mission.

Discussion: What experiences can you share about the grace of God that works in real ways in spite of who we are and what we do?

**(2) Individuals make different in the quality of relationship with his neighbors and vice versa.**

- ① Certain personality/attitude/behavioral practices/actions of an individual may either promote (positive) or hamper (negative) relationship/love with others.
- ② Nature of relationship/love in a community may either positively or negatively impact the personality/attitude/behavioral practices of an individual.

Discussion: Based on your experiences what can you say about some of behavioral practices that either positively or negatively affect the nature/quality of relationships or vice versa?

**(3) Individuals (e.g., leaders) make difference in the quality and nature of work of mission and vice versa.**

- ① Certain personality/attitude/behavioral practices (more than personality traits) of an individual may either promote (positive) or hamper (negative) work of mission.
- ② Nature of work of mission may either positively or negatively impact the personality/attitude/behavioral practices of an individual.

Discussion: Based on your experiences what can you say about some of personality/attitude/behavioral that either positively or negatively affect the nature/quality of work of mission or vice versa?

**(4) Quality and nature of relationship makes differences in the work of mission or vice versa.**

- ① Certain relationship/love of a community affects in the nature and outcomes of work of mission.
- ② Certain nature and outcomes of work of mission changes in the ways people relate to one another.

Discussion: What experiences can you share about the connection between the nature of relationship among people and the work of mission?

This session is not necessarily restricted to discuss in theoretical and academic sense. Rather, this is simply to examine and share our thoughts on interrelationships between ① the grace of God; ② the quality and health of relationship among believers (relationship/love), ③ vitality/fruit/process of work/mission, ④ personality/attitude/behavior practices.

#### **4) Further Discussion**

Beyond this session, participants may further discuss questions but not necessarily limited to these:

- ① What are the biblical and effective models of co-work and communication practices in inter-cultural mission contexts where missionaries and native leaders effectively relate and work together?
- ② In what particular ways (e.g., shared goals and mission) can we practice co-working and communication? How can the positive environment for effective co-working and communication be nurtured and developed in UBF communities worldwide?
- ③ How can we practice incarnational, collaborative and demonstrative communication that grounded in healthy sense of self-identity, promote constructive relationships with one another and strive toward life of mission that is worthy of God's calling?
- ④ How the grace of God does enable us to co-work and communicate real issues that are helping or hindering us to serve God's purpose in particular contexts?
- ⑤ What are practical lessons (from both positive and negative experiences) that we can share from one another for fruitful co-work and effective communication?

## 고통 하는 시대와 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3:1-17

요절; 디모데후서 3:16-17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지난 50년 동안 UBF를 통해서 캠퍼스 제자양성과 평신도 자비량 세계선교 역사를 왕성하게 이루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50년 동안 우리와 함께하시며 위대한 축복과 승리의 역사를 이루신 에벤에셀의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는 우리와 계속해서 함께하여 주시며, 캠퍼스 제자양성과 세계선교 역사를 왕성케 하시고 위대한 승리를 주실 것을 믿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통 하는 시대와 성경’입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순교직전 에베소 교회를 책임 맡고 있는 디모데에게 쓴 서신입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는 거짓 스승들의 가르침으로 인한 분쟁과 혼란이 일기 시작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속적인 타락의 물결이 교회 안으로 거세게 밀려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진리의 터는 흔들리기 시작하였고, 어떤 사람들의 믿음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딤후 2:18). 바울은 이런 고통 하는 시대 속에서 에베소 교회를 책임 맡고 섬기고 있는 디모데를 위해 기도하며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 제 1장, 네가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1-9).

1절을 보십시오.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 하는 때가 이르리니.”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이것을 알라고 하십니다. 말세에 고통 하는 때가 이르리라는 것을 알라고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앞을 내어다보며 디모데에게 교회들이 빠져들어 가고 있는 위험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교회들이 빠져들어 가고 있는 현재와 미래의 위험에 대하여 무관심하거나 무지하다면 교회는 심각한 위험에

쳐하고야 말 것입니다.

바울은 말세에 어떤 때가 이르리라고 경고합니까?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궁하며 교만하며 꾀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고통 하는 시대는 자기를 사랑하는 데서부터 비롯되어집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데서 교회와 공동체 안에 시기와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자기를 사랑하면 뒤따라서 계속해서 끔찍한 증상들이 나타나다가 마지막으로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로 나아갑니다.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는 것은 금지된 쾌락에 탐닉하는 것을 말합니다. 쾌락에 대한 무절제한 탐닉은 영혼의 빛을 어둡게 하고 도덕적 양심 신앙적 양심을 손상시키며 파멸을 재촉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대적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합니다. 그들은 살았다고 하나 실상은 죽은 사람들입니다. 말세를 향해 갈수록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며, 이들은 그 시대를 끔찍한 고통의 시대로 만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라는 말씀을 볼 때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볼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외적으로는 신앙인이요, 영적인 지도자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는 것은 내적으로는 그들이 입술로 고백하는 신앙과 진리를 따르고 순종할 수 있는 영적인 힘과 능력이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부딪치고 있는 위기의 모습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합니다. 이러한 시대의 죄악의 물결은 교회 공동체 안에도 밀려들어서 우리들의 영혼을 감염시키고 있습니다. 사탄의 강력한 역사로 인하여 세상의 넘실거리는 죄악에 감염당한 우리는 점점 진리에 대한 믿음과 경건의 능력을 상실해가고 있습니다. 한때는 훌륭했던 믿음의 동역자들이 죄악의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이제는 유혹하는 자가 되어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한때는 복음

신앙에 굳게 서서 신앙의 향기를 발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세상의 죄악과 가치관에 영향을 받아 그들의 생활방식을 부러워하며 이를 배우고 본받아 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로서 정체성을 상실해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자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며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경건의 능력은 상실한 자들입니다. 저희 중에 어떤 자들은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리는 가엾은 여자들을 은밀히 유인하여 자기 임의대로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항상 배우지만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는 안네와 얌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같이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이요, 그 마음이 부패한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리운 자들입니다. 그들은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모양만 내는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저희의 어리석음은 마침내 드러나고야 말 것입니다. 사도는 디모데에게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 제 2장,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10-17).

진리를 대적하는 거짓 스승들이 가득 찬 세상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본받고 따라가야 할 모범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자생활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10-11절을 보십시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꾀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꾀박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바울은 거짓 스승들과 달리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자신이 가르친 삶과 행실이 일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었습니다. 그는 연약한 영혼을 위해 오래 참음으로 사랑하며 인내하였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꾀박과 고난을 받았습니다. 특히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는 죽음의 문턱에 갈 만큼 꾀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바울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는 어떤 한 가지 진리를 분명하게 깨우쳐주고 있습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꾀박을 받으리라.” 자기를 사랑하며 쾌

락을 사랑하며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살고자 한다면 고난과 핍박을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우리가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고난과 핍박이 없는 안일하고 위선적인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됩니까? 13절을 보십시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지고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우리의 위선과 타락은 어떤 선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점점 더 악하여지고 점점 더 타락하여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14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디모데는 바울에게서 배웠고, 그 배운바 복음 진리를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배우고 확신한 진리위에 굳건히 서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교회와 양 무리들을 섬겨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이 많이 변하였습니다. 세상은 죄악의 물결로 넘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죄악의 물결은 교회 안에까지 밀려들어왔습니다. 교회 안으로 거세게 밀려들어오는 그 죄악의 물결에 감염된 자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상실해가고 있었습니다. 진리의 터가 흔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믿음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딤후 2:18). 교회 안에 세속화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점점 싫어하고 감각적이고 즐거운 것들, 새로운 것들만을 찾으려고 하였습니다. 복음 역사는 날로 어려워져 갔습니다. 디모데는 이러한 변화된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과거와는 현저히 달라진 새로운 세대를 어떻게 섬겨야 할지 잘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변화된 상황에서 지금까지 배워왔고 확신했던 전통적인 입장을 일관되게 고수하고 지켜가야 할 것인지’, 아니면 ‘변화된 상황에서 현저히 변화된 새로운 세대를 섬기기 위해서는 새로운 길과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고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할지’ 갈등하게 되었고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사도는 이런 디모데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지금까지 배우고 확신했던 일에 계속해서 거하라고 분명하게 권고합니다. 거하라는 말씀은 ‘continue in’입니다. 지금까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거하라는 뜻입니다. 디모데는 왜 지금까지 그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계속해서 거해야 합니까? 14b-15절을 보십시오.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가 지금까지 배우고 확신한 일은 인간의 생각이나 사상이 아니라 성경의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사상은 변하고 삶의 방식과 가치관은 변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인간의 생각과 사

상이 아무리 변하고 삶의 방식이 변하고 가치관이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성경의 근본적인 진리는 언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 모든 것들이 흔들 흔들거릴지라도 하나님의 진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디모데는 지금까지 성경말씀을 배웠고 성경말씀의 진리에 대한 확신 속에 거하여 왔습니다. 그는 그가 지금까지 배웠고 확신했던 그 진리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거해야 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것이 끔찍하게 변해가는 고통 하는 시대에 직면하여 그 시대를 섬기기 위해 갈등하고 고민하는 디모데를 향해 주신 사도의 말씀이요 영적인 방향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급속도로 변화되어가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UBF가 탄생했던 60년대와 캠퍼스 복음역사가 왕성했던 70년 80년대와는 너무나도 달라진 세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악의 물결이 거세고, 그 거센 물결에 쉽게 감염되어가고 있는 이 세대를 섬기는데 많은 어려움과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길과 새로운 방법과 새로운 대안들을 찾아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들이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이 고통 하는 시대를 섬길 수 있는 보다 좋은 길과 보다 좋은 방법과 보다 좋은 대안들이 있다면 찾아보고 시도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지난 90년대부터 변화해가는 시대를 섬기기 위해서 좋은 길과 좋은 방법과 좋은 대안들을 찾고자 많은 시도를 하여 왔습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기도 하였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힘든 일대일을 통한 제자양성을 포기하고 성령 은사운동을 해보고자 시도하기도 하였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일용할 양식이나 소감쓰기를 폐하고 아무 부담 없는 신앙생활을 해보고자 시도하기도 하였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깊이 있는 말씀공부와 소감훈련보다 경배와 찬양을 통해서 젊은이들을 모이게 하고자 시도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초기 개척 조상때부터 지금까지 해왔던 일대일 성경공부, 일용할 양식, 소감쓰기, 오병이어의 주는 정신, 개척정신, 공동체 정신, 자비량 정신보다 더 좋은 제자양성, 더 좋은 선교사양성의 길과 방법과 대안들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우리 안에서 역사하였던 그 사역과 정신이 어떤 좋은 사상에서 출발한 것이었다면, 그것들이 오직 UBF에서 시작한 독특한 정신과 독특한 사역이라면, 우리가 계속해서 그 정신과 그 사상과 그 사역 안에 거하여야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인간의 사상과 정신에서 나온 것들은 유한한 것들이며 언젠가는 변하며 무너져 내릴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난 50년 동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여왔던 정신과



사역은 이사무엘 선교사님과 배사라 선교사님의 정신과 사상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UBF의 독특한 정신과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에서 나온 것입니다. 성경중심의 사상, 오병이어의 주는 정신, 구유정신, 제자양성, 일대일을 통한 인격적인 성경공부, 소감쓰기, 자비량 선교사 파송 등 모든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배웠고, 확신했고, 이 진리에 순종하여 거함으로 하나님은 지난 50년 동안 우리를 놀랍게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배우고 확신했던 이 진리에 흔들리지 말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거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 안에 거하는 정신과 사역이 약화되어가고 있는 것을 회개하고 더욱 더 이 진리에 신실하게 거하여야 하겠습니다. 이 진리에 신실히 거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경건의 능력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고통 하는 시대의 끔찍한 죄악에 감염되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우고 확신했던 이 진리에 신실하게 거할 때 우리는 경건의 능력을 덧입게 될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을 덧입고 이 고통 하는 시대를 승리하며, 이 고통 하는 시대를 능히 섬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성경의 진리 안에 굳건히 신실하게 거할 때 성경은 고통 하는 시대를 섬기는 우리에게 어떤 위대한 희망과 축복을 주니까?

### **첫째,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15절을 보십시오.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 이는 모든 인간이 얼마나 사모하는 것입니까? 구원만큼 좋고 위대하며 영원한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을 다 소유하고 있다 하여도 구원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이며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소유가 비록 부족하다 하여도 구원을 받은 우리 선교사님들은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며 진정으로 행복하고 부요한 사람인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어디에서 얻었습니까? 많은 책들과 많은 지식에서 얻었습니까? 우리는 캠퍼스 시절 성경 말씀을 초창을 받았고 성경말씀을 공부하고 성경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었습니다. 나는 이 세상의 그 어디에서도 가난과 운명과 열등감과 인생의 무의미와 허무로 고통 하는 나의 영혼을 구원할 지혜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 앞에 나아와서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겸손히 성경 말씀을 믿었을 때 가난과 운

명과 열등감과 인생의 무의미와 허무로 고통 하던 나의 영혼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둘째,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일으킵니다.**

16-17절을 보십시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베드로후서에는 “예언은... 오직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벧후 1:21)고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는 말은 얼마나 위대한 말이며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말입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역사할 때 평범한 사람이 온전하여지고 위대하여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역사할 때 한 가지 선한 일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던 사람들이 모든 위대하고도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여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역사 하였을때 우리 선교사님들은 이 땅에서의 안정된 집과 가정과 좋은 직장과 장래의 Security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아프리카로, CIS로, 중동으로, 인도로, 중국으로, 남미로, 호주로, 유럽으로, 북미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비량하며 희생적으로 캠퍼스 제자양성과 세계선교에 헌신하여왔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역사하였을 때 수많은 현지인들이 회개하고 캠퍼스의 목자들로 성경선생들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역사 하였을때 현지인 목자들이 제3국으로 자비량 선교사로 나아가 캠퍼스 제자양성과 세계선교에 헌신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인 성경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을 일으킵니다. 죄에 연단되어 완악해지고 강박해진 심령들,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이 세대를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감동이 역사할 때 죄에 연단되어 완악해지고 강박해진 심령들,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심령들이 물같이 녹아지고 변화되어 거룩한 백성들 왕 같은 제사장들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난 50년의 UBF 역사를 돌아볼 때 한국의 전 캠퍼스를 개척하고 세계 87개국에

자비량 선교사를 파송한 이 놀랍고도 위대한 역사는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신 역사입니다. 우리 힘으로 누구 한 사람을 아프리카에 CIS에 인도에 선교사로 파송할 수 있었겠습니까? 체르노빌 방사능의 공포가 온 유럽을 뒤덮고 있을 때 누가 피터김 선교사와 사라 선교사를 키에프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순교하고자 결단케 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신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역사하는 곳에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말세에 고통 하는 시대에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사역에 많은 장애물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의 심령에 실망감과 좌절감이 밀려들어옵니다. 그러나 지난 50년의 UBF역사를 돌아 볼 때 놀랍고도 위대한 역사들은 영적인 환경과 조건이 좋았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룰 수 있었던 역사가 결코 아닙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성경 말씀으로 죄인의 심령에 하나님의 감동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친히 이루신 역사입니다.

서울대 개척을 시작했을 때 이 사무엘 선교사님은 6년 동안 매일 아침 오전 시간을 온 마음을 바쳐 성경말씀을 묵상하시고 연구하시며 일용할 양식 집필에 심혈을 쏟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 선교사님에게 서울대 학생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불꽃과 하나님의 감동을 일으킬 수 있는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때 이 사무엘 선교사님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메시지와 광고 한마디 한마디가 서울대 학생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감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서울대 청년들이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젊음과 청춘을 불살라 하나님께 헌신하는 역사가 불타올랐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서울대 청년들이 목자요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는 것을 가장 큰 영광으로 여기고 모든 것을 버리고 'Full time 목자'가 되기도 하고, 언제 누구와도 결혼하여 선교가정을 세우고 전 세계로 선교사로 나아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감동은 인간의 생각과 이성으로는 꿈도 꿀 수 없었던 크고 위대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진실로 이 시대의 희망은 캠퍼스의 영적 환경과 조건이 좋아지는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지식을 많이 쌓는데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이 시대의 희망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감동에 붙잡히고 하나님의 감동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데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감동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감동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떤 대

룩 어떤 나라 어떤 캠퍼스에서 개척 역사를 섬기고 있던지 하나님은 우리를 위대하게 쓰실 것입니다. 위대한 개척자들로 위대한 제자 양성가들로 위대한 선교사를 파송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위대하게 쓰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감동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감동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이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온 마음을 바쳐 성경을 사랑해야 합니다. 온 마음을 바쳐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연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성경의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주의 말씀에 “오직 여호와와 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시 1:2-3) 하셨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 때 우리는 이 말세의 고통 하는 시대 속에서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마르지 아니하고 가뭄을 타지 아니하고, 시절을 좇아 풍성한 과실을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바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늘 하나님의 감동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감동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각자의 Mission Field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감동의 역사를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딤후 3:16-17).

## **Closing Message**

### **TERRIBLE TIMES AND THE BIBLE**

2 Timothy 3:1-17

Key verse 3:16,17 "All Scripture is God-breathed and is useful for teaching, rebuking, correcting and training in righteousness, so that the man of God may be thoroughly equipped for every good work."

I give thanks and glory to God who used UBF for Campus discipleship ministry and world mission through self-supporting lay missionaries for the last 50 years. God of Ebenezer has been with us and has done the great, blessed and victorious work for the last 50 years. Now it is the time for us to have a new start. I believe and pray earnestly that God may continue to be with us and bless campus discipleship ministry and world mission and grant us great victory.

The title of today's message is "Terrible times and the Bible". The book of 2 Timothy is the letter that Apostle Paul wrote to Timothy who was in charge of the church in Ephesus when Paul was in the prison right before being martyred. At that time there were conflicts and arguments insider the church because of the teachings of false teachers. Moreover, worldly corruption began to sweep into the church. The foundation of the truth began to be swayed and some people began to lose their faith (2Tim 2:18). Paul prayed and wrote this letter for Timothy who served Ephesus church in this terrible time.

#### **I. Have nothing to do with them (1-9)**

Look at verse 1. "But mark this: There will be terrible times in the last days." Paul tells Timothy to mark this; 'there will be terrible times in the last days'. Apostle Paul looks ahead into the future and reminds Timothy of the danger that churches are submerged in. When spiritual leaders are negligent or ignorant of the present and future dangers that churches are falling into, churches will be in great danger. What times will come in the last days according to Apostle Paul's warning? "People will be lovers of

themselves, lovers of money, boastful, proud, abusive, disobedient to their parents, ungrateful, unholy, without love, unforgiving, slanderous, without self-control, brutal, not lovers of pleasure rather than lovers of God-having a form of godliness but denying its power..." Terrible times stem from loving ourselves. Lovers of themselves cannot love God and their neighbors. Fights and arguments inside churches and communities start from loving ourselves. Terrible symptoms will be followed and go toward... lovers of pleasure rather than lovers of God-having a form of godliness but denying its power." Loving pleasure rather than God means indulging in forbidden pleasure. Indulging in pleasure without control darkens people's souls, ruins their moral and spiritual consciences and brings destruction. Their hearts become corrupt and are against the truth. They don't like the good. Even though they are alive, they are actually dead. When it comes to the last days, there will be more people like them and they will make their generation terrible. But these kinds of people are not only in the world. The verse "having a form of godliness but denying its power" says that these kinds of people are also inside the church. The fact that they have a form of godliness means they look like men of faith and spiritual leaders outwardly. But the fact that they deny the power of godliness means that they have no spiritual power and inward strength to follow and obey the truth and faith that they confess with their mouth.

This is the picture of the crisis that our church community confronts today. Nowadays people love themselves and money. They love pleasure more than God. The waves of the flow of sin into the church community and infect our souls. Being infected by sins due to the powerful work of Satan, we gradually lose faith in the truth and the power of godliness. Coworkers who were once great in their faith fall into the temptations of sin. Some become tempters to knock down others' faith. Those who once stood firm on the gospel faith and were once a good influence for their faith are rather influenced by sin and the value system of the world. They envy worldly people and begin to follow them. Many are losing their identity as a royal priesthood and a holy nation.

Paul strongly urges Timothy to "have nothing to do with them". They are those who love themselves and pleasures. They have a form of godliness but deny its power. Some of them gain control over weak-willed women who are loaded down with sins and are

swayed by all kinds of evil desires and teach them in their own way. But the women are never able to acknowledge the truth even though they learn always. Just as Jannes and Jambres opposed Moses, so also these men oppose the truth; they are men of depraved minds, who, as far as the faith is concerned, are rejected. They are not the ones who serve God with sincere faith, but those who live hypocritical and superficial lives before people. Their folly will be clear to everyone. Paul clearly warns Timothy to turn away from them.

## **II. Continue in what you have learned and have become convinced of (10-17)**

Paul lists the examples that Timothy should imitate and follow since he was living in the godless world full of false teachers. Look at verse 10-11. "You, however, know all about my teaching, my way of life, my purpose, faith, patience, love, endurance, persecutions, sufferings-what kinds of things happened to me in Antioch, Iconium and Lystra, the persecutions I endured. Yet the Lord rescued me from all of them." Paul preached only that while the false teachers testified falsely against Jesus. Paul lived a godly life as he preached. His life purpose was to glorify God. He had faith that Jesus' death procures sins and his resurrection. He loved the weak with patience and was willing to be persecuted and suffered for his name's sake. Especially he was persecuted almost to death in Antioch, Iconium and Lystra. However God rescued him from all of them. Based on what he experienced, Paul demonstrated a truth very clearly. "In fact, everyone who wants to live a godly life in Christ Jesus will be persecuted." In fact, everyone who wants to live a godly life in Christ Jesus will be persecuted. "I, who was having only a godly life in Christ, didn't receive persecutions. However those who want to live a godly life in Christ should be ready to receive persecutions. What if we only live a godly life without sufferings and persecutions for God's sake as a hypocrite? Look at verse 13 "While evil men and impostors will go from bad to worse, deceiving and being deceived" If we live like a hypocrite, we will not be able to flee from hypocrisy and corruption. We will go from bad to worse.

What should Timothy do? Look at verse 14. "But as for you, continue in what you have learned and have become convinced of, because you know those from whom you learned it." Timothy was convinced of what he learned from Paul and led the church and

sheep standing firmly on the truth. But the trend of the world had changed a lot. The world was full of sins so much that the sins attacked God's churches. Those who were infected with the sins were losing the power of godliness even though they had a form of godliness. Some of them wandered away from the truth (2 Timothy 2:18). The churches began to follow the trend of the world. People loved physical pleasures and sought new things away from the truth. It got more difficult to lead God's churches and ministry. Timothy didn't know how to deal with the new situations and how to serve the new generation who were different from those in the past. Should he join the popular trend of the world or stick with what he learned and was convinced of? Should he understand the new generation and circumstances looking for the new ways to serve it? He must have been troubled.

What did Paul say to Timothy? "continue in what you have learned and have become convinced of." Paul told him to continue in what he had learned and have become convinced of. Look at verse 14b, 15 "because you know those from whom you learned it, and how from infancy you have known the holy Scriptures, which are able to make you wise for salvation through faith in Christ Jesus." What Paul learned and became convinced of is not human thoughts or ideas. It was the truth. Human thoughts and ideas change from time to time, and so do way of life and human values. But however they change, the truth that the Bible demonstrates never changes. The earthquake may shake all the things in the world but cannot shake the truth of God. Timothy learned the Scriptures and had faith in the truth of the Scriptures. He should continue in what he has learned and has become convinced of. "Continue what you have learned and have become convinced of," This is the word and spiritual direction that God gave to Timothy who was in trouble with serving the new generation.

I believe that this is also what God says to us. We are living in the world which changes rapidly. The circumstances where we live are totally different from those in 1960's when UBF was founded and in 1970's, 80's when the campus ministry flourished. We encounter difficulties and limits in serving the new generation who follow the popular trend of life infected with sins and go down the main stream of sins. For this reason we began to doubt if we should look for alternatives and changes different from what we had



in the past. If there are better ways and alternatives to serve this generation, we should try to find them. From 1990's we have made every efforts to find better ways and alternatives to serve the rapidly changing generation. New programs were sought out. Some chapters tried to implement the spiritual movement giving up raising disciples through one-to-one bible study udy udy it was so difficult. Other chapters tried to live a religious life without the burdens of sharing daily uread and writing a testimony. There were also some chapters that tried to attract attention of the young through singspiration rather than to focus on profound bible studying or testimony training. However we have not found other ways or alternatives better than one-to-one bible study, daily bread, writing testimony, a life giving spirit with five loaves and two fishes, pioneering spirit, community spirit, self-supporting spirit that we have had from the beginning of UBF history. Nobody can deny that those works are the best ways to raise disciples and missionaries who can preach the gospel.

If the spirit that worked in the UBF ministry for the past 50 years came from human efforts or ideas, we don't need to continue in them. Those come from human thoughts and ideas are limited and will change or disappear someday in the future. However the spirit that worked in the UBF ministry for the past 50 years didn't come from ideas of Dr. Samuel Lee or Mother Barry. It was not a typical UBF spirit but the eternal truth of God's words. Living according to the teachings of the Scriptures, life giving spirit, humble mind, raising disciples, one-to-one bible study, writing testimony, sending out lay missionaries are the truth what we learned in the Bible. We learned and became convinced of the truth and obeyed the truth that God taught us, and God blessed us abundantly for the 50 years. Therefore we should continue in the truth that we learned and stand firmly on it. Those who do not continue in the truth will lose the power of godliness and will join in the sinful trend of the world. But if we continue in the truth we learned and became convinced of, we will get the power of godliness. We will be able to challenge and serve the sinful generation with the power of godliness.

When we continue to stand firm on the truth of the Bible without being swayed in this changing generation, what great hope and blessing will be given to us through the Bible?

**First, the holy Scriptures are able to make you wise for salvation.**

Look at verse 15 "and how from infancy you have known the holy Scriptures, which are able to make you wise for salvation through faith in Christ Jesus." Wisdom for salvation! All people want to be wise for salvation. Where can we find such a good, great and eternal blessing as salvation? Even though a person gains the whole world, he would be the poorest and the most pitiful if he is not saved from his sins. Although we are lacking in the possessions in the world, we are the happiest and most blessed because we are saved through faith in Christ Jesus. Where can we get the wisdom leading us to salvation? Did we get it from a lot of books or human knowledge? We were invited to the bible study at the campus and became wise for salvation after studying the Holy Scriptures. I couldn't get any solution to save my soul which suffered from poverty, low self-esteem, sense of inferiority and a sense of emptiness of life. But when I studied the Bible with humble mind and had faith in it, I was set free from poverty, low self-esteem and a sense of emptiness of life and became wise for salvation through faith in Jesus.

### **Second, the Scriptures strike the fire of God.**

Look at verses 16, 17. "All Scripture is God-breathed and is useful for teaching, rebuking, correcting and training in righteousness, so that the man of God may be thoroughly equipped for every good work." All Scripture is God-breathed. 2Peter 1:21 says, "men spoke prophecy from God as they carried along by the Holy Spirit". How great is the word 'God-breathed' and how much it makes us excited! Because all Scripture is God-breathed, it is good for teaching, rebuking, correcting and training in righteousness. man oGod movesque person'sqheart, an ordinary person begins to become fully equipped and great. man oGod works by moving people'sqhearts, people who could not do even uie good thing weas thgin to be thoroughly equipped for every great and good work. man o God worked by moving the hearts of our missionaries, they left their home, fam ayy mood jobs and future security od-breatearth and wn equipAfrica, CIS, middle east, India, China, Sor evAmerica, Australia, Eur prophecNor evAmericaa, th andybecomebeen dedicating themselvesqto serving campus deacipselhip and wa, t mission sacrificially so far while suppor ing themselves. man oGod worked by moving people'sqhearts, sy mony native sheep repn eed and repnraivesqup as shepifids and Bible teachers. man oGod moved their hearts, great workbecsebeen duie. Tndybwn equipanother country as self-suppor ing missionaries and serve campus deacipselhip ministry and world mission.

The Scripture brings the breath of God because it is written by the breath of God. People's hearts become hardened because of sins and because they love themselves and pleasures more than God. We cannot serve them in this generation by depending on our strength, wisdom and power. But when God works by moving their hearts, their hearts will be melted and changed and they will be raised up as a holy nation and a royal priesthood.

When I look back on the U.B.F. history for the last 50 years, the amazing and great work of pioneering all the campuses in Korea and sending out self-supporting missionaries over 87 countries has been done only by God who moved people's hearts. Could we send even one person to Africa, CIS and India as a missionary? Could we enable missionary Peter Kim and Sarah Kim to decide not to leave Kiev but to stay there as martyrs when the fear of Chernobyl's radioactivity spread through all of Europe. This happened only when God moved their hearts. When God works, a great work happens beyond human imagination. We confront many obstacles and difficulties in our ministries in this terrible time. Sometimes a sense of despair and frustration creeps into our hearts. But when we look back on the UBF. history for the last 50 years, we learn that the great and amazing work of God was done not because the spiritual environment and condition was good or by depending on our strength or power. It was done only when the Almighty God, the sovereign Lord who has all power and authority in heaven and on earth worked by moving sinners' heart through the word of God.

When Dr. Samuel Lee started pioneer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he studied the Bible and meditated on the word of God and wrote Daily Bread wholeheartedly every morning till noon for 6 years. Then God anointed him with the Holy Spirit that enabled to bring the fire of God and the breath of God to SNU students. Then, messages and announcements of Dr. Samuel Lee moved SNU students' hearts. Great work of God was on fire. Young students in SNU, moved by God, dedicated their time, money and youth to God. They regarded being called to be shepherds and missionaries as the greatest honor. They became full time shepherds by leaving everything behind and were willing to establish a missionary family with anyone and at anytime and began to go to the whole world as missionaries. God did truly great and unsearchable works beyond our human idea

and reason by moving their hearts.

The hope of this generation is not in the better spiritual environment on the campus. It is not found when each one of us has many kinds of knowledge and information. The hope of this generation is found when each one of us become moved by God and become men of God who can bring the breath of God. When each one of us is full of the breath of God and becomes the man of God who can bring the breath of God, God will use us greatly wherever we are in our country, in our campus and in our pioneering ministry. God will use us as great pioneers, great disciple-makers and great men of God who can send out great missionaries.

Then how can we be filled with the breath of God and become the men who can bring the breath of God? We need to go back to the Bible which is God-breathed. We have to love the Bible wholeheartedly. We need to give our whole heart to study the Bible and meditate on the word of God. We need to do our best to be professionals in the Bible. The word of God says, "But his delight is in the law of the LORD, and on his law he meditates day and night. He is like a tree planted by streams of water, which yields its fruit in season and whose leaf does not wither. Wproever he does prospers." (Psalms 1:2,3). When we delight the law of the LORD and meditate on it day and night, we will not be withered like a tree planted by streams of watertreen in the terrible time of last days. Rather we will bear tech fruit in season. I earnestly pray that we may give our whole heart to love the word of God so that we can be filled with the breath of God all the time and become men of God who can breaths his Spirit to move hearts. May we be able to serve the great and heart-moving work of God in our own mission fields.

"All Scripture is God-breathed and is useful for teaching, rebuking, correcting and training in righteousness, so that the man of God may be thoroughly equipped for every good work" (2 Timothy 3:16,17).

**2011년 UBF** 목자·선교사 세미나

정신·사역·비전

만든 날짜: 2011년 5월 25일

만든 곳: UBF

책임 편집: 이사무엘

감수자: 이사무엘, 이다니엘, 김다윗, 안스테반

번역: 문엘리야, 정바울, 아브라함 부세코비치

주소: 서울 종로구 효제동 54-2, 110-850

전화: 02-763-7097

[www.ubf.or.kr](http://www.ubf.or.kr)

**2011 UBF Shepherd • Missionary Seminar**

**Spirit • Ministry • Vision**

Printed in May 25th 2011

Published in Seoul, by UBF

Publisher: Samuel Lee

Chief Editor: Samuel Lee, Daniel Rhee, David Kim, Stephen Ahn

Translator: Elijah Moon, Paul Chung, Abraham Vucekovich

Address: 54-2 Hyoje-dong, Jongno-gu, Seoul, KOREA

Tel: 02-763-7097

[www.ubf.or.kr](http://www.ubf.or.kr)